



초특급울트라어메이징캡송짱
스테디셀러 완소초거대작

다음면 일토리 실버티어즈의

X-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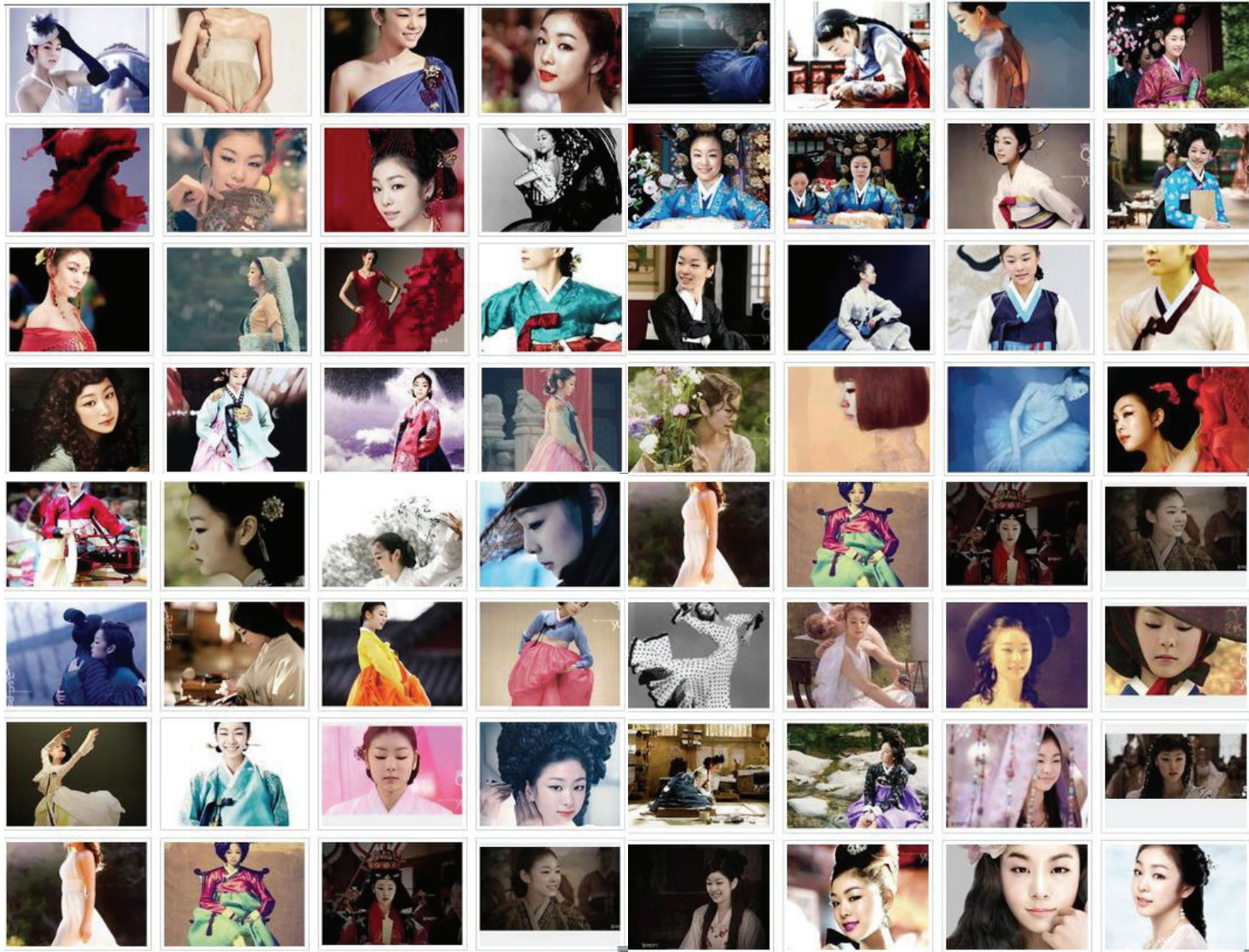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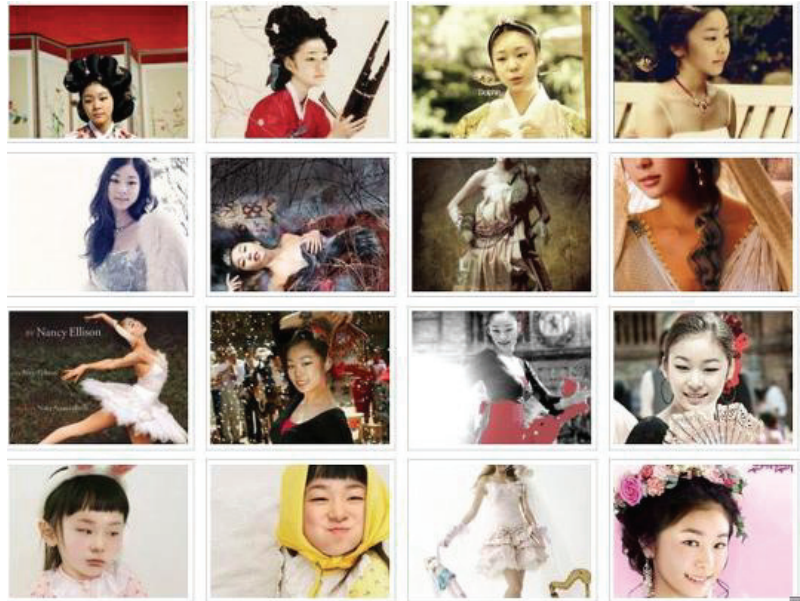


Long Live The Queen~!

KIN~!

다음면 일토리 장디출판사

글쓴이 실버티어즈
편집장 금장디
인쇄 anitya



X-파일(김연아편) [33]

실버티어즈 [작영글 전체보기](#)

추천 92 | 반대 5 | 조회수 3898 | 2010.12.01

S 본부 '그것이 알고싶다'에선 최근 미국 전문 폭로사이트인 위키리크스에서 비밀 문건을 입수하였는데, 그 문건에는 FBI의 특수부서 요원들의 녹취록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확실한 정보통을 통해 입수한 X-파일 내용을 정리하여 올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멀더 : 스킨리! 혹시 오파츠(Out of place artipacts)라고 아세요?

스컬리:그래요, 멀더! 그건 시대에 맞지 않는 유물이라는 뜻이 아닌가요..

고고학이나 고생물학적으로 전혀 있을 수 없는 인공물들이 발견되곤 했는데 이건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기에 오파츠란 애매한 표현으로 해석을 미루고 있다고 들었어요..그런데 오파츠가 왜요?

멀더 :1968년 윌리엄 마이스터가 발견한 화석은 3억년전의 화석이죠..그런데 거기 삼엽충과 함께 찍힌 화석속엔 인간의 발자국이 남겨져있어요..(정말 미스테리하죠?)

몇천년전에 세워진 이집트 아비도스 벽화엔 현대의 무기체계인 헬리콥터, 잠수함, 비행기 등이 놀랍도록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죠..(이것도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마야문명 시절의 관의 덮개엔 우주비행사가 우주선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 그려져있고,
터키에서 발견된 유물중엔 3 천년전에 제작된 우주비행선 모형이 있죠..(놀랍습니다;;)

또한 마야문명의 유물로 남겨진 수정해골들은 모스경도 7 이나 되어서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경도가 높아 현대의 기술로도 그렇게 완벽한 해골모양으로 가공하기가 쉽지않다고 하며 인간이
직접 연마하려면 300 년이란 시간이 소요된다는데, 이미 오래전에 정밀한 세공으로 남겼다는게
신기합니다..(후덜덜;;)

스컬리:그럼 외계문명이 간섭했다는 말인가요?

멀더 :그래요..그럼 간단히 설명이 되는 해답이죠..안그러면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안되니까요.

스컬리:사실 저로선 믿기지 않군요..미안해요..멀더!

멀더 :사실 외계존재에 대한 의문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어요..이번에 NASA 에서 12/2 일에
외계생명체에 대한 중대발표를 할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사실 난 가장 유력한 용의자를 한명 알고있어요..

스컬리! 혹시 지난 밴쿠버 올림픽 보셨나요?

스컬리:그럼요..그중에 권연아는 정말 대단한 감동을 주었었죠^^

멀더 :흠, 이거 당신에게만 알려주는건데..

현재 가장 유력하게 외계인으로 의심되는 존재가 바로 한국의 유나킴이예요..

이번 그랑프리 시리즈 보셨다면 알겠지만, 여신들 모두 다 거기서 거기죠..

하지만 지난 시즌까지 유나킴이 보여준 실력은 완전히 압도적이었어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완벽한 점프와 예술성을 갖추고 미끄러운 빙판위에서 음악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지 아직도 의문이거든요..

스컬리:설마요..그녀가 외계인이라니? 에이 설마요..

멀더 :그러면 어떻게 그런 피겨변방인 한국에서 유나킴같은 선수가 배출될 수 있다고 보나요?
내가 보기엔 분명 외계인이거나 혹은 외계인이 첨단 나노머신을 체내에 주입하였기에 그런
섬세하고 우아하면서도 파워풀한 피겨가 가능하다고 봐요.

데뷔초기부터 전세계인을 사로잡은 그녀라구요..그리고 아마 초반 몇년은 지구에 적응하느라
부상이란 핑계로 어느 정도의 주목만 받았을 뿐이었을거예요..처음부터 그런 실력을 내보이면
당장에 추적이 시작될테니까요..그럼에도 엄청났지만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적응이 되고나선 압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거겠죠!

스컬리:음..당신과 있다보면 자꾸만 혼란이 와요..정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하죠?

멀더 :이미 아무도 모르게 맨인블랙팀이 움직이고 있어요..그리고 사실 외계존재라 하더라도 무조건 피해를 주는건 아니니까요..그녀가 한 일을 보세요..오히려 그녀는 즐기치게 평화의 메세지를 인류에게 던지고있어요..

어쩌면 갈수록 피폐해지는 인류의 마음을 정화시키고자 하는 선진 외계문명의 시그널인지도 몰라요..

스컬리:그렇군요..아..멀더! 본부로부터 호출이에요..뉴멕시코 지역에서 어떤 비행 금속물체를 봤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멀더 :그럼 스컬리..어서 출발합시다!

.
. .
.

이상의 녹취록을 토대로 그냥 방영한다면 단번에 엄청난 혼란이 올거라면서 요즘 S 본부 데스크는 연일 난상토론이라더군요..

그러는 나날중에 어제 연아양으로부터 날아온 조국에의 러브레터가 공개되었고, 결국 연아양은 유전인자에 한국인의 핏줄이 확실히 새겨진..그저 신의 선물같은 존재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어서 방영불가로 기울어지는 형편입니다.

물론 그런 조국에의 오마주조차 자신의 정체를 죄어오는 맨인블랙팀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고도의 작전이라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믿거나 말거나..

이상 fishingmaster.com 의 수습기자 실버티어즈였습니다!

X-파일 2화 (김면아편) [35]

실버티어즈 [작영글 전체보기](#)

추천 49 | 반대 2 | 조회수 1891 | 2010.12.02

<< 구 소련 KGB 요원이던 **몰로프**에 의해 육성된 조직에서 훈련받았으며 어린 나이에 미합중국의 시민 신분으로 위장하여 CIA 내부 깊숙이까지 침투하여 암약한 **페트로프스키(미국명:이블린 솔트)**에 의해 촉발된 사건으로 인해 국가 주요기관 내부감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각 기관의 요원들에 대한 전방위적 정밀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FBI 요원 감찰 임무 수행중 최근 특이한 동향을 보이는 요원들이 있어 24 시간 밀착 감시하여 이상 징후를 포착한 바, 그들의 행적을 담은 spy cam 의 영상을 첨부하여 보고하니 분석팀에 의뢰하여 이를....>>

-비밀인가등급 S 급 서류: 코드네임 **Grand Fish** 보고서" X-파일팀 동향 "에서 발췌-

스컬리: 멀더!! 멀더!! 안에 있어요?

멀 더 : 아..스컬리, 웬일이예요? 이 시간에?

스컬리: 세상에..멀더! 어떻게 된 일이죠? 며칠동안 아무 말도 없이 무단결근하다니..게다가 얼굴은 왜 그래요? 턱밑까지 검게 변하다니...설마 다크서클이 거기까지 내려간건가요?;;

멀 더 : 이런..일단 안으로 들어와요..설명해줄게요.

전에 내가 오파츠에 대해 설명한 적 있죠? 그런 오파츠중엔 탄소축정 연대 십만년전의 화석속에 20 세기의 전기 콘센트가 박혀있는 유물이 발견된 적이 있는데 이건 타임머신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타임루프를 경험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며칠째 그걸 조사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네요..미안해요..

참..스컬리 이걸 보세요!

스컬리: 멀더! 이건 유나킴이잖아요..또 그녀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멀 더 : 맞아요..여기 유나킴의 피겨영상을 보세요..정말 아름답죠?

그녀의 작품영상들은 거의 다 겨우 몇분에 지나지 않죠.

그런데 그녀의 영상을 보는 사람마다 다 보고나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다는것을 경험한대요.

이미 피겨팬들중 상당수가 그런 경험을 하고, 그들 사이에선 이미 연느 타임머신을 경험했다는둥 하면서 몇년전부터 회자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도 조사차 그녀의 영상을 보고있었는데..어느새 며칠이 지나고 말았네요.

스컬리: 이봐요, 멀더! 그걸 말이라고..그건 그저 유나킴에게 매혹된것뿐이잖아웃!!

하여간 남자들이란..흥! 이번 주말 캠핑카로 떠나자던 낚시여행..

아무래도 난 못갈 것 같군요..

멀더? 멀더? 내 말을 듣고 있는거예요?

멀 더 : 응?뭐라구요, 스컬리? 아..스컬리도 와서 이 영상들을 보고 같이 조사해줘요..

스컬리: 에효..무슨 연느 타임머신 경험이라고..어디 좀 봐요!

.
. .
. .
. .

멀 더 : 스컬리! 스컬리! 일어나요..벌써 아침이라구요.

스컬리: 헉! 멀더..어떻게 된거죠? 왜 내가 멀더 집에서 밤을 보낸거죠?

대체 내게 무슨짓을 한거예요?(19 금 망상중?)

멀 더 : 스컬리..진정해요..정신 좀 차려요! 자..기억을 되짚어 봅시다.

내가 보던 유나킴 영상을 곧이어 스컬리도 같이 보고..그리고..음..

이럴수가..그리곤 어느새 아침이 온 것일뿐이란 말인가?

스컬리: 멀더! 설마 이게 말로만 듣던 타임루프 현상?어떻게 이럴 수 있죠? 겨우 몇분짜리 영상을 본것뿐인데..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건너뛰고 아침을 맞게된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영상들을 보고 또 보고 그랬다는건가요?

멀 더 : 흠..글쎄요..저도 설명할 순 없어요..

어쩌면 유나킴의 몸에서 알 수 없는 비가시광선이 카메라로 照射되어 그녀의 모습이 수록된 영상들이 특별한 작용을 하는지도..

아니면 진짜로 연느 타임머신이란게 존재하는지도...앞으로 더 조사해봐야죠!

스컬리: 어쩌면 우리 어느새 연아홀릭이란 신드롬에 빠져있는지도 모르죠!

멀 더 : 이런..시간이 벌써..서둘러요, 스컬리! 이러다 지각하겠어요.

X-파일 3화 (김연아편) [19]

실버티어즈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42 | 반대 2 | 조회수 1394 | 2010.12.02

<<내가 그 동안 이곳에 상주하면서 수시로 목격한바론 여기 연빠들은 내가 어떤 논리를 갖다대도 그저 마이동풍이더군요..내 보기엔 정말로 논리적으로 하자없는 글임에도 자신의 추측과 예상으로만 글을 쓰지말라며 언제나 날 비롯한 일부 유저들을 매도하기 일쑤더군요..조금만 관찰해보면 알거예요..더우기 이 연빠들은 우리나라 곳곳에 있더군요..심지어 언론계나 예술계에도 도처에 잠복해서 그저 김연아만 높이고 닥찬하려고 사실을 왜곡하고 날조하는 광빠들이예요..가끔 개념 잡힌 기자들도 있는데 이 연빠들은 오히려 그런 기자들조차 발기자라고 싸잡아 매도하죠!

내가 이전에 쓴 글들을 살펴보면 알거예요..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비판해도 그저 몰아붙이기만 하더라구요..이번에도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

- NSA 극동지부 파견 요원이 한국 포털사이트 's 모'유저로부터 들은 증언 내용 中 -

멀 더 : 스컬리! 뭐하세요? 여기 이것좀 봐요..흥미로운것이 있군요.

스컬리: 아..전에 뉴멕시코에서 목격된 비행물체 사진 의뢰한거랑 Bigfish lake 에서 어부에게 잡혔던 괴 수중생물에 대한 유전자 감식결과를 보고 있어요.

전문가에 의하면 뉴멕시코 사진은 급격한 이상기후에 따른 빛의 산란작용에 의한 착시현상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잡힌 수중생물은 **Dr.anitya** 님의 분석에 의하면 요 며칠전에 갑자기 풀린 떡밥을 대량으로 섭취하여 체형변화가 심해진 메기의 변종일뿐이라고 하네요.

멀 더 : 흠, 그렇군요..이번에야말로 외계 생명체에 대한 확실한 단서라고 생각했었는데..

아 참..여기 이 공문을 봐요..국방 과학 기술 센터 ESP 연구소에서 NSA의 극동지부로부터 얻은 자료를 공유하고 검토해보라고 보내준건데..

최근 한국에 사진 한장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자가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특별히 한국에 파견된 요원이 그를 만나고 와서 관찰하고 경험한걸 보고한 내용인데 이번에 우리측에서도 검토해달라고 하는군요.

스컬리: 그래요? 흥미롭네요..한국이라면 권연아의 나라 아닌가요?

그녀의 조국에선 인물들이 많이 나오나보네요..그럼 사이코메트리 계열의 능력자인가요?

멀 더 : 흠..아뇨..제가 좀 살펴보았는데 그거랑은 완전 달라요..사이코메트러 같은 경우는 어떤 물체만 접해도 과거나 기억을 일부 캐치할 수 있는 능력자인데 반하여, 이번 한국의 능력자는 그저 사진 한장만 보고 미래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고 하네요.

여러 자료를 수집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파악하고 각종 결과를 추론하고 소거법등을 통하여 미래를 예측해나가는 기존의 프로세싱은 모두 생략한채 바로 결론 하나를 도출한다네요.

흥미로워서 자료를 검토해봤는데..이건 능력자라기보단 그저 자의식 과잉의 망상가같아요..

스컬리도 한번 이 자료를 살펴보세요!

스컬리 : 아쉽군요..정말 훌륭한 능력자라면 우리쪽에서 스카웃할 수도 있었는데..

멀 더 : 정말 그런 능력자였다면 한국 정부에서 벌써 손 썼겠죠..

가뜰이나 요즘 한반도 상황이 어수선하다는데 그런 능력자라면 달랑 사진 한장 보여주고 미래의 변수를 예측하여 국정 운영하는데 도움을 얻었겠죠..보시다시피 그냥 허당이에요.

아참..그런데 그 사람..아..한국 포탈사이트에선 '**s 모**'유저로 통칭하는데..

그 유저가 완전 유나킴의 안티라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소수이긴 해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s 모'유저같은 소위 연까라고 하던데..

역시 내 생각대로 유나킴은 외계인이 틀림없는 것 같군요.

스컬리 : 아..놀랍네요..연까들이란 무리도 있다니..

유나킴같은 선수가 우리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모두가 성원하고 아낌없이 사랑할텐데 말이에요..

멀 더 : 바로 그거예요..스컬리!

그녀가 한국인이 아니고 외계인이란 증거가..

만약 그녀가 자국민이었다면 그렇게 열심히 까대고 깎아내릴 리 없겠죠.

유나킴이 아무리 조심했어도 은연중 자신의 능력을 내보이다 보니 그녀의 조국에서도 이미 외계인이란 사실을 몇몇은 눈치챈거예요.

그래서 자국민이 아닌 외계인이란 사실에 실망하고 그렇게 까대는것이죠!

어떤가요? 나의 이 명징한 추론이?

스컬리 : 멀더! 오, 멀더!!

그거 알아요? 방금 당신이 말한 논리란게 바로 그 's 모'유저의 결론부터 도출하고 꺾어맞추는 논리방식과 같다는것을..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죠..하루종일 자료만 파고 있었더니 배가 고프군요.

멀 더 : 스컬리! 어떻게 나에게 그런 소리를..

대체 날 누구하고 비교하는겁니까..유나킴은 외계인이 맞다니까요...

이봐요..스컬리!!!..젠장..같이 가요..나도 배고프다구요..

X-파일 4화 (김연아편) [37]

실버티어즈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35 | 반대 3 | 조회수 1699 | 2010.12.03

<<어느 날 하늘님의 아드님인 환웅께서 하계의 인간들을 둘러보시니 그 곤궁함이 극에 달하여 이를 보시고 매양 애닦아하시더라..환인천제께 고하고 천하로 내려가기를 청하시니 天帝께서 그 공훈히 여기는 마음을 가상하다 하시고 삼위 태백을 둘러본 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하다시며 천부인 3 개를 주시니, 이에 환웅께서 풍.운.우 삼사와 무리 3 천을 거느리고 신단수 아래로 내려오셨음이라.

인간들을 교화하고 두루 살피시다 귀천하신 환웅님에 이어 단군님이 대를 이어 법과 도리로 다스리시나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미혹해지고 혼탁해지는데도다..후일 세상이 혼돈에 쌓이면 다시 하늘이 사람을 내어 즉물적인 인간들을 평온케 하실것이니 너는 천문을 살피는것을 게을리 하지말것이며 후대에게도 이를 잘 전해야 할것이다..언젠가 동쪽 하늘에 潛皇星이 빛나게 되면 그때는.....>>

- 고대 조선의 天文官 황야거사와 제자 해밀의 대화중 -

스컬리: 멀더! 이번에 유타주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단체 실종사건에 대한 단서는 좀 찾았나요?

밤중에 소리없이 일단의 사람들이 실종되었던 그 사건 말이에요..

멀 더 : 아..스컬리! 그건 이미 해결되었어요.

같은 고등학교 동급생들끼리 한밤중에 담력시험한다고 산중에 모였다가 길을 잃고 헤매다 어제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다고 하더군요.

며칠간의 허기와 추위로 다들 탈진 상태이지만 건강엔 다들 이상이 없다는군요.

스컬리: 멀더! 그거 처음에 당신은 외계인에 의한 납치라고 보지않았나요?—.

멀 더 : 아하하하..하..하^^;; 스컬리! 이것 좀 보세요..

이건 얼마전 해외정보 수집팀의 **lorien** 님이 중국출장을 갔다가 만주 지역에서 얻은 고서적이라고 하던데 흥미있는 내용이 적혀있어요.

여길 보면 지금의 한국 조상들이 하늘에서 왔다는데 이건 천손설화를 나타내죠.

게다가 그려져있는 별자리는 우리 태양계가 아닌 다른 성계의 별자리예요.

스컬리: 멀더! 당신이 뛰어난건 알았지만 고대 동양어문에도 능통한줄은 몰랐어요..대단한걸요.

멀 더 : 하하..스컬리!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건 고고학에도 조예가 깊은 언어학자 **Mrs.bany** 님의 해석본이랍니다..일전에 부탁해서 받은거예요^^

아무튼 이 책대로라면 한국인들의 조상은 분명 지구인이 아니고 외계의 존재임에 틀림없어요.

유나킴은 어쩌면 그런 외계인의 유전적 형질이 100% 구현된 후손일수도 있어요.

스컬리: 멀더! 또 권연아인가요? 그만 좀 해요..

그보다 저번에 NASA 에서 발사한 패스파인더 3 호가 이번에 천왕성 근처를 지나는 중에 이상한 우주신호를 접했다고 하네요..이거나 좀 봐줘요!

지난해 인도 국립천문과학원의 **쫄마&금장디**팀이 발견한 안드로메다 성계의 A-50 행성 근처에서 발현된 신호라고 하더군요..갑자기 패스파인더 3 호에 트래픽이 심하게 걸려서 알아챘다고 하는데 현재의 기술력으로든 어떤 신호인지 해독할 수 없대네요.

멀 더 : 흠..A-50 행성이라구요? 그 행성관측 자료가 어딘가 있을텐데..

아..여기 있군요..흠?!

스컬리..스컬리! 이것 좀 봐요.

정말 놀랍게도 이 고서적에 그려진 **잠황성**이란 별이 위치한 별자리와 A-50 행성 주변의 별자리가 완벽히 일치하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광학 망원 렌즈조차 없던 고대에 이런 관측이 가능했던거지?

스컬리: 왓! 정말 그러네요..놀라워요..이것도 하나의 미스터리군요.

참..한가지 더 말해줄 게 있는데..

패스파인더 3 호가 신호를 접했던 날 LA 인근에서 미약한 전기신호가 우주로 쏘아졌다는군요.

멀 더 : 정말인가요,스컬리?

과연 그랬군요..그게 언제죠?혹시 11/30 일이 아닌가요?

스컬리: 헉! 멀더..도대체 어떻게 안거쥬?

멀 더 : 이제 모든게 명확해지는군요..스컬리, 잘 들어요!

그 신호는 바로 유나킴의 고향별에서 유나킴에게 보낸 특별 메세지인거예요..

지금 유나킴은 LA 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유나킴에게 맨인블랙팀이 따라붙자 그녀의 고향별에서 지침을 내려주고 유나킴은 자신이 외계인이 아니란걸 입증하고자 바로 그 날 한국에의 오마주란 러브레터를 보냄으로써 자기가 온전한 한국인이란걸 발표한거예요!

그럼 유나킴의 고향은 바로 A-50 행성이 틀림 없겠군요.

스컬리: 그만 좀 해요..멀더! 온통 유나킴에 대한 이야기로군요.

멀 더 : 아니예요..스컬리! 이번은 틀림이 없다구요..

잠시만요..이렇게 아니라 빨리 국장님께 보고하고 LA 로 출장을 가야겠어요.

이번엔 직접 부딪혀봐야겠군요.

스컬리: 예호..멀더! 저번에 **볼트인** 국장님이 부족한 예산때문에 한참 꾸념하던거 잊었어요?

그런걸로 출장간다면 잘도 보내주겠네요..

차라리 내가 가서 **실비아** 부국장님에게 승인을 받아올게요.

멀 더 :고마워요, 스컬리!

참..출장비 넉넉하게 받아와요..

아..이번에 대놓고 유나킴을 조사하면 곤란할테니 위장 신분증이 필요할거예요..

대 포 폰하고 새로운 신분증도 부탁해요!

To be continued..

X-파일 5화 (김연아편) [28]

실버티어즈 [작영글 전체보기](#)

추천 48 | 반대 2 | 조회수 1603 | 2010.12.04

<<아..나른한 오후네요..올 한해동안 연아가 많은 영광도 누리고 우여곡절도 겪으며 늘 언론의 주목을 받느라 스케줄 조정하기도 힘들었는데..요즘은 평안하게 연아의 연습만 한가로이 구경할 수 있네요..그런데 USSA 올해의 선수 후보에 선정되어서 어쨌 또다시 인터뷰가 빗발칠지도..이런..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네요..그런데 못 보던 스포츠잡지인데 신생 회사인가보네요..아..저기 기자 두 명이 들어오는군요.....>>

- 권연아 매니저의 혼잣말 -

스컬리: 반가워요..유나킴! 전 다이아나라고 해요..인터뷰에 응해줘서 고마워요.

멀 더 :

스컬리: 뭐하고 있는거죠?숙녀를 앞에 두고 자기 소개도 않고..

멀 더 : 아! 미안합니다..너무 눈부시게 아름다워서 순간 할 말을 잃었네요..

전 멀더..아니 **moderN** 이라고 합니다..키가 크다고 가끔 멀대라고 하죠! ^^;;

이건 제 명함입니다..권연아 선수!!

김연아: 푸하하하..아..죄송합니다..너무 재밌으셔서요!

만나서 반가워요..다이나나기자님, moderN 기자님!

그리고 이쪽은 제 코치를 맡아주고 계신 피터 오피가드 코치님이세요!

응? 근데 스포츠 잡지사 이름이 "**Big Foot**"이군요..

스포츠 잡지 이름치곤 상당히 특이하네요?

멀 더 : 아하하;; 요즘은 발기자가 대세라서요..

그건 아니고 발로 기사를 작성하지 말고 '발로 열심히 뛰어서 생생한 기사를 전달하자' 이게 저희 회사의 모토입니다..(스컬리!! 신분증 좀 잘 만들지 이게 뭐예요?-..-;;)

김연아: 아하~네..그렇군요. 그럼 이제 인터뷰 시작해볼까요?

스컬리: 네..먼저 지난 밴쿠버 올림픽 연기가 너무나 아름다웠다는걸 말씀 드리고싶네요.

정말 그렇게 눈부신 연기는 제 평생 처음이었어요..역시 퀸연아답다고나 할까?

아..참..이번에 미국 스포츠 아카데미 올해의 선수 후보에 노미네이트된것도 축하합니다.

지난번 올댓스포츠 LA 아이스쇼를 직접 못봐서 참 안타까웠는데요..

요즘 이곳에서의 훈련은 어떻신가요?

김연아: 네..이 곳 LA 는 제가 처음 월드 챔피언에 오른곳이기도 하고 고국의 동포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는곳이라 참 편하면서도 뜻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피터 코치님을 만나서 이곳을 훈련지로 정할때도 참 마음이 든든했죠.

그리고 요즘은 내년 월드 챔피언쉽에 대비해 쇼트와 롱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멀 더 : 아..그렇군요..얼마전 선곡이 끝나고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올해 그랑프리틀 스킵하고 내년 월드만 참여하시는건데 자신은 있으신가요?

김연아: 글썄요..사실 올림픽이 끝나고선 제 오랜 꿈이 이루어졌다는 성취감과 동시에 허탈감까지 몰려와서 잠시 쉬고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역시 내가 있을곳은 빙판위이고 좀 더 오랫동안 팬들과 그 여정을 함께 하고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제가 지금의 위치에까지 오른데에는 정말 많은 팬분들의 성원이 있어 가능했다는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프로그램들은 그런 팬분들과 저의 조국에 바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았어요.

컴페티션이긴 하지만 이미 제겐 경쟁은 의미없어요..

좀 더 저의 연기를 완성시켜 관객과 팬분들과 교감하고 싶을뿐이죠..^^

멀 더 : 아..그런 의미가 담겨있군요..정말 이번 그랑프리틀 지켜본 많은 분들이 유나킴 선수의 연기를 얼마나 고대하는지 모릅니다..저도 그렇구요!^^

앗! 이런 죄송합니다..구두 끈이 풀려서요..잠시만요..

김연아: 별 말씀을요..어서 매도록 하세요^^

.

.

멀 더 : 이런..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군요..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죠.

감사했습니다..유나킴! 저흰 이만 가볼께요..

김연아: 네?..벌써 끝난건가요? 굉장히 짧군요..제 코치님과도 별 말씀 나누시지도 않고..

바쁘시다면야..네..수고하셨습니다^^

스컬리: 멀더! 도대체 무슨 일이죠? 왜 벌써 돌아가는건가요?

멀 더 : 쏘! 스컬리,조용!.. 어서 돌아갑시다!

사실 아까 구두끈 묶는척 하면서 빙판위의 머리카락을 주웠어요..

이제 결정적인 단서를 잡은거죠..어서 가서 유전자 감식을 의뢰합시다..

이것이 그녀가 외계인이란걸 확실히 밝혀줄거예요!

.

.

.

스컬리: 멀더! 방금 분석팀의 **Mr.Hulman** 씨에게 감식결과를 받아왔어요.

한동안 클래식에 빠져있더니 지금은 무슨 생소한 가락을 흥얼거리더군요..

"알리알리 알라성..청산에 살으리랴따"이런식으로 읊조리던데..

멀 더 : 아..그건 한국의 옛 민요같은거예요..

Hulman 씨도 한류에 빠진건가?

그나저나..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결과가 나왔나요?? 제 말대로 인간이 아닌거죠?

스컬리: 아.니.오! 전혀요..그 머리카락의 주인은 인간 맞아요..

그것도 중년의 백인 남성으로 판명났어요!

멀 더 : 아니, 남자라니요..그게 무슨 말이죠?

스컬리: 멀더가 주워온 건 피터 오피가드 코치의 머리카락이에요.

에효..주워오려면 좀 잘 주워오거나 할것이지..

하긴 똑똑해보이면서도 가끔 이렇게 허술해 보이는게 당신의 매력인지도 모르지만요.

멀 더 : (빠끔) 이럴수가!....잠깐만요..스컬리! 근데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설마 제게 호감이라도 느끼는건가요?그런거예요?

스컬리: 앗! 이런..옆팀의 가인님과 약속이 있는걸 깜빡했네요..멀더!..저 먼저 갈게요.

멀 더 : 이봐요..스컬리! 대답해주고 가야죠! 스컬리?

쳇..욕인거야?칭찬인거야?

아무튼 유나킴! 언젠간 당신의 정체를 꼭 밝혀주고 말겠어!

(그나저나 정말 아름답긴 하더군..)

X-파일 6화 (김연아편) [30]

실버티어즈 [작업을 전제보기](#)

추천 27 | 반대 1 | 조회수 1013 | 2010.12.04

<<요 몇년간 조직원중 그대의 활동이 두드러진것에 대해 조직 수뇌부에선 무척이나 고무되어
있소..탁월한 능력과 특유의 성실성으로 수익증대에 기여하는 당신을 올해 우리 조직의
스팸제왕으로 선정하였으며 연말 시상식에선 소정의 상금과 함께 동원식품 스팸세트
2 호 1 상자를 수여하기로 했소..금년 조직원 대회합에서 보도록 합시다..다만 최근 FBI 에서 우리
조직을 겨냥하여 수사망을 좁히고 있으니 언제나 증거가 남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혹시라도
꼬리를 잡히지 않도록.....>>

- '메가 D' 간부 조직원의 메일 내용 中 -

스컬리: 멀더! 뭐하고 있어요..사이버 범죄 수사팀의 요청으로 우리도 지원가라는 국장님의
지시가 내려왔어요..어서 출발해야해요!

멀 더 : 흠..내 예일대 동기가 한명있는데 학창시절부터 좀 엉뚱한 면이 있긴해도 그가 전공한
고고학 분야에서만큼은 대단한 명성을 얻은 친구가 있어요.

전공분야가 그쪽이어서지 늘 인적 드문곳에서 처박혀있다가 불쑥 나타나 연락하곤 하는데
얼마전 메일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메일을 열어보려는데 찾을수가 없네요..메일을 열기만 하면 자꾸 **aboutblank** 만 뜨는군요.

스컬리: 잠시 비켜봐요, 멀더!

흠..멀더! 지금 보니 멀더 컴퓨터가 엄청난 스팸폭탄에다 바이러스까지 침투하여 컴이 제 구실을 못하고있네요.

그렇지 않아도 밀워키지부에서 업무 공조를 요청하는것도 이것때문이에요.

그동안 우리 FBI 와 연방무역 위원회(FTC)에서 몇년동안 뒤쫓고 있던 조직 아시죠?

전 세계 스팸메일의 32%를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추정하는 조직말이에요.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아서 그저 '메가 D'라 명명하고 추적중이었는데 이번에 밀워키 지부에서 그 해당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찾았다고 하더군요.

일명 스팸메일의 제왕이라고 하는군요.

멀 더 : 으악! 용서못해..그 작자 이름이 뭐죠?

덕분에 오늘은 쿤연아의 영상조차 하나도 보지 못했대구요..나의 유일한 낙인데..

게다가 친구의 메일도 확인해야 하는것을..

스컬리: 멀더! 또 유나킴인가요? 그 정도면 편집증에 가깝다구요..

근데 정말 유나킴을 외계인으로 봐서 집착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무래도 외계인으로 보고 관심을 쏟는거랑은 다른것같군요. 一.一;;

혹시 멀더의 **이상형**이 유나킴인건 아니에요?

이제 됐어요...내가 좀 손봤으니 이제 컴을 써도 될거예요.

멀 더 : (어버버) 물론 그녀가 이쁘고 연기가 대단해서 눈을 땔 수 없는건 맞아요.

하지만 그녀는 내가 어떻게 넘볼 사람이 아니에요..나의 이상형은 바로..

스컬리: 아..여기있군요..이거 당신 친구가 보낸 메일같은데 맞나요?

멀 더 : 예호..모처럼 용기내어 말하려던 찬스였는데..

스컬리: 네? 뭘 말하려했던건데요?

멀 더 : 아니에요..잠시만요..메일 확인 좀 하고...

흠..내 친구가 이번에 고지대를 탐사하면서 또 하나의 오파츠를 찾아낸 것 같아요.

우리 X-파일팀이 가봐야할곳은 여기같은요..또 다른 미스테리를 추적합시다!

스컬리: 안되요, 멀더! 국장님이 매일 쓸데없는 짓만 한다고 이번엔 밥값 좀 하라면서 직접 지시했다구요.

먼저 밀워키에 들러서 올렉 니콜라옌코란 러시아인을 추적해야 해요.

멀 더 : 알았어요, 스킨리! 그럼 밀워키에 들어서 그 자를 잡고 나서 바로 떠나려 갑시다.

그런데, 그자의 이름이 올렉 니콜라엔코라구요?

으드득..감히 오늘 하루 권연아의 타임머신 영상을 놓치게 하다니 꼭 잡고말테닷!

.
. .
.

<<CNN 속보를 알려 드립니다..오늘 저녁 밀워키에서 모스크바 출신의 23 세 청년이 구속되었는데 그는 그동안 스팸메일의 제왕으로 불리며 이메일 메시지를 위조하여 하루최대 2,500 개의 스팸메일을 발송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BI 에 의하면 이 용의자는 하루에 100 억개의 메시지까지 생성하여 보낼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하며, 전 세계 스팸메일의 1/3 을 차지하는 '메가 D'란 조직과도 연관이 있는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달 안으로 위스콘신 주 밀워키 연방법원에 스팸메일 통제법(CAN-SPAM Act) 위반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용의자를 잡은 수사요원은 한쌍의 FBI 요원들이었는데, 유독 남자 요원의 흥흥한 기세에 놀란 용의자가 쉽사리 잡혔다고 합니다.

한편, 용의자를 밀워키 지부에 넘긴 한쌍의 요원들은 총총히 사라졌으며..용의자는 아직도 겁에 질려있다고 하는군요.. 이상 CNN 리포터 **Pink Rabbit** 이었습니다!>>

To be continued..

X-파일 7화 (김연아편) [40]

실버티어즈 [작영글 전체보기](#)

추천 41 | 반대 4 | 조회수 1546 | 2010.12.05

<<저 하늘을 보아라..바람을 타고 나는 독수리처럼 우리의 조상들도 자유롭게 이 땅을 번성케하였더니.. 대지의 풍요로움에 감사해라..우리의 어머니들이 스러진 영혼이 깃들어 당신의 아들딸들을 보살피느니..하루를 살아 피고지는 들꽃에도..소소한 바람 부는 사잇길에도..밭밑에 굴러다니는 돌맹이에도 정령들이 깃들어 있느니라..나의 생명의 귀함을 알거든 함부로 다른 생명을 해치지 말지니..이는 자연에 깃든 우리 조상의 얼과 혼을 부수는 짓이니라..오로지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만 다른 목숨을 취하라..우리의 삶이 다하면 육신을 흙으로 되돌리고 우리의 혼은 우리의 아버지와 그 아버지들이 그랬던것처럼 하늘로 오르고 영은 대지에 깃들터이니..나의 아들과 딸아! 명심하여라..미타쿠여 오야신!(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디언 말)..네 영혼이 길을 잃고 헤맬때면 하늘에 뜬 무지개 위의 무지개를 보아라.....>>

- 옛날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 큰 뿔 사슴족 족장 '별빛아빠'가 아들 '연짱쥐고 일어서'와 딸 '깜찍한 여우'에게 들려준 이야기 중에서 -

스컬리: 멀더더더? 멀더더더?! 어디 있어요요요요?

멀 더 : 장난치지 말아요, 스컬리! 나 여기서 작업하는거 뻔히 보면서..

이곳에 아이젠을 고정해놔으니 줄을 타고 내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스컬리! 이제 그만 비춰도 되요..치우고 내려갈 준비하세요!

나처럼 LED 헤드램프를 쓰라니까 춥다고 모자만 챙기더니만..

그나저나 그 붉은색 비니 참 잘 어울리는군요..자, 서두릅시다!

스컬리: 멀더! 잠시만요..플래쉬 좀 고정시키구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여기에 와있는거죠?

애팔래치아 산맥 깊숙한 피드몬트 고원의 깊은 동굴에까지 와서 뭐하는거냐구요..

멀 더 : 저번에 내가 말했잖아요..내 친구가 이 동굴에서 오파츠를 발견하였다구요.

동굴 깊숙한곳에서 끝이 안 보이도록 기다란 철봉구조물이 아래로 향해 있다고 하는군요.

이건 마치 차이나의 허베이성에서 발견된 유물과 비슷한 구조같아요..

어쩌면 외계인의 우주선 발사대나 지지대였는지도 몰라요.

스컬리: 멀더! 그런데 과연 고대에 그런 철골 구조물이 가능한걸까요?

전 아직도 이해가 안되요..

멀 더 : 일단 하네스 안전고리 고정시키구요..그래요..

슬링도 연결해서 이제 천천히 내려와요..밧은 내려다 보지 말구요.

사실 그런 대표적인 유물로는 1934 년 6 월에 런던텍사스 지역에서 발견된 망치가 대표적이예요.
발견 당시 그 망치는 석회암 덩어리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석회암의 연대 측정 결과 인간이
존재할 수 없었던 1 억 4 천년전의 공룡시대로 밝혀져 놀라움을 주었죠.

이건 그동안의 인간 진화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과였어요.

더우기 1989년 야금학 연구소인 "바텔 메모리얼 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그 망치의 금속 부분은 96.9%의 철, 2.6%의 염소, 0.74%의 유황으로 구성된 순수한 철로 밝혀져 부식되지 않는 강철이랑게 드러나서 충격을 주었지요..

이런걸 보면 고대문명이 무척 뛰어났거나 아니면 선행 인류에게 문명을 전해준 외계 존재가 있던게 분명해요..

스컬리: 하여간 당신은 늘 그 소리군요!

아..이제 다 내려온 것 같아요..

이게 그 문제의 철봉 구조물 같은걸요?

멀 더 : 어디 살펴봅시다.....앗? 스컬리! 이리 좀 와봐요!

여기 무슨 벽화 같은게 있군요..

스컬리: 그러네요..흠..복장이나 깃털 족두리를 쓰고 있는걸 보면 원주민같은군요..

여길 봐봐요..이건 마치 비행물체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사람들이 원으로 둘러싸고 위를 바라보는 하늘에 떠있는 물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은 마치 축제를 벌이는걸 표현한듯 하고..

어? 여기에는 어떤 여성이 홀로 무슨 춤을 추는듯한 그림이 그려져 있군요.

멀 더: 어디? 그럴군요...음?

잠시만요, 스컬리! 이건 마치 피겨의 동작같지 않나요?

여기 외계인으로 의심되는 여성이 취하는 동작들을 보세요..

이건 마치 아라베스크 스파이럴같고..여기 이렇게 팔을 모으고 하늘로 뛰어오르는 동작은 피겨점프같아보여요..그리고 이 동작은 마치 비엘만 스핀같고..여기 앉아서 도는건 시스핀 같지않나요?

스컬리! 난 이걸 보면서 다시금 확신해요!

스컬리: 뭘 말이죠? 멀더?

멀 더 : 분명 옛날에 이곳 아메리카 대륙에도 외계인이 찾아왔던거예요.

그 외계인의 문화에 이런 춤이나 피겨같은게 있어서 그걸 보고 원주민들이 벽화로 남겨놓은거죠.

그렇다면 요즘 홀로 천상의 연기를 보여주는 유나킴의 실력도 충분히 납득이 가요.

그녀의 행성에선 이게 일상사였을거예요.

단지 이번엔 아메리카가 아니고 한국에 내려온것이 다르다는 사실뿐!

특히 그림에 그려진 여성처럼 중력의 법칙에서 자유로운 유나킴의 점프를 비교해봐요

스컬리: 멀더! 난 이제 피곤하군요..

당신의 비약을 듣고있다 보니 더 지치는 느낌이에요..어서 올라가자구요!

앗!...멀더! 어떡하죠?

줄이..당신이 고정시켜놔던 아이젠이 빠진 모양이에요..우리 이제 어떡해요!

•

•

•

스컬리: 멀더! 나 이제 졸려요..우리 이렇게 깊은 동굴속에서 조난되고 만건가요?

아..자꾸 졸음이 몰려와요...멀...더!

멀 더 : 스컬리! 정신 차려요..여기 물 좀 마셔봐요..스컬리! 스컬리!

To be continued..

X-파일 8화 (김연아편) [25]

실버티어즈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8 | 반대 2 | 조회수 842 | 2010.12.05

<<사람은 태어난 이상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고 한다..그러나 이것은 운명론처럼 이미 정해진 결과로 다가가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무릇 창조가 있으면 멸망이 있다는것은 물리학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이런 물리학적 법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도 해당된다..우리의 우주도 태초에 無에서 태어나는것이 아니고, 또다른 우주나 상위우주의 간섭에 의한 빅뱅으로 태어난것이다..사람이 여러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가며 생멸과 종족을 이어가듯 우주도 마찬가지다..우리의 우주밖에는 또다시 무수한 우주들이 얹혀있을 수 있고 지금도 새로운 우주가 탄생하고 있는지 모른다..다만 현재의 과학으로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것일뿐이다..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과 특정 조건에 의해 통상적으로 갈래가 나뉘어, 서로 다른 일이 일어나는 우주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일컬어....>>

- 독일 쾰른대학교 석좌교수 '브뤼힐트'의 우주론 중에서 -

멀 더 : 스컬리! 이봐요, 스컬리! 이제 정신이 들어요?

스컬리: 멀더?음..괜찮아요..우리 어떻게 된거죠?

멀 더 : 당신이 정신을 잃고난 뒤..긴급구조팀이 GPS 위치추적을 통해 가장 마지막에 흔적이 끊긴곳을 수색하여 동굴에서 구조될 수 있었어요.

스컬리! 이제 안심해요..여긴 병원이에요.

당신은 이틀동안 정신을 잃었다 지금 깨어난거구요.

스컬리: 다행이군요, 멀더! 당신은 괜찮나요?

멀 더 : 나도 충분한 휴식을 취했기때문에 이제 어느정도 기력이 돌아왔어요.

스컬리: 이번엔 정말 죽는줄 알았어요..멀더!

다음엔 절대 무리한 일은 벌이지 말자구요.

참..그 동굴에서 발견한 암벽에 새겨진 **작은그림**들은 국장님께 보고 드렸나요?

우리가 죽을뻔하면서까지 발견한 기록인데 말이에요.

멀 더 : 스컬리! 유감스럽게도 그 벽화는 더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어떤 특수한 도료를 사용했는지 구조팀의 환한 불빛이 달고나선 급속히 산화하여 공기중으로 사라지고 말더군요..

당신과 나 둘만이 목격했을뿐이에요..참 아쉽지만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 지역 원주민의 후예에게 듣기론 그 곳은 그들 말로 '무지개가 내리는 계곡'이라며 오래전부터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다고 하더군요.

스컬리: 저런..너무 아쉽게 되었군요..

으음..멀더! 나 조금만 더 잘게요..아직 몸이 피곤하군요!

.

.

.

.

멀 더 : 스컬리! 이봐요, 스컬리! 이제 정신이 들어요?

스컬리: 멀더?음..괜찮아요..우리 어떻게 된거죠?

멀 더 : 당신이 정신을 잃고난 뒤..급히 배낭을 뒤져 보온병에 담긴 따뜻한 물을 당신 입에 흘려넣었어요..(물론 정신을 잃었기에 나의 입에 물을 머금어 당신에게 흘려넣었지만!)

이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인데 보온병 말고도 특별한 기능이 숨겨져있다더군요.

다만 그것은 한국의 특수병과인 보온병과를 수료해야만 얻을 수 있는 기능이라지만 말이죠.

어쨌든 당신이 정신이 들어 다행이에요..

스컬리: 세상에! 멀더, 그러면 우리 아직도 동굴속에 있는건가요?

아....난 방금전 꿈을 꾸 모양이군요.

이미 우리가 구조되어서 병원에서 깨어나는 꿈을 꿔요..뭔가 허무하군요..

이렇게 된 김에 멀더 당신의 이야기나 들려줘요.

당신은 왜 그렇게 유나킴에게 집착하는건가요?

멀 더 : 스컬리!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과 연관이 되어있어요..

우리가 파트너로 만나 7 시즌이나 함께 했었죠..그 후 당신이 떠나간 후 난 갑자기 밀려든 상실감에 폐인같은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날 LA 월드컵피언쉽에서 압도적인 면모를 보여주며 챔피언에 오른 소녀를 보았죠.

난 우리 합중국 선수인 줄 알았어요..관 이후 다시 전설적인 선수가 나타난줄 알았죠.

하지만 나중에 알아본 바로는 피겨환경이 정말로 열악한 한국이란 나라의 선수란걸 알고는 놀랐어요.

그리고 그 성장배경을 조사하면서 의구심을 품었죠.

어떻게 한국에서 이런 백년에 한번 태어날까 말까 한 선수가 툭 튀어나올 수 있을까를 말이에요.

변변한 피겨링크도 하나 없고 지원도 형편없으며 오히려 자국의 연맹이나 언론으로부터도 호의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말이죠..단지 승냥이란 팬들만이 있을뿐인 나라에서..

그건 기적이었죠..그래서 추적하기 시작한거예요..

내 보기엔 틀림없이 유나킴은 외계의 존재예요..그리고 그 승냥이란 팬들은 그 사실을 숨기고있는 비밀결사 조직인거죠..

전에 봤던 고서적에 나온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대를 이어 비밀을 전수해온 조직 말이에요..

내 말 듣고있나요?스컬리?

이런..스컬리! 언제 잠이 든거죠? 내가 처음에 고백한걸 들긴한거예요?

잠들면 큰 일 나요..어서 일어나봐요..스컬리!

.

.

.

.

멀 더 : 스컬리! 이봐요, 스컬리! 이제 정신이 들어요?

스컬리: 멀더?음..이제 괜찮아요..우리 어떻게 된거죠?

멀 더 : 당신이 정신을 잃고난 뒤..

스컬리: 멀더! 잠시만요..혹시 긴급구조팀이 우릴 구조해서 지금 병원에 있다고 말하려했나요?

멀 더 : 맞아요, 스컬리! 그걸 어떻게 알았죠?

스컬리: 멀더! 미안해요..(꼬집)

멀 더 : 스컬리! 왜 남의 볼을 꼬집는거죠?

스컬리: 그야 내 볼을 꼬집으면 아플까봐서요..

당신이 아프다니 다행이에요..꿈이면 어쩌나했거든요.

그리고 이건 날 고생시킨 벌이에요^^

근데 멀더! 희한해요..마치 기시감을 느낀것처럼..혹은 예지몽을 꾸 것처럼 이 상황이 낯설지가 않아요.

멀 더 : 흠..그런 일이 있었군요.

어쩌면 스컬리는 평행우주를 체험했는지도 몰라요..

어떤 특정한 조건과 사건들이 만나서 분기점이 생성될때마다 서로 다른 결론으로 향해가는 우주가 생성된다고 하는데 이걸 다중우주 혹은 평행우주라고 하더군요.

스컬리: 그렇군요..어쨌든 다신 경험하고 싶지 않군요..

X-파일 9화 (김연아편) [35]

실버티어즈 [작영클 전제보기](#)

추천 32 | 반대 10 | 조회수 1085 | 2010.12.06

<<1969년 닉슨 대통령 시절 교환사범으로 건너온 지한재,오세림,김선근씨의 세 마스터에게 대통령 경호실과 공군첩보단(OSI)과 함께 지도받아서 그 효율성이 입증되었으며 그 후 전 요원들을 대상으로 체력증진과 기량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보급되었으나, 현재 각 지부 요원들간의 수준 편차가 크므로 전국 요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체계적인 기술소개를 통하여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위하여.....>>

- 2010 FBI 전력 강화 백서 중에서 -

스컬리: 멀더! 뭐해요? 지금 다 모여있다구요..

멀 더 : 아..스컬리! 잠시만요..지금 권연아의 Bulletproof 영상을 보고있는데 다 끝나가요..

이걸 보고있자니 어릴때 보던 윈더우먼 생각이 나네요..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스컬리: 어휴, 멀더! 여기 워크숍에 와서까지도 권연아인가요?

어서 서둘러요..지금 본부의 전 요원들이 모두 강당에 모였다구요!

멀 더 : 알았어요..이만 갑시다!

.
.
.

교육관: 반갑습니다..요원 여러분!

이번 워크숍을 개최한 이유는 갈수록 지능적이고 흉폭해지는 범죄집단과의 싸움에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용의자를 제압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호신술의 기량이 전국 지부간의 질적 차이가 심하다는 무술 지도부의 감사 의견에 따라 표준적인 실례를 들어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각 지부 요원들은 호신용 목적으로 각종 무술을 배우고 있으며 태권도 또한 그 일환으로 도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구난방식으로 익히느라 실제 태권도의 진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단증따기식의 수련이 번지느라 요원들간의 실력 편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 다들 이상적인 태권도의 정자세를 연마하여 본래의 수련 목적을 상기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외정보 수집팀의 대아시아 전략부 소속 **Sham Shopping** 요원의 시범영상입니다.

이 요원의 복장의 단정함을 보세요.

칼같이 다려진 수련복과 좌우대칭을 이루는 완벽한 허리띠 매음새..

그리고 품새를 시전함에 있어서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기세와 절도있는 동작!

모든게 이상적인 태권도의 기본자세입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고 수련시 자신의 단점을 찾아내 잘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있는 요원 있나요?

멀 더 : 네..저! 질문 있습니다.

제가 보아도 저 'Sham Shopping'요원의 복장과 기초 동작들 그리고 이어지는 품새는 부족하지 않은 기량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얼마전 들은바론 그 요원의 실제 발차기 동작들은 원래의 동작에서 많이 벗어나는 변형동작으로 인하여 위력이 반감되고 보기에다 별로인지라 본인 스스로 새로운 마스터에게 교정받고 있는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굳이 그런 요원의 기초동작을 시범영상으로 택했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본부소속은 아니지만 이미 그 기본이 출중하다고 소문이 나고 조직내 겨루기 대회에서도 챔피언에 올라 그 기량이 검증된 시애틀 지부 소속의 **원더 키디**요원같은 훌륭한 표본이 있음에도 말입니다.

혹여 본부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목적으로 인한 시범영상의 채택은 아닌지 묻고싶군요..

교육관: 흠..흠..그건 이미 무술지도부에서 정해져 보내온 영상이라 본 교육관은 더이상 할 말이 없군요.

게다가 오늘의 교육 목적은 기본적인 태권도의 이념과 바른 기초자세를 교육하기 위함인지라 이 시범영상도 무리없을거라 여깁니다.

멀더요원의 의견은 상부에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

스컬리: 멀더! 꼭 그렇게 꼭 집어서 말해야하나요?

당신 그러다 찍힌다구요..

멀 더 : 스컬리! 뭔가 아닌건 아니라고 말해야하지 않겠소?

우리가 오늘 그 영상으로 기초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었는데 정작 그 주인공은 지금 열심히 잘못된 발차기 동작을 교정하고 다시 연마하고 있다면 얼마나 우습겠냐구요.

웬지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피겨심판 세미나를 보는 것 같더군요.

하야간 피겨계나 우리 FBI 나 어느 조직이든 고인 물이 있으면 조직이 정체되기 쉽다니까요.

과연 어느쯤에나 쇠신하고 거듭 날건지 원..

스컬리: 멀더! 이제 잡담은 그만하고 어서 수련이나 하자구요.

이 동작 어때요? 깨끗해 보이나요?

멀 더 : 흠! 그래요..아주 멋진 동작이에요..

스컬리가 발차기하면 바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듯하군요..

근데 스컬리..도복 입은 모습도 무척 잘 어울리는군요.(발그레)

스컬리: 핫! 핫!

멀 더 : (빠끔)저기 스컬리!너무 열중하지 말라구요..옆에서 말하고 있는데;;

내 말 듣고있나요? 스컬리? 스컬리!

X-파일 10화 (김연아편) [26]

실버티어즈 [작영클 전제보기](#)

추천 34 | 반대 2 | 조회수 769 | 2010.12.07

<<1969 년 달을 정복한 아폴로 11 호의 우주탐사원들은 '달의 어두운 면'에서 이집트 피라미드의 약 2.8 배 크기의 80 여개에 이르는 피라미드군을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못하였음..생명체는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이 사실의 공개를 두고 NASA 내 혼란이 있었으나 당시 대통령과 교황청의 지시로 1 급 비밀문서로 지정되었음.

1975 년 지미 카터 대통령의 직접지시 아래 연구와 군사목적을 위해 NASA 내에 외계생명체와 UFO 비밀 연구부서를 창설하였으며, 1982 년 이 비밀부서에선 외계생명체간의 교신을 감청하고 외계 생명체에게 신호를 보내는것에 성공하였는데..

처음엔 그저 like/dislike, have/don't have, come/go, I/you 의 간단한 단어와 숫자까지의 다섯가지 개념을 통한 상호간 소통을 시도하여 성공하였음.

1983 년 그 후 외계생명체와 비밀부서간의 커뮤니케이션은 7 살짜리 인간간의 소통 수준으로 끌어올려졌으며 이 때 외계생명체는 산소 대신 탄소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발견함.

1985 년 소련 행성탐사 연구소의 수석연구장이었던 레오코비치는 NASA 가 외계생명체와 교신을 한다고 상부에 보고하였고, 그 해 겨울 생 페테스부르그의 자택에서 헤로인 과다복용으로 사망하였음.(NASA 는 혐의 부인)

1986 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미-소간 핵무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대기권 밖에서 적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격추시키는 '우주전쟁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여러대의 스페이스 셔틀을 건조함.

1987 년 성인간의 대화수준으로 외계생명체와의 소통이 가능해진 NASA 는, 외계생명체가 거들 지구우주탐사 행위의 중지를 요청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묵살되었고, 그동안 4 차례 연기끝에 1 월 28 일 발사되었던 챌린저호는 발원처 불명의 radio-activity 의 힘에 의해 발사

1 분 29 초만에 폭발됨(이 후 외계생명체와의 교신은 완전 두절되었고 단지 그들의 소행으로 추정할뿐임)

1989 년 개혁과 개방의 이름으로 소련을 붕괴시키고 냉전을 종식시킨 소련연방 대통령 고르바초프가 KGB 에 의해 암살되고 대역을 내세웠는데, 이는 고르바초프가 외계생명체로부터 소련연방을 붕괴시키기 위해 지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설들이 당시 KGB 요원들을 통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 당시 고르바초프의 암살을 주도하고 암살 시 고르바초프의 비밀문건을 가지고 미국과의 거래를 위해 망명했던 초프젠코비치는 미국을 통해 제 3 국으로 다시 이주 후 실종되었고 NASA 는 암살 혐의를 부인함.

1990 년대 이후 외계생명체와의 교신이 재개되었으나 그들의 경고로 인해 허용된 '지구인 한도'내에서만 우주탐색이 가능하였고 이후로 계속 우주탐험은 침체상태임.

1998 년 유고 내전시 미국 공군에 의한 중국대사관 오폭은 사실 중국 대사관이 미국과 외계생명체와의 교신내용 자료를 수집하였기에 이를 인멸하기 위한 외계생명체의 공격이었음.>>

- 2010. 12. 6 일자 위키리크스의 UFO 관련 자료 공개 내용 중에서 -

스컬리: 멀더!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있어요?

멀 더 : 아..어제 폭로된 위키리크스의 외계생명체에 대한 비밀문건들을 보고있어요.

과연 이 문건들이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스킨리와 함께 수행하던 미스터리 추적이 요한 방해를 받는다는 느낌으로 봐선 우리 정부내에 비밀을 감추고 접근을 불허하는 집단이 있다는건 분명해보이는군요.

스컬리: 흠..이게 정말일까요?

그렇다면 며칠 전 NASA 에서 발표한 슈퍼미생물의 존재는 이런 외계생명체에 대한 근거를 미리 밝혀서 충격을 완화시키고 몰타기하려는 시도였다고도 볼 수 있는건가요?

멀 더 : 아마도요..그나저나 이리 폭로된 문건들을 보니 내가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이 유출될까 걱정이군요.

세스콤에 연락해 경비시스템이라도 강화해볼까요?

스컬리: 멀더! 그 말 농담이죠?

FBI 자체 경비가 사설 경비업체보다 훨씬 안전하거든요..

게다가 이런 자료보호를 위해선 컴퓨터 보안체계와 방화벽을 강화해야 하는거잖아요.

멀 더 : 물론 농담이죠!^^;;

더우기 이런 위키리크스 게재는 주로 내부인사에 의한 고발이나 폭로에 의한것이 대부분이라니 스킨리와 나 말고는 아무도 접근치 못하게 해야겠어요.

스컬리: 그런데.. 멀더! 이 문건이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당신이 조사한 바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외계인들이군요.

이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우주정복**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전달한 문명이 지구에서 발전해나가는 과정을 관찰하고 단지 모계문명에의 접근을 막는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제한적인 접근일까요?

멀 더 : 글썄요..호킹박사의 이론에 따르면 이 우주에만도 수많은 은하계가 존재하고 그 중엔 우리와 다른 문명이나 생체구조가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을거라고도 하죠.

그들과 접촉하는게 때론 위험하겠지만 인간 말고 다른 미지의 생명체를 만난다는건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말인데, 유나킴에 대한 우리의 추적은 당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마세요.

스컬리: 멀더! 당신은 정말 유나킴이 외계의 존재라고 믿는건가요?

이 문건에 등장하는 외계인과는 굉장히 상이점이 많은것 같은데요.

멀 더 : 스컬리! 아직 단정할 순 없지만 어느정도는 확신해요.

수많은 우주에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존재하니 외계인이라고 해서 한 종류이겠어요?

게다가 그동안의 유나킴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녀의 종족은 평화를 사랑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종족이 틀림없어요.

영국에 본부를 둔 자선원조 재단인 CAF의 조사에 의하면 세계 주요 153개 국가별 기부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겨우 81위(평균 29점)에 그치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이 후진국으로 여기는 스리랑카(8위), 라오스/시에라리온(공동 11위),기니(18위)보다도 못하죠.

그런 기부문화를 선두에 서서 이끌고 앞장서고 있는게 유나킴이에요.

그 동안 자국내에서 솔하게 시행한 기부와 행사출연..그리고 아이티 구호를 위한 그녀의 마음씀씀이가 그녀의 팬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내 생각이지만 그래서 그나마 81위로 끌어올려졌을거예요.

경제대국 2,3위에 해당하는 중국과 일본의 기부지수 순위는 각각 147위와 119위거든요.

물론 일개인이 혼자서 한 일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진 않았겠지만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유명인사의 그런 기부행위는 분명 일반인들의 마음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건 틀림없으니까요.

그런면에서 보면 그녀는 피겨라는 예술이 가미된 스포츠로 인류에게 감동을 주고 함께 나눔으로써 더불어 사는 인류애에 눈뜨게 해주기 위한 선진 문명의 외계 존재가 틀림없을거예요.

스컬리: 멀더! 그렇게 따지면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도 외계인이겠군요.

이만하고 어서 밥이나 먹으러 가죠!

멀 더 : 쩌! 알았어요..그만 식사하러 가죠.

아 참..스컬리! 이번에도 스컬리가 밥을 살건가요?

스컬리: 멀더! 요즘 계속해서 내가 밥값을 내고 있다는거 알아요?

당신 그렇게 절약해서 어디에 쓰려는거죠?유나킴처럼 기부에 동참하려는건가요?

멀 더 : 스컬리! 그게 사실은..

얼마전 스페인의 야드로社가 유나킴의 도자기 인형을 만드려는 문제로 협의중이란 기사를 읽었거든요.

그 도자기 회사의 인형은 모두가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명품인지라 어떤 건 몇만 달러짜리도 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유나킴의 도자기 인형이 나오면 이왕이면 고급 명품인형으로 구입할까해서요.

스컬리: (빠직)멀더! 미안하군요..내가 오늘 선약이 있는걸 깜빡했네요..

그냥 컵라면이나 하나 들도록해욧!

멀 더: 아니..그런! 그런 말은 없었잖아요, 스컬리!

나 배고프다구요...스컬리?스컬리!

X-파일 11화 (김연아편) [33]

실버티어즈 [작영클 전세보기](#)

추천 24 | 반대 2 | 조회수 590 | 2010.12.0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ABC 방송국의 **Sang-Mi Kim** 기자입니다..저는 지금 센트럴 파크 입구에 서 있습니다..현재 센트럴 파크는 입장이 불허되고 있으며 공원 안의 시민들도 서둘러 대피하라는 안내방송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인근 브롱크스 동물원에서 탈출한 것으로 알려진 6 세 말레이 곰이 이 곳 센트럴 파크에서 목격되어 뉴욕시 경찰과 소방당국의 협조 아래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림과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수색중인데 겨울철이어서 곰의 색깔과 비슷한 나무색때문에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흑여 곰과 조우하더라도 놀라지마시고 등을 돌리기보단 눈을 맞추고 천천히 뒷걸음쳐서 벗어나시고 근처의 수색요원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탈출한 곰은 성격이 온순하여 공격성이 거의 없는 말레이종의 어린 나이의 곰으로 체구는 대략 7~80 센티 정도의 그다지 크지않은 곰이라 합니다.....>>

- 요 며칠 계속 들려오는 뉴스中에서 -

멀 더 : 스킨리! 며칠전 동물원에서 탈출한 곰에 대한 사건 아시죠?

스컬리: 그래요, 멀더! 지금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중인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더군요..길목마다 음식을 놓아두고 유인중이라는데 아직 발견치 못했다고 들었어요..

그 사건은 왜요?우리 FBI 소관이 아닐텐데요?

멀 더 : 사실 초기엔 단순히 암컷과의 짝짓기 실패에 따른 스트레스와 충동에 의한 우발적 가출이라고 여겼었는데 지금 새로 들어온 첩보에 의하면 심각한 상황같아요..

여기 이 자료를 보세요!

이 자는 원래 동물학자로서 야성을 잃어버린 동물들을 인위적인 약물로 통제하여 숨은 야성을 이끌어내는 연구를 하던 자로서 일명 '**Crying Gnoll**'이라 불리는 자예요.

한때 브롱크스 동물원에서 동물생체학을 연구하던 자인데 어찌된 연유인지 국방 전략무기 연구소에 스카웃되었단 소리가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그곳에서 예전에 잠깐 논의되어 연구되어지던 '유니버설 솔저 프로젝트'에 관여했던것 같아요.

스컬리: 음..일부 군인들을 통각을 제거하고 본능과 야성에 충실하여 무적의 전사로 탈바꿈하려고 했다는 그 비밀 프로젝트 말인가요?

멀 더 : 그래요..군 내부에서조차 인권을 무시한 프로젝트라는 비난이 일어서 폐기된 그 프로젝트 말이에요..

스컬리 : 나도 들어본 기억이 나요..그런데 이 자가 왜요?

멀 더 : 그때 그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이 자는 그동안의 연구성과와 자신이 개발해 낸 약물을 가지고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하네요.

자기 연구실적이 이대로 사장될 순 없다며 언젠가 세상을 깜짝 놀랄게 할 거라고 했다는군요.

그런데 며칠 전 동물원에서 그자를 봤다는 목격담이 들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 날 곰의 탈출사건이 일어난거죠..

어때요?무언가 이상하지 않나요?저의 육감으론 둘 사이에 연관이 있다고봐요.

스컬리: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군요..

당국도 이 정보를 알고있나요?

지금 수색팀들은 그저 온순하고 작은 곰인줄로만 알고 수색중일텐데요..

멀 더 : 여기 오기전 이미 국장님께 보고해서 통보하도록 했어요.

우리는 빨리 그의 소재를 찾아서 더 이상의 미친 짓을 막아야해요.

만약에 그자가 동물뿐 아니라 인간에게까지 투약 실험을 한다면 큰일이에요.

일단은 예전 그의 거처와 가족들의 주소지를 파악해보고 그가 숨어서 비밀연구를 했을 가능성이 큰 주요 동물원 근처의 지역을 프로파일링해보죠.

감청팀에도 연락하여 최근 그의 통화목록이 있었는지도 부탁해보구요.

스컬리: 알았어요..그쪽 팀에 연락해놓도록하죠.

멀 더 : 이 미친 과학자같으니라구!

뭐든 인위적인 조작에 의한것은 자연을 해치고 원래의 본성을 왜곡하는 것이란걸 모르는건가?

스컬리: 원래 아무리 똑똑한 인간이라도 자신의 생각만을 절대적인 가치로 보면 그렇게 왜곡된 방향으로 맹목적으로 달릴수밖에 없는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힘이면서도 또 한편 파멸로 치달는 길인지도 모르죠.

멀 더 : 알아요, 스컬리! 그래서 더 안타까운거예요..

그의 연구가 좋은쪽으로 쓰이고 좀 더 연구되고 보완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때문이지요.

요즘 난 유나킴을 조사하면서 왜 그녀가 아시아 그중에서도 한국에 출현했는가를 두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덕분에 그녀의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주요 삼국에 대하여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지만 말이죠.

스컬리! 혹시 니뽕에 가 본 적이 있나요?

그곳에 가면 옛날 저택이나 궁의 정원을 보면 정말 놀라게 되죠.

정말 세밀한 요소까지 모두 궁리하여서 빈틈없이 짜여진 인공정원의 모든것을 느낄수 있어요.

그에 비하여 지나의 정원을 보면 이미 그 규모에서부터 질리게 되죠.

거의 통째로 假山을 하나 조성한다던가 거암괴석을 옮겨와 꾸미고 거대한 인공호수등을 설치하여 그야말로 대륙의 스케일에 맞춘 인위적인 자연의 형상을 한번에 구경할 수 있어요.

유나킴의 나라인 한국은 이 두 나라와 완전히 달라요.

우선 그들의 정원엔 인위적인 손길이 거의가 배제되죠.

인간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다듬고 꾸며놓는것이 아니고 그저 자연속에 인간이 머물 거처를 정한것처럼 보인다고나 할까요..

자연과 인간이 하나로 머물러 그야말로 물아일체를 실현하는 공간이 한국의 정원이예요.

그런걸 보면서 난 왜 유나킴이 지구상에서 머물곳으로 한국을 정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녀의 작품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자연스럽고 편하게 연기하는지가 보여요.

다른 선수들, 특히 니뽕선수들처럼 인위적으로 손끝을 처리하여 우아하게 보이려 애쓰거나 관객이나 심판의 눈을 의식한 연기를 하는것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 음악에 녹아들어 몸으로 악기를 연주하듯 음악을 가시화하는 느낌이 들죠.

그야말로 음악과 혼연일체가 되어 빙판위에서 자연스레 연기를 펼친다는거죠.

그녀의 상성과 제일 잘 맞는 나라가 아마 한국이었을거예요.

그래서 유나킴이 한국을 택한거죠..

어때요 나의 가설이?그렇듯 하지 않나요?

스컬리?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스컬리: 그래요,멀더! 아주 잘 이해하고 있어요!

난 지금 열심히 그 매드 사이언티스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히 일하고 있고 당신은 유나킴을 찬미하는 중이런걸..난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는중이에요!

멀 더 : (어버버)그런..스컬리!

뭐든 시켜만 주세요..자!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To be continued..

X-파일 12화 (김연아편) [37]

실버티어즈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4 | 반대 3 | 조회수 717 | 2010.12.09

<<Double Gore 는 독일에서 비롯된 전설로 자신과 똑같은 외모의 또 다른 자아를 의미하며 분신, 또는 생령. 살아있는 사람의 유령적 분신 혹은 대응자. 한 사람의 또 다른 님은꼴로서, 심리적 자아 또는 실재적인 육체를 가진 분신을 말한다..정확히 일치하는 외모를 가지고 있으나 당사자가 아니면 알아볼 수 없고 만나게되면 본체가 얼마 못 가 죽게 되고 분신이 생명을 부여받아 이어간다.

독일 민담의 분석에서 처음 사용된 개념이지만 이와 유사한 모티브는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스웨덴에선 vardoger 로, 영미권에선 fetch 로 나타나며 우리나라에선 옹고집전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의 특징은.....>>

- 한국 인문학자 **류현진**의 저서 '세계의 민담과 설화'中 Doppelganger 편에서 -

멀 더 : 스킨리! 이 건물이 틀림없나요?

스킨리: 그래요, 멀더! 의심되는 지역을 몇군데 골라서 이미 다른 요원들이 급습했지만 모두 아니라고 하더군요..이곳이 가장 유력해요.

브롱크스 동물원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데다 가끔 이 근처에서 야수의 울부짖음 소리 비슷한걸 들었다는 주민들의 증언도 확보했어요.

가끔 이상한 보따리를 둘러메고 외출한다던데..아마도 죽은 동물들의 사체로 추정되구요..

저기 보이는 암적색 건물이예요..보이죠?

멀 더 : 수고했어요, 스컬리!

이미 SWAT 팀도 유사시를 대비하여 뒤쪽 건물에 포진해 있을거예요.

스컬리: 멀더! 그럼 안으로 진입하죠.

멀 더 : 그래요, 스컬리! 혹시 모르니 주의하면서 따라와요..

날 엄호하는것 잊지말구요..갑시다!

스컬리: 음! 냄새..이거 무슨 냄새죠?

완전 이상한 악취에 약품냄새로 진동하는군요..

멀 더 : 곳곳이 지뢰밭이군요..

각종 이름모를 약품과 실험도구로 빼곡하니 조심해서 통과합시다..

앗..거기 조심해요,스컬리! 무언가 튀어나왔어요.

스컬리: 아얏! 뭔가에 찰렸어요..음..괜찮은 것 같군요..가죠!

.

•
•

멀 더 : 끔찍마! 거기 천천히 손을 들고 일어서시오..그래요..뒤로 돌아요!

이봐요, 미친 과학자 양반!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당신의 사육을 위해 실험으로 죽어간 동물들과 이번 사태로 부상을 입은 소방대원들은
안중에도 없던가요?

이제 짓값을 받으러 갑시다!

크라잉놀: 후훗! 인류의 과학발전을 위해선 때론 어쩔 수 없는 희생이 따른다는걸 모르는가?

이렇게 빨리 종적이 노출될 줄 알았으면 인간에 대한 실험이라도 마치는것인데 그것이 아쉽군.

멀 더 : 이봐, 울부짖는 개대가리 양반!

그런 식으로 발전해봤자 과연 인류가 행복해질거라 믿는거요?

크라잉놀: 으득! 감히 그 따위로 날 부르다니..

그건 나의 천재적인 두뇌를 시기하는 무리들이 약간 犬相인 내 외모를 비하하여 험담하는것
뿐이란 말이다.

나의 이름은 엄연히 **띠 런 지에**(di ren jie)다..아니면 영어 네임으로 **Mithra** 라고 부르던가!

비록 쌀나라에서 살지만 위대한 중화의 후예임을 잊은 적은 없다.

조금만 더 실험하였으면 조국에 돌아가 기여할 수 있었는데 너희들이 망쳤단 말이다.

가회 신의 영역에까지 발을 딛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멀 더 : 아..차이나계 시민이셨구만..근데 뭐? 디럽제?디런넴?

그거보단 그저 당신 별명인 크라잉놀이 더 낫구만 뭐..

이봐요, 당신 영문네임처럼 신이 될 생각은 집어치우고 앞으로는 감옥에서 인간이 될 생각이나 하시구랴!

어서 끌고가서 호송차에 태우도록 해요.

근데 스컬리!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은 것 같군요?

스컬리: 괜찮아요..약간 열이 나고 좀 어지러울뿐..난 먼저 가서 쉴게요, 멀더!

.
.br/.

멀 더 : 굿모닝이에요, 스컬리! 몸은 좀 괜찮아요?

스컬리: 아..멀더로군요..반가워요^^

물론 아무 이상없어요..그리고 앞으로 날 레이나라고 불러줘요!!

참 오랫동안 당신을 봐왔었죠..잘 부탁해요, 마이 파트너!

멀 더 : 스컬리? 갑자기 레이나라고 불러달라뇨?

성으로만 부르게 하고 이름은 허락치 않았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이름은 데이나 아닌가요?

게다가 머리는 또 언제 붉은 색으로 염색한거죠?

생전 입지도 않던 미니스커트까지..도대체 어떻게 된건가요?

스컬리: 내가 뭘요? 이게 나의 본 모습이에요..어때요?어울리나요?우훗!

거울을 볼때마다 그 지긋지긋한 바지패션을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는지..

멀 더: 스컬리! 마치 다른 사람을 보고있는 것 같군요.

스컬리: 멀더, 레이나라고 부르라고 했죠!

그리고 이런 변화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당신이 그리도 꿈에서까지 생각하고 쫓고 있는 유나킴과 비교해봐요.

그녀는 마치 여배우처럼 천변만화하잖아요..

멀 더 : 그래요..스컬리! 아니, 레이나!

당신 말대로 유나킴은 마치 천가지 얼굴을 지닌듯 빙판위에서 연기하거나 광고에서 각종 매력을 드러내죠.

그러나 그건 음악이나 연기에 맞춰 그녀의 숨겨진 끼와 재능을 선보이는거예요.

어느땐 매혹적인 댄서처럼..어느땐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또 천상의 무희처럼..건반위의 요정처럼..

작품에 어울리는 표현을 하는거예요.

다만 그녀의 본질은 흔들림이 없어요!

언제나 반듯하고 겸손하며 쾌활한 소녀의 모습이죠..

하지만 오늘 당신의 모습은 마치 본질이 다른 누군가가 스컬리의 모습을 한 것 같은 느낌이군요...

이건 단지 나만의 착각인가요?

스컬리: 흠..당신 늘 어리버리한것같으면서 간혹 예리할때가 있군요.

하.지.만..오늘도 당신의 착각이에요!

단지 당신이 나의 본질을 알지 못했을뿐..

난 언제나 그랬으니까요..(비록 다른 스컬리는 어떻게 몰라도 말이죠!)

훗! 게다가 당신의 그 마음도 알고있죠..

어때요? 멀더? 오늘밤 우리 데이트나 할까요?까르르르...

To be continued..

X-파일 13화 (김연아편) [32]

실버티어즈 [작영글 전체보기](#)

추천 26 | 반대 8 | 조회수 619 | 2010.12.10

<<여인아..가련한 여인아..아이를 잃은 그 슬픔이 하늘에 닿도록 망극하구나..그러나 헛된 생각을 하는구나..너의 남은 반생으로 그 아이를 살리려한들 그 아이가 기뻐하겠느냐..인과의 법칙은 신조차 벗어날 수 없거늘 어찌 어리석은 기원을 하느냐..이미 끊어진 운명의 실은 나도 다시 이을 수 없느니..여인아..부디 슬픔을 거두어 보내어라..>>

- 운명의 여신 아트로포스의 단호한 목소리 -

스컬리엄마: 어머, 멀더! 어서와요..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번에 스컬리와 사건 수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잠시 여기 들러 한번 봤었죠, 우리?^^

멀 더 : 네..스컬리부인께서도 안녕하셨는지요?

갑작스런 방문이라 폐가 되는건 아닌지 모르겠군요..

스컬리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게 있어서 이리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혹시 최근 스컬리와 통화하신적 있으신가요?

스컬리엄마: 괜찮아요..여기 이 허브차를 드셔보세요..향이 좋습니다.

음..스컬리와는 어제 통화했군요.

그래서 정말 간만에 딸아이와 수다다운 수다를 떨었네요.

진작 좀 그리 살갑게 굴 것이지..^^

멀 더 : 부인! 혹시 스컬리에게서 어딘가 이상한 느낌을 받진 않았나요?

얼마전 어떤 미친 과학자를 잡는 과정에서 스컬리가 무언가 이상이 생긴 모양인데 본인은 그저 괜찮다고만 하니 걱정입니다.

사실 그 과학자가 연구하던것은 동물의 야성이나 감춰진 본성을 인위적으로 이끌어내는 약물인데 나중엔 인간을 대상으로도 연구를 했거든요.

설마하지만 혹시나 해서요..

스컬리엄마: 글썄요..평소랑은 다르게 유달리 쾌활하고 다정하다는 느낌뿐이었지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는데요.

다만 그 아이가 속정은 깊은데 그동안 좀 데면데면한 구석이 있었는데..

어젠 웬일인지 전화를 붙잡고 뉘주지를 앓더군요.

멀 더 : 부인..사실은 얼마전 그 일 이후 스컬리가 달라진 느낌입니다.

게다가 자신을 레이나라고 불려달라고 하더군요.

스컬리엄마: (흠칫) 어..어떻게 그 아이가 그 이름을..

멀 더 : 부인! 알고있는게 있으시다면 꼭 좀 말씀해주세요..부탁입니다.

스컬리엄마: 후우! 이런 이야기 그저 내 가슴에 묻어두었던건데..이야기가 길어지겠군요.

대학 졸업 파티에서 윌리엄을 처음 만나고 우린 사랑에 빠졌죠..아..윌리엄은 스컬리아빠랍니다..

그이가 시카고 타임즈에서 일하고부턴 스포츠 기자로 세계를 돌아다니느라 자주 함께 하진 못했지만 우린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의 결실이 영글고 있었죠.

그런데 그만 비극이 일어났답니다..

1977년 10월 13일 마요르카발 프랑크푸르트행 비행기가 독일 적군파(RAF)에 의해 납치되어 모가디슈 공항에서 며칠간 인질극을 벌인적이 있었어요.

4일후 테러진압단이 투입되어 테러리스트들을 모두 소탕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만 윌리엄이 변을 당했답니다.

당시 난 임신 8개월이었는데 그 충격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그때 스컬리가 조산으로 태어났지요..

하지만 사실 태어나야 했던 아이는 둘이었답니다.

벅속에 든 아이가 여아 쌍둥이란 사실을 알았을때 나와 윌리엄은 각각 데이나와 레이나라 이름을 부르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충격때문에 조산을 겪은탓인지 한 아이는 그만..흑흑..아 손수건 고마워요, 멀더!

그 때 살아남은 아이가 당신의 파트너가 된 데이나고..

태어나자마자 잃어야했던 아이는 레이나라입니다.

후우! 그동안 아무에게도..심지어 스컬리에게도 말하지않고 가슴에만 묻었던 이야기로군요.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도 미안했던 아이이기에 떠올리기조차 죄스러웠거든요.

멀 더 : 부인! 죄송합니다..본의 아니게 제가 부인의 아픈 상처를 헤집어낸듯 합니다.

스컬리부인: 아니에요, 멀더! 이제 내겐 스컬리뿐이에요.

부디 당신이 그 아이를 지켜주길 바랍니다.

.

.

.

스컬리:웬 일이에요, 멀더? 전날엔 나의 데이트 신청까지 거절하더니..

오늘은 웬일로 이런 호젓한 장소로 날 불러낸거죠?후훗!

멀 더 : 스컬리! 아니..레이나! 그게 당신의 이름이겠죠?

오늘 당신 어머님께 다녀오는 길이에요..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과학자를 잡던 그날에 당신의 인격이 깨어나게된거죠?

스컬리의 쌍둥이 자매인 레이나양!

스컬리: 맹한줄 알았더니 당신 꽤나 똑똑하군요..그래요 멀더!

내가 바로 레이나예요..언제나 스컬리의 안에서 세상을 바라만 볼 수 밖에 없던 내가..

그 날 몸에 들어온 악물때문인지 데이나의 의식이 잠들어버리고 늘 그녀의 의식에 갇들어있을뿐이던 내가 스컬리의 몸을 차지한거예요.

멀 더 : 레이나! 당신의 존재는 세상의 법칙을 비트는 행위예요.

이제 그만 스컬리에게 몸을 돌려주고 떠나주세요.

스컬리: 내가 죽은 사람이란 뜻인가요? 아뇨..난 언제나 살아있었어요.

엄마가 스컬리를 보며 웃어주는 중에도 그 눈동자에 깃든 슬픔은 분명 나를 향한거였어요.

스컬리가 아빠를 잃은 슬픔때문에 점점 성격이 건조해지고 FBI 에 들어올때조차 난 언제나 나만의 의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땐 서로 의지하며 함께 하던 나의 반쪽이..

어릴때만 해도 나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끼고 함께 의식을 공유하던 자매가..

어느새 나란 존재를 까마득히 잊고 혼자만의 길을 갈때도 난 언제나 그녀를 잊지않고 그녀안에서 숨쉬고 함께 해왔어요.

때론 스컬리의 패션이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성격은 둔해서 당신의 속마음도 모를때조차
분신인 나는 좀 더 아름다운 외모를 드러내보이고 싶었다구요.

언제나 그녀안에 갇혀서 스컬리를 통해서만 세상을 느껴오던 내가 이제서야 비로소 완전한
나로서 있게 되었는데 이런 내가 떠나야한다구요?대체 어디로 가란 말이죠?

멀 더 : 미안해요, 레이나!

난 당신이 어머니의 간절한 기원이 남겼거나 아니면 스컬리의 반쪽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긴
무의식의 잔존사념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당신은 정말로 스컬리가 태어나면서 잃어버린 그 자매인가보군요..

하긴 아직도 쌍생아의 비밀은 완전히 밝혀지지 못했으니까요.

레이나! 당신 맘은 잘 알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런 선택을 한다면 스컬리는 어떻게 되는거죠?

당신은 의식이 깨어서라도 스컬리와 함께 호흡해왔지만 스컬리는 이제 죽어가는거라구요.

스컬리: 아니에요..절대로 안 그래요, 멀더!

스컬리는 지금 잠시 의식을 잃어버린채로 있을뿐이에요.

이제 그녀도 내가 그랬던것처럼 내 안에서 깨어날거라구요.

멀 더 : 내 말을 들어봐요, 레이나!

그 과학자가 만든 약물은 불완전하다구요.

강추어진 본성을 이끌어내고 원래의 인격은 죽게된다고 했어요.

당신은 당신 자매를 죽이고 그 몸을 차지하고 싶은건가요?

스컬리: 아니에요! 아니야!

난 일부러 스컬리를 없애려는게 아니라고! 그녀는 내 영혼의 반려인데 그런짓을 할리 없잖아

그저 세상에 나란 존재도 있었음을 알리고 싶었을뿐이라고..

그리고 엄마에게 이제 그만 괴로워하라고..난 절대로 엄마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그저 엄마를 언제나 사랑했다고 말하고 싶었을뿐이란 말이야!

간절히 원해도 닿지않는 텔레파시가 아니라 엄마에게 직접 목소리로 들려주고 싶었을뿐이라고.

멀 더 : 레이나! 당신의 맘은 잘 알아요..아니..그저 짐작할 뿐이겠지만요.

하지만 다시 어머니에게 또 다른 슬픔을 안겨줄건가요?

당신을 잃고 슬퍼했던 어머니가 이제 또 다른 딸을 잃은 슬픔을 알게 할건가요?

어제 이미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속깊은 말을 나눴다고 들었어요.

레이나! 부디 이젠 내게 스컬리를 돌려줘요.

그녀와 함께 했던 지난 소중한 시간들을 그저 한순간의 꿈으로 만들게하지 말아줘요.

스컬리의 의식안에서 함께 호흡하며 함께 나누며 느끼던 당신 자매의 생명을 해치지 말아줘요.

스컬리: 멀더! 당신은 정말 스컬리를 소중히 생각하는군요.

나조차 당신의 맘을 알겠건만 이 둔치는 전혀 눈치조차 못채던데..

그래요..돌려줄께요..스컬리는 당신 못지않게 내게도 소중하다구요.

하아..그러나 정말 슬프군요.

세상은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서 존재했던걸 알아줄 사람이 없다는게.

그저 이렇게 스스로를 죽이고 사라져야만 한다는 사실이 서글프네요.

멀 더 : 레이나! 내가 있잖아요..아무도 당신을 몰라도 나 한사람만은..

당신이 여기 이 세상에서 살았었음을..스컬리와 더불어 인생을 함께 했었고..

그녀와는 달리 유쾌하고 활달한 사람이었음을 내가 절대 잊지 않을께요.

스컬리: 훗! 멀더, 당신 갑자기 멋져보인거 알아요? 조금 두근거렸어요.^^

스컬리가 언제나 당신의 마음을 알아줄지..좀 더 용기를 내봐요.

이제 떠날 시간이군요..하아..하지만 막상 두렵기도 하네요..

여태까진 늘 함께 했는데..이미 오래전에 떠났어야할 길을 이제 혼자서 떠나야한다는것이..

난 이제 죽어서 그저 덧없이 사라지는걸까요?

아니면 동화에서처럼 저 하늘위의 별이 되는걸까요?

잘 있어요, 멀더! 부디 스컬리를 잘 부탁해요..

멀 더 : 잘 가요, 레이나! 그리고..정말 미안해요.

스컬리: 아..음..멀더?

멀 더 : 이제 정신이 들어요, 스컬리?

스컬리: 그래요, 멀더! 도대체 어떻게 된거죠?

그런데 왜 자꾸 눈에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군요.

마치 소중한 누군가를 잃어버려서 슬픈듯한 느낌이에요.

더 기가 막힌건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분명한데도 그가 누군지 모른다는게 더 슬프다고나할까..

왜 이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군요.ㅠㅠ

멀 더 : 아마도 당신이 잊고있지만 언제나 당신과 함께 했던 사람일거예요.

오늘은 어머니께라도 전화를 한번 드려보세요.

스컬리: 멀더! 꽤나 멋진 말을 하는군요..

응?멀더! 저기 하늘을 봐요..낮선 별이 환하게 빛나고 있네요..마치 나를 비추는것처럼..

다른 이야기로 계속...

=====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두 편으로 나눌까하다가 그냥 올렸기에 스압이 있습니다.

김연아편에 맞춰서 연아양을 늘 빼놓지 않았었는데 이번 이야기엔 언급할 부분이 마땅치 않아서 빼버렸습니다..게시판 성격에 안 맞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일찌기 어머니를 여의시고 어제는 또다른 친인이신 외숙을 떠나보내셔서 슬픔에 잠겨있을 실비아님께 깊은 애도의 념을 전합니다.

과학의 발달로 별이란..고형 물질이나 가스로 구성된 구체라는걸 알게되었지만, 영혼은 하늘로 올라 새로운 별이 되어 남은 이의 앞길을 밝힐거라는 동화를 믿고 싶습니다..

영혼의 신비는 아무도 모르는거니까요.

이 글을 제 知音이신 실비아님께 바치오며, 부디 슬픔을 이기고保重하시길 기원합니다!

X-파일 14화 (김연아편) [44]

실버티어즈 [작영글 전체보기](#)

추천 24 | 반대 12 | 조회수 716 | 2010.12.12

<<銀淚: 길이 두척 반, 너비 일촌 반이며 검신 전체가 은은하게 은색으로 빛이 나는 희대의 至寶. 절세검왕이던 일취검향의 神兵으로 그가 젊은 날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을 얻어 백일을 정련하여 얻은 검이라 하며 능히 베지 못하는것이 없다 함. 기이하게도 검 자체에 영능이 서려있어 스스로 피를 묻히지 않아 혈조(피를 흐르게 만드는 흠)조차 만들지 않았다고 하며, 강검이 아닌 연검의 일종으로 평소에는 요대처럼 사용했다 함. 한번 뽑히면 사방을 물들이는 은빛검기가 하늘에서 눈물처럼 떨어진다고 하여 은루라고 이름지어졌으며 절세검왕 이후 강호에 다시 등장한 적이 없으나 신검 서열의 제일 첫 머리에 두어도 손색이 없음>>

- 萬博書生의 저서 '만물총람'의 신병이기 편에서 -

스컬리: 멀더! 왜 그리 뚫어지게 보는거죠?

멀 더 : 아! 스컬리 머리가 아직도 붉은색이라 좀 보고있었어요.

스컬리: 흠..제가 언제 머릴 염색했는지 기억이 안나서 속이 상해요.

하지만 이 머릴 하고 거울을 볼때면 웬지 그리운 느낌이 들어서 조금만 더 하고 있으려구요.

그리고 생각보다 붉은 머리가 잘 어울리는것 같기도 하구요.

멀 더 : 그 색깔도 잘 어울려요, 스컬리!

난 당신의 원래 갈색머릴 더 좋아하지만요..

스컬리: 칭찬 고마워요, 멀더!

그런데 당신 손에 든 그건 뭐죠? 마치 금속 허리띠 같은데..

멀 더 : 아! 이건 차이나에 있는 내 친구가 구해서 보내온거예요.

새로 밭을 넓히던 농부가 발견한건데 처음엔 이게 은으로 만든 고대 허리띠인줄 알고
암시장에서 팔려는걸 우연찮게 구입했다고 하더군요.

은 재질이 아니란걸 알고서 그냥 고철로 넘긴다는걸 얼른 사서 살펴보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요대 연결고리를 풀 수가 없어서 내게 보내왔어요.

이것과 함께 출토된 청동조각도 같이 구했는데 거기엔 글자가 음각되어 있어서 아는 학자에게
해독해보니 너무나 허무맹랑하다고 평소 이상한 현상이나 물건에 관심이 많은 내게
보내왔더군요.

친구들 사이에서 내 별명이 미스터리맨이거든요.

스컬리: 도대체 그 조각에 뭐라고 적혀 있었길래요?

멀 더 : 거기 적혀있던 내용을 해석한 걸 읽어줄게요.

군데군데 훼손이 되었지만 그런대로 뜻풀이는 되더군요.

<조상의 은덕으로 왕족으로 태어났으나 대막리지의 전횡과 부왕이신 보장태왕의 심약함에 실망하여 어린 나이에 출궁하여 천하를 유람하던중 백두산에서 선문의 후예이신 사부님을 만나서 劍仙의 꿈을 쫓다....어느 날 천문을 살피시던 사부께서 탄식하시더니 나의 仙根이 부족하여 연이 다하였다고 하산을 명하시니 눈물로 사문을 떠나오다....나라는 망하였고 신민은 唐王에게 끌려.....아, 열성조시여! 못난 후손들을.....부왕의 원수를 갚고자 당왕의 목을 베려하였으나 천운이 그에게 있어 실패하고 그저 망국의 유민이 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천하를 유람한지 수십여 성상....우연히 忘年의 지교를 맺은 이들과 宇內四奇란 허명만을 얻었을뿐이니...어느덧 홍안의 소년이 백발이 되었고나.....제마멸사의 행도를 위함이었다곤 하나 어찌 천도의 이치를 벗어나리오...내 업에 남긴 피의 무게가 너무도 크도다...수구초심이라...이제 사문에 돌아가진 못한다하여도 지근거리에서라도 초막을 짓고 은거를 결심하였기에....지나는 길에 산동성 어느 야산에 劍塚을 만들어 나의 친구를 묻노라.....이는 내 평생의知己라.....일찌기 백두산 ...봉에 떨어진 이상한 운석을 발견하고 일신의 공력과 천지의 정기가 어린 호수의 물로써 백일을 靈通하여 검으로 삼았으되 고유의 영능이 있어 그저 친구로만 許하였도다.....고오한 성품을 지녀 샅된것을 파하고 피를 묻히기를 싫어하였으나 못난 지기를 위해 언제나 손에 들려주기를 마다치 않은.....이는 萬兵의 帝王이요, 萬寶중의 至寶이니 언젠가 진정한 주인이.....진정한 자태를 선보일것이니...그때까지 안식을 주려함이니..연자가 아닌 한 능히 뱉지 못하리라.....절세검왕 일취검향...>

스컬리: 세상에! 그럼 이게 허리띠가 아니고 검이란 말인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형태인거죠?

멀 더 : 검의 종류에서도 연검이 있다더군요..

연성이 탁월하면 이렇게도 휘어질 수 있다더군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풀 수가 없네요..여태 어느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아..스컬리가 한번 뽑아볼래요..여기 이 부분을 잡아빼면 될 듯 한데 안되더군요.

스컬리: 이익! 아무리 힘을 줘도 뺄수가 없군요.

그런데 여기에 새겨진 글자는 뭐죠? 혹시 뜻을 아나요?

멀 더 : 아..그 글자의 뜻은 **실버티어즈**예요..

한자로 은루라고 하더군요...아마도 검의 이름같아요.

스컬리: 그런데..멀더! 그 명문에 적힌 내용이 사실일까요?

어쩐지 믿겨지지가 않아요..그게 사실이라면 이게 예고소드란 말인가요?

멀 더 : 글쎄요..세상엔 워낙에 신비한 일들이 많으니까요.

사실 그래서 이 검에 대하여 연구를 의뢰했었는데 우리 지구상에선 발견된 적이 없는 금속이라더군요.

그렇다면 외계에서 떨어져내린 운석이 맞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연대측정에서도 대략 천오백년전의 물건으로 나오더군요..

아..이건 함께 출토된 청동조각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이 검은 마치 갓 만들어진듯 생생한데다 측정불가로 나온다더군요.

스컬리가 보기에도 천오백년전의 물건으로 보여지진 않죠?

이런걸 종합해보면 그 명문의 내용이 터무니 없는것만은 아니죠.

스컬리 : 그렇군요..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마치 신화속에 나오는 엑스칼리버의 전승과 같은걸요?

검신은 어떤 모양일까요..꼭 보고싶은데..

멀 더 : 오우! 스컬리 당신은 천재예요..

어쩌면 이 검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겠군요.

스컬리: 멀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요..설명 좀 부탁할까요?

멀 더 : 방금 당신이 말한대로 이 검은 어쩌면 왕의 운명을 지닌 자만이 뽑을 수 있는지도..

생각해봐요..왕족으로 태어나 별호가 절세검왕이었던 자도 겨우 친구로서만 허락했다고 쓰여 있었잖아요.

엑스칼리버와 아더왕..여기서 연상되는 것 없나요?

신비의 칼과 왕의 운명을 지닌 자!

외계에서 떨어진 운석으로 만들어진 에고소드와 외계인으로 의심되는 쿼의 칭호를 얻은 자!

바로 유나킴이예요..

은반위의 여왕의 품격이라면 은빛눈물이라는 희대의 검의 마음도 움직이지 않을까요?

스컬리: 흠! 그런 생각으로까지 비약할 수 있는 당신이 놀랍군요, 멀더!

정말 유나킴에게 뽑아보게 할 생각인거예요?

차라리 다른 연구소들에 의뢰하여 알아보게 하죠.

멀 더 : 이미 몇군데에서도 동일한 답변을 얻었고 아무도 이 검을 뽑아보지 못했어요.

최후의 방법이 유나킴이라고 봐요..스컬리,당장 LA로 가죠!

스컬리: 휴우! 당신은 정말..그렇다면 우리 다시 기자로 접근해야 하는건가요?

멀 더 : 음..저번에 인터뷰만 하고 기사는 실리지 않았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테니..

이번엔 내가 새로운 신분증을 만들죠...맡겨줘요, 스컬리! (짹굿!)

스컬리: 국장님겐 뭐라고 보고하고 떠나야할지 막막하군요..

To be continued...

X-파일 15화 (김연아편) [33]

실버티어즈 [작영글 전체보기](#)

추천 23 | 반대 8 | 조회수 536 | 2010.12.12

<<흠..오늘 내 패션이 어떤지 모르겠네요..정말 이쁘고 멋진 연아 옆에서 생활하다 보니 너무 비교될까봐 요즘은 나름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는중인데..얼마전 포브스에서 발표한 스포츠 각종목별 베스트 드레서에 연아가 피겨를 대표하는 패셔니스타로 뽑혔던데..사실 연아는 그냥 아무거나 입어도 워낙 옷걸이가 좋아서 그럴수밖에 없죠..같은 여자 입장에선 너무 부럽다는..갤럭시탭 광고를 찍을때 사람들이 연아만 보고있던 걸 생각하면 후훗!.. 그런데 오늘도 기자들 면담 요청이 들어왔네요..응? 저 두 사람은 저번에 잠깐 인터뷰하다 바로 돌아간 사람들인데....>>

- 또 다시 등장한 권연아 매니저의 독백 -

스컬리: 안녕하세요, 유나킴! 또 뵙게 되네요.

김연아: 어머! 저번에 인터뷰했던 기자분들이시군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그때는 인터뷰만 마치고 기사가 나질 않아서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멀 더 : 흠..권연아! 그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신생 잡지여서 창간호에 유나양의 기사를 특집으로 꾸며보려 했는데 잡지가 발매가 되기도 전에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기사는 커녕 저희도 이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건 저희의 새로운 직장입니다..새 명함이에요.

김연아: 응? 이번에도 회사이름이 독특하네요..

"Foot Reporter's Law"? 여기도 스포츠 잡지사인가요?

전엔 "빅 풋"이란 회사에 계시더니..발이랑 인연이 많으신가봐요.^^

멀 더 : 하하..여긴 이상한 현상이나 물건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규명하여 새로운 사실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과학월간지입니다.

요즘 '발기자의 법칙'이 언론계에서도 무척이나 회자되고 있기에 나름의 그 법칙도 규명하기로 하고 아예 잡지창간호 제목 겸 월간지 이름으로 삼았죠.

요즘 특히 피겨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메랑 효과를 추적중입니다.

본래의 경제용어 대신 요즘은 피겨용어로 일반인들에게 인식되는 실정이니깐요.

특히 한.일 양국에서의 발기사들과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가 일어나는걸로 유명하죠.

스컬리:(소곤소곤)멀더! 당신의 작명센스도 그닥 대단한 것 같진 않군요!

김연아: 아, 그렇군요..그런데 과학잡지에서까지 절 취재할 이유가 있던가요?

참..소개 늦었네요..이쪽은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아실테죠?

저의 우상이자 소중한 친구인 미셸입니다.

스컬리: 너무도 잘 알죠..우리 합중국의 유명한 피겨스타이자 셀러브리티였는걸요.

여기서 함께 뵙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관 선수!

미셸관: 반가워요 기자분들!^^

오늘 유나를 보고싶어 링크를 찾았다가 덕분에 만나뵙게 되는군요.

그런데 유나가 정말 대단하군요..과학잡지에서까지 인터뷰를 하러오고..

멀 더: 사실은 다른곳에서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는 중에 전에 인터뷰한 기사가 불발된것에 대하여 사과를 드리기 위해 찾아왔어요.

그리고 유나킴에게 선물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요.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사실은 얼마전에 제 친구로부터 얻은 물건인데 무척 아름답게 세공된 허리띠입니다.

그 친구가 공연하길 요대를 풀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여태 누구도 이걸 풀지 못했답니다..그래서 아무도 이 예술품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죠.

지나는 길에 유나선수가 생각나서 가져와봤어요.

김연아: 어머! 정말 신기하군요..무슨 특별한 장치가 있는건가요?

미셀이 먼저 해보세요..혹시 알아요? 미셀이 행운의 신데렐라가 될지..

미셀관: 흠..아무리 애를 써도 안되는걸요.

아무래도 나랑은 인연이 없나봐요..정말 희한한 물건이군요.

제작자가 누군지 몰라도 어떻게 이리 만들었는지 궁금하군요.

자요, 유나가 한번 해봐요!

김연아: 그럼 어디 제가 한번...음?.....

별 힘도 안 주었는데 그냥 빠지는데요..하하..

근데 이거 뭐죠?단순한 허리띠가 아닌가본데요..마치 검처럼 생겼는데..

멀 더 : 훗! 설마했는데 정말로 풀어내다니..

유나양! 죄송한데 사진 좀 찍게 그걸 들고 스케이트를 타줄 수 있나요?

너무나 잘 어울릴 것 같군요.

스컬리: 그건 위험할 것 같군요..

그러다 큰 부상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구요.

김연아: 아..괜찮을 것 같아요.

보기엔 날이 예리한 것 같은데 전혀 상처를 입히지않아요.

아마 특수한 방법으로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럼 잠시만 타볼까요?

멀 더 : 아! 정말 아름답군요..은반위에서 은검을 들고 검무를 추는 것 같군요..

미셀관: 짹짹! 그러게요..유나의 아름다운 동작에 맞춰 유려하게 호선을 그리는 검이라니..

그저 한쪽의 그림같아요..마치 **천상지보**를 보는 것 같군요.^^

김연아: 후우! 어땠어요, 미셀?

미셀관: 언젠가 스카티 유나 당신을 두고 이런 말을 했죠.

마치 하늘이 주신 선물같다고..

그런데 오늘 그런 천상의 선물같은 당신이 절세의 지보를 들고 스케이팅을 하는 모습을 보니
그저 그런 표현밖엔 떠오르지 않더군요.

그런데 기자님! 이젠 이제 유나의 소유가 된건가요?

유나가 풀었으니까요..

멀 더 : 아...하하..그..그렇죠..

김연아: 아니예요..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게다가 마땅히 쓸 일도 없는걸요..자요..받아가세요..

실버티어즈: 지잉! 지잉!

멀 더 : 아앗! 갑자기 검에서 너무도 차가운 기운이 풍겨서 잡을 수가 없네요.

게다가 난데없이 울리는 검명이라니..

김연아: 에엣? 내가 잡을땐 그저 따뜻한 온기만 감돌던데..

그럼 어떻게 하죠? 돌려드릴 수도 없으니..

멀 더 : 유나킴! 아무래도 물건이 주인을 가리는 듯 하군요..

수납하면 허리띠로도 쓸 수 있으니 유나양이 가지도록 하세요.

어차피 친구가 공언했듯 그걸 풀어내는 사람이 임자라고 했으니까요.

다만 과학적으로도 밝혀지지 않는 신비가 있는 것 같으니 가끔 찾아볼 순 있을까요?

유나킴: 너무 연습에 방해만 되지않는다면요.^^

그리고 이리 과한 선물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멀 더 : 별 말씀을요..유나!

앗! 이런..또 구두끈이 풀렸네요..으음!

스컬리: 이런..미안해요..제가 모르고 발을 밟았네요..

우리 비행기 시간이 다 되어가요..이제 그만 출발하죠.

김연아: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특이한 경험도 하고 아름다운 물건도 갖고..

고마워요, 멀더!

멀 더 : 응? 유나양! 제가 그 이름을 말했던가요?

김연아: 아? 하하하;;....아까 언뜻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서요.

멀 더 : 흠음?...네! 저희가 연습시간을 너무 뺏은 것 같군요.

유나양 내년 월드컵피언십에서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미셸양도 만나서 무척 반가웠어요..

.

.

멀 더: 스컬리! 도대체 아까 왜 내 발을 밟은건가요?

일부러 그런거 다 알아요.

스컬리: 멀더! 당신이 또 저번처럼 쓸데없이 머리카락을 주을까봐 그랬죠.

설마 아니라고 할 건가요?

멀 더 : 아..하..하하하..어떻게 안거죠..

그나저나 역시 이상하지 않나요?

스컬리: 그러게요..세상에 주인을 가리는 검이라니..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군요..어떻게 그럴 수 있는거죠.

멀 더 : 그것도 그럴지만..

뭔가 유나킴의 낯새가 이상하다는 느낌 못 받았어요?

검을 받아줘있을때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던 걸 생각해봐요.

게다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이름을 부르던것도요..

도대체 어떻게 된걸까요?

스컬리: 그거야 아까 내가 당신에게 컷속말을 한 걸 들었나보죠.

말이 없던 것도 신기한 물건을 살펴보느라 그랬겠죠.

멀 더 : 아니에요..나의 육감은 분명 다른걸 가리키고 있어요.

저 검에도 뭔가 수상쩍은 비밀이 있을듯하군요.

유나킴만큼이나 주시해야할 것 같아요.

둘 다 외계에서 날아온거라 공통점이 있는건가?

아무튼 이로써 다시 찾아와도 될 명분은 만들어두었으니 그걸로 만족해야겠군요.

이만 갑시다, 스컬리!!

.

.

김연아: 어머! 미셀..이거 좀 봐요...정말 신기해요.

이게 혼자 스르르 하고 줄어들더니 검 모양의 펜던트만큼이나 크기가 줄어들었어요.

목걸이로 하고 다니면 되겠군요..

아니면 크게 해서 허리띠로 매던가!

To be continued..

=====

이번 이야기에선 일토방의 화제의 소설 황량한들녘님의 '천상지보'와 크로스오버를 시도해봤습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만 그저 심심풀이로 가볍게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분들만 등장시키다 저도 까메오로 출연했는데 재미가 쏠쏠하군요.

연느님의 손에도 쥐어져보고..이게 다 작가의 황포가 아니겠습니까?하하하!

다음편은 외전격인 이야기 하나만 더 올리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X-파일 16화 (김연아편) [38]

실버티어즈 [작성을 전해보기](#)

추천 37 | 반대 11 | 조회수 712 | 2010.12.13

<<우주력 234 년 최초의 행성간 워프 항법장치 개발 완수. 몇번의 무인탐사선 시험운행 후 대규모 탐사단을 태운 행성 개척용 항모 가리온 1 호가 우주로 발사됨.

우주력 235 년 시리우스 성계를 지나던 가리온 1 호가 화이트홀로 추정되는 웜홀에 빨려들어가 모든 통신이 두절되고 전원 실종처리됨.

우주력 273 년 초자가변형 능력과 자체수복 기능을 가진 액체금속 물질 유나리움이 개발됨.

우주력 275 년 유나리움을 이용한 우주방위군 프로텍터의 프로토 타입 개발 완료.

우주력 276 년 프로텍터의 권위자 **Dr.Fried tomato** 에 의하여 나노컴퓨터가 장착된 유나리움으로 이루어진 우주방위군 전용 프로텍트 아머가 생산되어짐.

우주력 281 년 실종처리되었던 가리온 1 호가 귀환함. 화이트홀을 통과하며 시공간 왜곡장에 의한 먼 우주로 항행했던 일지가 공개됨. 화이트홀 통과후 부서진 항모 수리를 위하여 적당한 행성을 찾다가 생명체가 존재하는 별을 발견하고, 태양계라 불리우는 그 성계의 아름다운 별을 이타카라 명명한 후 정착..우주문명 전파를 위한 우주법령에 의거 이타카 행성의 토착 지적 생명체와의 유전적 결합을 통한 제다이 문명 전파..이후 항모 수리를 위한 자원 채취와 합성에 어려움을 겪는동안 토착인들과 피를 섞어 귀환을 거부한 일부 대원들에 의하여 새로운 행성문화가 꽃피우는중이라고 귀환자가 보고함.

우주력 282 년 이타카 행성의 관찰을 위한 목적으로 탐사선을 보내기로 제다이 연방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화이트홀 통과를 위한 차세대 함선 제작에 돌입.

우주력 283 년 제다이 전사들 중 엄선된 대전사 루크 스카이워커를 함장으로 안드로이드들을 대원으로 한 이타카 행성 탐사선 출발..워프항법으로 시리우스 성계까지 항행한 후 화이트홀 돌입..시공간 왜곡장에 의하여 어느 시대로 갈지는 미지수인 항해였다고....>>

- 제다이 우주연방 세실리우스 행성 연대기에서 -

나의 이름은 R2 이며 진화형 프로젝트 아머 델타 타입으로 제작번호 TMax-2010 임.

우주력 283 년 이타카 행성 탐사선 함장 루크 스카이워커님의 아머로 채택되어 사용자 성향에 맞추어 팔찌로 변환되어 임무 수행.

주로 사용자의 신체리듬을 항상 쾌적한 사이클에 맞추어주고 유사시 배리어를 작동시켜 사용자 보호에 최우선을 두는 임무를 부여받음.

.
.

워 이쯤되면 그저 평범한 아머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난 특별하다구요!!

이미 출발부터 매우 위험한 임무인지라 특별히 프라이드토마토 박사님으로부터 개발이 막 완료된 생체컴퓨터를 이식받은 초자아 형 유니크 아머란 말이죠..후훗!

하지만 이런 스페셜 원 프로젝트아머의 자존심에 상처가 나는 일이 발생했으니 막 화이트홀을 벗어나는 시점에서 하필 근처를 지나던 헬리헤성과 충돌이 벌어졌지 뭐겠습니까..

급히 함장님을 보호하는 배리어를 펼쳤으나 선체에 막대한 손괴를 입은 관계로 나도 일부 기능이 손상되었고 급히 셔틀로 탈출하는 도중 급격한 체내 출혈로 부상을 입으신 선장님을

나의 저하된 동력원으론 나노머신에 의한 치료조차 제대로 못하는 치욕을 겪었으니..나같은 초간지 생체아머로선 아머계의 낙오자처럼 사용주를 지키지 못한 불명예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꺼이꺼이..

어쨌든 유사시 행동강령에 따라 셔틀 컴퓨터와 동조하여 이타카(이 곳 말로 지구)행성으로 진입하던중 손상된 기체가 돌입에너지 충돌을 이기지 못하고 파괴되었고, 난 자가수복 능력의 한계를 훨씬 초과하는 손상을 입어 어느 야산에 떨어지고 말았죠..

impact crater 를 만들어내며 암반 깊숙이 처박힌 나를 누군가가 꺼내는 느낌이 들었지만 손상된 부위를 복구하기 위한 시간이 백일 정도 요망되었기에 그저 모양을 구체로 만들어 웅크린 채 열심히 회복에만 주력했습니다..

회복기간동안 이질적인 생체에너지가 계속해서 몸을 투과하는걸 느꼈지만 회복에 지장을 주는 에너지가 아닌지라 자가수복에만 힘을 기울였어요..

막 회복이 끝나고 활성화되는 순간 본체에 접촉한 인간의 유전인자를 스캔한 결과 세실리우스 행성인과의 유전적 형질 싱크로율이 48%에 해당하는것을 감지한 후 임시 사용자로 등재하고 소유권을 잠시 이전했습니다..

원래 유사시 행동강령에서 소유주인 우주연방군의 유고시엔 민간인에게 소유권이 이양이 되는데 그건 유전적 형질이 60%이상이 일치해야한다고 떠나오기전 주입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저 임시사용자로만 허용할 수 밖에요..그래서 공개소스도 일부분밖에는 허용할 수가 없었는데 마침 이번 임시사용자는 제다이전사처럼 검을 쓰는 무인 타입이었기에 그가 구상하는 이미지대로 연검 형태의 허리띠로 변형을 이루었습니다.

뭐 꽤난 놀란듯한 눈치였지만 이 정도 능력이야 그저 껌 씹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었죠..

임시사용주의 언어체계를 바탕으로 구현해보니 세실리우스 행성 언어의 원형이 약 30% 남아있는것이 파악되었고, 문자는 가림토문자로 변형되었더군요.

가리온 1 호가 문명을 전해준 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흐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도 임시사용주의 유전적 형질이 제법 많이 남아 있는걸로 봐선 유력한 집안의 후손이었던 듯..알아보니 천손으로 여겨진 가리온 탐사원의 직계 후손중의 한명인 것 같더군요..

아쉽게도 나라가 망하여 천하를 유랑하는 처지였지만요..

그분이 제게 새로 주신 이름이 은루입니다!

원래 기능이 사용주 보호에 있는지라 공격기능이 없지만 그저 형상에 흐르는 생체에너지..아 여기선 氣라고 하더군요..그걸 전도하기 쉽게 저의 체내에 잘 품어주기만 해도 임시사용주의 적들은 그저 픽픽 나자빠지던데..

제다이 검술과는 다른 형태의 검술인데 그러면서도 많은 부분이 비슷하더군요..

수십년 후 임시사용주..아 자꾸 그리 부르니 불편하군요..

여기선 절세검왕의 칭호를 얻은 일취검향 고천검이 그의 이름입니다.

아무튼 그분과 함께한 수십년의 세월 후 절 땅속에 묻더군요..

그동안 함께 해서 고맙다면서 땅에 묻는데..으음..난 조금만 더 세상을 보고싶었다구요ㅠㅠ

임시사용주였지만 다른 주인에게 인계하는 조건이 진정한 주인을 만나기 전까진 땅속에서 안식을 취하라고 프로그래밍해주는 바람에(워 그분은 그저 생각만 해도 전 잘 알아듣거든요) 별 수 없이 땅속에 묻혀 누군가 발견해주기만 기다렸죠..

저와 함께 순장된 청동조각(워 고천검님의 회한섞인 인생사가 담긴 기록물이지만)이 부식해가는 오랜 세월동안 참 하릴 없었습니다.

한참후에 언어가 많이 변형된 지나족의 손을 거쳤는데 사용주로 등재할 유전적 형질은 한명도 발견되지 않더군요..

물 건너서 낯선 사람들에게 인계되었는데..

이 행성에선 영,미권에서 쓰이는 언어던가요?워 저의 뛰어난 기능으로 금방 언어체계를 파악하고 알아 들었지만..

아무튼 날 건네받은 그 멀더란 인간!!...빠드득...

나를 각종 연구소에 보내더니만 초 현미경으로 관찰하는건 기본이고.. 열리고, 열을 가하고, 심지어 레이저로 지지는 고문까지 가하더군요..

그래봤자 끄떡도 하지않지만 기분은 무척 상했습니다!

결국 저의 정체는 아무것도 못 알아내고 다시 이동하던데..

이게 다 주인 잃은 설움이겠거니 하고 탐지되는 사람들마다 스캔해봐도 유전적합치가 되는 인간들이 어찌 그리 없는지..아마 이들은 그저 순수 토착민인듯하더군요..

그러다 드디어!! 연헬루야~~

나의 새로운 주인님을 만났습니다..그것도 무려 싱크로율 100%의 완벽한 형질을 가진 주인님을요..

이번 주인님은 아주 아주 이쁘고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사랑스런 분이시더군요..

뭐 그래봤자 아머생에 있어 임시사용주까지 해서 겨우 세번째 분을 경험한거지만요.

아무튼 그 분이 날 줬을때 바로 사용주 등재를 마치고 비밀코드를 개방하였습니다.

이번 주인님은 임시가 아니기에 보안코드가 해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곤 바로 멀더의 정체를 끈질겼죠...

제가 주인님의 의식으로 바로 의사를 전달하는 체계이기에 꽤나 놀라신 듯 하더군요..

그래도 역시 이 초간지 메탈 아머의 주인님답게 의연히 대처하시는 모습에 다시 반했습니다.

뭐 그 멀더란 인간이 물러갈때 이름을 언급하는 실수도 저지르셨지만 그 정도야 애교죠..

그리고 지금은 주인님의 의사대로 작은 팬던트로 변형하여 주인님 목에서 찰랑거리고 있습니다..

스텔라라고 하는 세레명을 지니셨는데 내 모양이 그 종교의 대표적 형상과 무척이나 흡사하다면서 흡족해하시더군요..ㅋㅋ역시 나의 센스는..

에호..가끔은 주인님이 즐겨하시는 피겨에 도움이 되고자 던지시 주인님께 의향을 여쭙었는데 단호히 거절하시더군요..그건 페어플레이가 아니라나요..아흑 멋진 주인님!

ㄹ 중력장을 둘러싸면 쿼드는 기본이고 12 회전 정도는 우습게 할텐데 나로선 좀 아쉽더군요..

그렇다면 적어도 스피를 할때 스케이트 날을 잡느라 손에 상처입는거라도 보호하고 싶다니까
그조차 안된다고 하시니..흑흑..이렇게나 저의 능력을 철저히 사용안하시는 주인님이라니..

전 그 능력에 걸맞지 않게 지금은 그저 액세서리 신세일 뿐입니다..

다만 주인님이 심심치않게 수다나 떨어드리는 형편이구요.

물론 연습땐 일절 조용해야 하지만 말입니다..

아이고..내가 혼자 너무 중얼거렸나봅니다.

주인님이 고되게 연습하셨는지라 잠시 신체리듬을 조절하는 정도라도 힘을 써야겠네요..

아무튼 행복하고 평안한 날의 연속이네요..

천오백년전에만 해도 늘 아수라장을 헤치고 다녔는데..

아흠~~이만 낮잠이라도 자야겠군요..그럼....쿨~~

앗차..또 멀더라는 인간이 찾아오면 두 눈 부릅떠야만 합니다..아주 불순한 생각을 하던데..

이쯤에서 밝혀진 실버티어즈의 정체는 무려 외계에서 날아온 메탈아머라는...ㅋㅋ

외전격의 이야기를 그저 즐겁게 보시라고 올려 드립니다..

오늘 좀 심란하셨을 금장디님 이 글 보고 함박 웃음 지으셨음 좋겠네요!

그럼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X-파일 17화 (김연아편) [32]

실버티어즈 [작성을 전해보기](#)

추천 50 | 반대 6 | 조회수 774 | 2010.12.14

<<젊은이..우리 마을 동쪽엔 이상한 숲이 있다네..만월이 떠오르면 그 숲은 오히려 이상한 안개에 휩싸여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라더군..크기도 얼마되지 않는 숲이 그 날이 되면 무척이나 길고 넓게 느껴진다던데..신비한 현상을 규명하러 떠난 탐험가들이 술하게 그 숲에서 희생되었다네..그 날의 숲속에선 자신의 숨겨있던 절망과 슬픔과 분노하는 온갖 모습들이 보여진다더군..그것도 자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에 정신력이 약한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황폐해진다네..하지만 그걸 견디고 지나온 사람은 언제나 용사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지...우리는 그 숲을 거울의 숲 또는 환영의 숲이라고 부른다네..젊은이여! 그대의 정신력을 시험해보고 용사의 운명을 가늠해보겠는가?>>

- MMORPG 아이스히어로의 에피소드 4 '다중이의 역습'편의 한 퀘스트 -

스컬리: 멀더! 이것 좀 조사해야겠어요..

최근 Next 시티 Figureboard 지방에서 이상한 신고들이 접수되고 있어요.

멀 더 : 무슨 사건인데요?

우리가 관심 가질만한 사건인가요?

스컬리: 그곳 주민들 사이에 요즘 기이한 소문들이 돌고 있다는군요.

모습은 분명 자기 남편인데 어느날 너무 낯설게 느껴진다던가..

자기 아들이 갑자기 달라졌었다거나 친구가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던가 하는 소문요..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모습을 보이곤 또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온다던걸요.

멀 더 : 확실히 이상하군요..

혹시 외계인이 실험을 하는지도 모르겠군요.

바로 출발합시다!

.
.
.

스컬리: 신고를 했던 주민들을 만나고 오는길인데 정말 이상하긴 하더군요.

어떤 아주머니는 분명 아침에 등교했던 아들이 갑자기 학교에서 돌아와 자기방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는 물건들을 막 때려부수더니 나갔다고 하는데, 저녁에 돌아와선 자긴 절대 그런적도 없고 학교에 쪽 있었다고 하더군요.

학교에 가서 사실을 확인해보니 그 학생은 그 날 계속 학교에 있었다고 하구요.

또 어떤 부인은 남편이 야간 근무라 친구들을 불러 브릿지 게임을 하고 노는데 밤에 갑자기 귀가해선 미식축구를 보면서 무서운 인상만 쓰고있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아무 대답도 안하고 나가버렸다고 하네요..이상해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니 자긴 지금 근무중인데 무슨 소릴하는거냐며 핀잔을 먹었다고 해서 바로 신고를 한거래요.

이런저런 신고를 한 사람들을 조사해봤는데 공통점은 갑자기 어느 순간 자신이 아는 가족이나 친구가 아니고 낯선 사람의 느낌이 났다는거예요.

물론 당일날 입었던 옷이 아니라는것도 있구요..

그리고 뭔가 공격적이고 분노에 찬 행동을 했다는거구요.

아..게다가 아무 말도 없었다는게 또다른 공통점이구요.

멀 더 : 이건 그야말로 미스터리한 사건이군요.

마치 누군가가 얼굴을 복사해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한 듯 하군요.

외계인의 소행이라기엔 어딘가 허술하고 어쩌면 특별한 능력자의 소행인지도 모르겠군요.

단서는 그들로 변신은 가능하되 목소리는 변조하지 못한다는거군요.

일단 주변 집들을 모두 탐문하고 요사이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지
알아보자구요.

.
. .
.

스컬리: 멀더! 저 집이에요.

원래 **Mrs.Evergreen** 이란 사람이 사는 집인데 주민들과 거의 왕래도 없고 그저 한달에 한번씩
시청 복지과에서 지원금만 받아가곤 했다는군요..

그런데 최근엔 그런 외출조차 안하는데다 이상한 냄새까지 나고있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분명 기록에는 **leisurely** 란 이름의 아들도 한명 있다는데 주민들은 아들 구경은
한번도 못했다고 하구요..

조사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멀 더 : 음..일단 용의선상에 놓아야겠군요..가봅시다.

스컬리: Mrs.Evergreen!! 문 좀 열어주세요..시청에서 나왔습니다.

Mrs.Evergreen: (제가 지금 감기라 말을 못해서 이렇게 글로 대답하네요..지원금은 거기다 놔두고 가세요.)

멀 더 : Mrs.Evergreen!! 저희는 FBI 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신분증입니다..잠시 말씀 좀 나누고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은 요즘 이상한 사건이 있어서 조사중입니다..

그런데 집에 악취와 방향제가 섞여있어서 무척 괴롭군요..

좀 살펴봐도 될까요? 아드님도 있다던데 좀 볼 수 있을까요?

앗! 스컬리..도망가는군요..어서 쫓읍시다!

스컬리: 거기 서요..도망가면 쏩니다..

위협만이 아닙니다..거기 서세웁!

앗..멀더! 보세요..얼굴이 변하고 있어요.

젊은 남자의 모습이라니..오, 세상에나!

멀 더 : 우리가 쫓던 용의자가 맞는것 같군요..

데리고 갑시다, 스컬리!

.
. .
.

스컬리: 방금 그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멀더!

그는 에버그린씨의 아들이 맞더군요..연구소에서 그를 검사해봤는데 체세포가 어딘가 불완전하면서도 굉장히 활성화하기 쉬운 특이 체질이라고 하더군요..

거기에 이상한 이능을 타고났기에 눈으로 본 대상자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더군요.

비록 성대의 구조까진 바꾸지 못해서 목소리는 변조하지 못할지라도..

멀 더 : 그에 대한 심문도 마쳤어요, 스컬리!

그가 어릴때 우연히 그런 능력을 발현된걸 보고는 그의 엄마가 놀라서 그를 감금해서 키웠다고 하더군요.

악마의 자식이라고 끊임없이 학대당하며 자란 것 같더군요.

아마도 엄마의 사랑대신에 슬픔, 원망, 분노 등 온갖 마이너스의 감정만을 학습받았을거예요..

말하는 능력도 거의 8~9 세 수준 정도밖에 안되더군요.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가진지도 모른채 학대당하며 무기력하게 갇혀서 십수년을 보냈나봐요.

그러다가 얼마전 엄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해서 나올 수 있었다네요.

엄마가 무서워 그저 시체가 썩도록 방치하고 지내다 무심결에 만지고 나선 자신의 능력을 알았구요..

그후론 밖에서 지나는 사람들의 밝은 미소와 웃음소릴 들으며 왜 저들은 저리 행복한지 자기도 모르는 적개심이 들끓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들이 지나가면 그 모습을 보고 변신해선 가서 짜증을 풀거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었던거예요..

범상치 않은 능력을 가졌다고 학대한 엄마의 빼뚫어진 대처가 한 젊은이를 망치고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보단 그저 음울한 본성만을 일깨운거죠..

후우! 좀 착잡하군요..

스컬리: 멀더! 과연 인간의 본성은 어떤걸까요?

성선설이 맞을까요? 성악설이 맞을까요?이런저런 생각이 드는군요.

멀 더 : 글썄요..인간은 그저 혼돈의 존재란게 맞을지도..

원망이나 분노, 시기와 질투등 마이너스적인 감정도 분명 품고있지만, 또 그러면서도 사랑과 동정심, 아름다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밝은 감정또한 지니고 있으니깐요.

다만 자신의 감정을 보다 어느색으로 물들이냐에 따라 자신의 인생도 행불행이 결정되지 않을까요?

스컬리: 새삼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미스테리하게 느껴지는군요.

멀 더 : 그래요, 스컬리! 인간이기에 상처받고 또한 치유받고 그러는거겠죠.

예전에 자료보관실의 **Cute Fox** 요원이 한달 정도 휴직했던게 생각나는군요.

자신의 앞에선 웃는 낯으로 대하던 이가 사내전산망을 통해선 익명으로 자신을 디스하고 다닌것에 상처받고 인간불신에 빠져 휴직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그녀에게 말했죠.

익명의 가면 아래선 사람은 얼마든지 자신의 악의를 표출할 수도 있다구요.

다만 그렇게 가면으로 당신을 대한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구요.

그보단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진심에서 우러난 말로 당신을 대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며 마음을 전했다는 걸 잊지말라고요.

한두명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을 불신한다면 그들에게 얻을 큰 사랑과 따뜻함은 더이상 경험하지 못할거라구요..

그리고 한달여 후 그녀는 다시 밝은 낯으로 돌아왔어요.

비록 약간의 그늘은 졌었지만, 금방 본래의 긍정적인 면모를 되찾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죠.

세상사라는게 그런게 아닐까요?

다양한 인간들이 존재하는만큼 때론 악의에 노출되어 상처도 받지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선의에 의해 치유받고 행복해지는..그런게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스컬리! 오늘 밤 우리 집에 갈래요?

스컬리: 멀더! 정말 좋은 말이군요..그런데 밤에 당신 집에는 왜요?

멀 더 : 자고로 사람이 행복해지고 따뜻해지려면 아름다운것을 경험해야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유나킴의 영상만큼 좋은게 없죠.

그녀의 천상의 연기같은 작품을 보면 절로 행복해진다니까요..

가서 우리 밤새 그녀를 통해 아름다워지자구요..

스컬리: 휴우! 멀더..당신은 정말 연아홀릭이군요.

전 피곤해서 집에만 샤워하고 잠이나 자야겠어요..

밤새 연느 타임머신 타느라 내일 지각이나 하지마세요!

=====

적지 않은 시간동안 게시판 나들이를 해본 경험으로 보아선 분명 다중닉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런분들의 악의적인 행위로 상처입는 분들이 있으니 철저히 배격되어야겠죠.

다만 확실한 증거없이 그저 자기 혼자만의 잣대를 적용하여 함부로 판단하는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닉을 계속 바꿔가면서 다중닉을 추적했다 주장하면 어찌 신뢰가 갈까요..

비추의 집중이나 악의적인 댓글같은 공격을 받아도 그저 웃으며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단 훨씬 많은 분들의 추천과 응원과 따뜻한 댓글이 더 게시자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것을 알기때문입니다..

상처받은 분들이 좀 더 빨리 치유하고 돌아오길 바라며, 남은 분들은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마시고 즐기려고 들어오는 곳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X-파일 18화 (김연아편) [41]

실버티어즈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30 | 반대 3 | 조회수 479 | 2010.12.15

<<정치인들을 가득 태운 버스가 시골길을 달리다가 도로를 이탈해 밭에 처박혀버렸다..요란한 굉음을 듣고 오게된 농부가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하여 무덤을 만들고 묻기 시작했다..몇시간 뒤 지나가던 경찰차가 사고가 난 버스의 잔해를 목격하곤 늙은 농부에게 정치인들이 모두 어디 갔느냐고 물었다..농부는 정치인들을 모두 땅에 묻었다고 말했다.."그들 모두가 죽었나요?"하고 경찰이 묻자..농부는 말했다."몇 명은 자긴 안죽었다고 했지만..정치인들 거짓말 잘 아시잖아요.....>>

- 정치인들의 거짓말이란 유머 -

멀 더 : 스킨리! 오늘은 무슨 특별한 사건이 없나요?

스킨리: 글썄요..위스콘신주 Whitefish Bay 에 위치한 노스 쇼어 우체국 직원인 우편집배원이 인근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성에게 알몸으로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우편물을 배달했다가 경범죄로 잡힌거밖에는 없는 것 같군요..

그녀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 같기에 웃음을 주기 위해 그랬다는데 체포된 후엔 알몸으로 우편물을 배달한것은 그리 좋은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네요..

멀 더 : 헐! 개념이 안드로메다에 가있는 집배원이로군요.

상대방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본위적인 생각을 하니 그런 해프닝이 일어나는거겠죠.

저도 오늘은 별다른 일이 없어서 유나킴 영상이나 복습중이었는데, 방금전 어떤 사람에게서 신고가 들어오길...공소시효를 물으면서 제보를 하더군요.

스컬리 : 무슨 신고였는데요?

멀 더 : 스컬리! 예전에 TV 배우로 활약했다가 은퇴해서 지금은 뉴욕시 의원이 된 **헤이젤 썸원** 의원을 아시나요?

스컬리: 아! 예전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Mr.X**'에서 주인공의 할아버지 역할을 맡아 폭소를 던져주던 그 분 말이죠? 치매 걸린 역을 실감나게 해서 에이미상 감초배우상도 받았던 분 아닌가요?

지금은 뉴욕시에서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마약퇴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는걸로 아는데요..

멀 더 : 맞아요, 스컬리!

어느 인터넷 벤처기업의 투자고문이면서 최근 뉴욕의 마약치료 재단의 등기이사로 활동하는 분이죠.

특히 그의 "젊은이여! 마약은 당신의 인생을 좀먹게 한다"는 연재 글은 일일 무료신문에서 날마다 올라오는걸로 유명하죠.

스컬리: 그런데 그 분은 왜요? 혹시 그 분에 대한 제보였나요?

멀 더 : 그래요, 스컬리! 우습게도 지금 열심히 마약퇴치 캠페인을 벌이는 그가 작년 한 자선모금 파티에서 마약을 했다고 신고가 들어왔네요.

제보자는 그저 자신을 암페타민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던걸요.

스컬리: 확실히 않은 정보인데 조사해볼건가요, 멀더?

멀 더 : 지금 썸원 의원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하는중이에요..

특히 그가 투자고문으로 있는 벤처기업의 사업영역이 좀 흥미로워서요.

.
. .
.

썸원 의원: 어서오세요, 두 분! 그런데 FBI 요원들이 무슨 일로 방문하셨는지?

멀 더 : 사실은 얼마전 의원님에 대한 제보를 받았기에 조사를 했습니다.

요즘 의원님이 활발하게 펼치는 마약퇴치 캠페인에 대해선 어느 정도는 공감하던 중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깝군요.

작년 독립기념일 파티에서 술에 만취한 채 룸에서 혼자 헤로인을 코킹했다고 하더군요.

거기다가 합중국 역사지킴이 워크숍에 객원패널로 참여했다가 몇몇 분과 엑스터시까지 즐긴것도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으십니까?

썸원 의원: 후우! 다 알고 오셨구려..

맞소..그런 적이 있었소.

사실은 그래서 많이 후회했다오..하지만 처음엔 열결에 술에 취해 실수한것이고, 나중엔 분위기에 휩쓸려 그랬던거요.. 믿어주시오..

그리고 그런게 안 좋다는걸 알리기 위해 요즘 캠페인을 벌인것이오.

스컬리: 의원님! 의원님의 좋은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사실을 시민들이 안다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자신의 지난 과오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솔직히 털어놓으며 건전사회를 위하여 노력하자고 했던게 호응이 컸을까요? 아니면 자신은 깨끗한 척하면서 마약 근절을 부르짖었던 것이 진정성있게 전달 되었을까요?

멜 더 : 게다가 의원님이 투자고문으로 있는 회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처음엔 학습 효과를 위한 명상기기에서 출발하여 요즘은 특수영역대의 음파를 이용한 뇌파의 강제적 조절로까지 영역을 확대했더군요.

물론 FDA 까지 통과도 했다고 하지만 아직은 그 후유증에 대한 심도있는 결과가 도출된것이 아닌 i-doser 를 출시한것은 마치 인위적인 최면과 플라시보를 통한 마약류의 각성효과로 악용될 우려도 생깁니다.

썸원 의원: 내가 과거에 비록 잘못은 했지만, 그건 다른 마약쟁이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오.

그리고 지금도 소신은 변함이 없소.

계속해서 마약퇴치를 위한 캠페인을 벌일것이오.

노력하다 보면 사람들이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아줄 것이오!

멀 더 : 어쨌든 조사를 위해서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
. .
.

스컬리: 오늘 뉴스를 보니 얼마전 한창 인기가도를 달리던 연예인 마약사범에 이어 또다른 연예인이 구속되었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왜 나쁜줄을 알면서도 마약에 손을 대는걸까요.

멀 더 : 글썄요..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위한 해소일 수도 있고, 외로움을 달래려는 목적일수도 있고..아니면 그저 호기심에 접했다가 중독되었을 수 있겠죠.

인간은 하지말란다고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을 멈추지 못하는 연약한 종족이니깐요..

스컬리: 오늘따라 멀더가 웬지 센치한 듯 하네요..

그럴때는 흥겨운 춤과 음악이 있는 장소가 최고예요.

오늘은 특별히 멀더를 위하여 내가 좋은 곳으로 안내하도록 할게요.

최근 문을 연 '로리엔의 정원'에서 멋진 음악을 틀어주더군요..

당신이 제게 춤을 신청할 수 있는 영광을 주도록 하죠.

멀 더 : 저..스컬리! 그게..난 춤을 출줄을 모르는데..

그냥 우리 유나킴의 영상이나 보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게 어떨까요?

그녀의 영상은 중독되어도 전혀 무해한데 말이죠!

스컬리: 멀더! 난 가요..단 오늘 저녁외에는 춤 출 기회가 없다는것만 명심해요..

멀 더 : 스컬리! 같이 가요..대신 절대 몸치라고 웃으면 안되요..

쑥스럽지만 용기 내보는거라구요!

=====

고사중에 이런 말이 있네요..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깨끗치 못한 부분이 있고, 아무리 더러운 사람도 깨끗한 부분이 있다.

저 자신부터 내세울것이 없는 사람이기에 누군가의 허물을 들추는것도 우습겠지요..

제가 무슨 대단한 인격 수양을 거친 사람도 아니니까요..

그저 저 자신이나마 좀 삼가고 조심하려합니다.

다만 앞에 나서서 무언가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선 언제나 목적의 순수성이 담보되어야 호응이 크리라 봅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나서지못하는 일을 꾸준히 펼치는 어느 한 분의 용기와 소신이 어느 정도는 대단하다고 인정하지만, 이 게시판에서 그저 언제나 공허한 메아리로 남는 이유를 짐작하기에 이 글을 씁니다.

부디 앞뒤의 인과 관계를 잘 살피고 진정한 마음을 담은 캠페인을 펼치시길..

X-파일 19화 (김연아편) [86]

실버티어즈 [작영클 전제보기](#)

추천 35 | 반대 6 | 조회수 3124 | 2010.12.17

<<신이시여..왜 저를 버리시나이까..제가 고통스러운 유년기를 보낼때조차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나이다..이교도의 술한 침략에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적의 피로 목욕을 하였고, 절대적 우세의 적들을 마주하고도 주의 종들을 이끌어 승리의 나팔을 불었나이다..두려움을 이기고 주에 대한 믿음으로 적을 물리쳤으니 이는 주의 역사하심을 증거한 것입니다..그런 저를 어찌 버리시나이까....차라리 제 생명을 거둬갈것이지, 어이하여 내 사랑을 거둬가십니까....이제 주께서 저를 버리시오니 저도 주를 버리겠나이다....십자가 대신 나의 영혼에 맹세하노니 그녀를 앗아간 적도들에게 피의 복수를 내리고 그 피를 강처럼 흐르게 해서라도 그녀를 죽음에서 건져낼 것이오이다..>>

- 트란실바니아 왈라키아 공 Vlad Dracula 가 약혼녀를 잃고 울부짖으며 -

<두달 전, 워싱턴 FBI 본부>

멀 더 : 스킨리! 오늘 저녁에 뭐해요? 약속 없으면 나랑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갈래요?

스컬리: 거긴 왜요? 무슨 특별한 전시라도 열리나요?

멀 더 : 별관 확장 공사가 끝나고 다시 개관하는데 이번에 외국 유물도 다수 전시한다고 하네요.

특히 얼마 전 루마니아에서 대여해온 '철의 처녀'와 '철의 새장'도 전시한다고 하던데, 한번 구경가 보려구요.

스컬리: 아..혹시 피의 여왕이라고 불렀던 트란실바니아의 백작부인 엘리자베스 바토리가 처녀들을 고문하고 죽일때 사용했다는 그 고문도구를 말하는건가요?

그런 끔찍한 걸 왜 보려고 해요..차라리 멀더가 그리 즐겨보는 유나킴 영상이나 볼것이지..

멀 더 : 항상 그 이야길 들으면서 정말 피에 어떤 신비한 작용이 숨어있는가 궁금하였거든요.

아니면 중세의 특수한 연금술의 비법이 적용된건가 하고 어릴때부터 호기심이 들었죠.

요즘 트와일라잇 시리즈가 인기 끄니까 그런 유물도 전시되는 것 같기에 한번 보려하는데.

사실은 그 백작부인은 그녀의 재산에 눈 먼 情夫와 떡고물을 얻어 먹으려는 이단심문관의 조작에 희생된 것이란 설도 전해오죠.

아무튼 이번 기회에 구경 좀 하러 가려구요..

<같은 시각, 스미소니언 박물관>

제 니 : 테페스! 아까 그 고문도구들 보니 느낌이 어땠어?

어휴..너무 끔찍하지 않니?

자신의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 그 많은 처녀들을 잔인하게 고문해서 죽이고 그 피로 목욕하다니 정말 미친거 아니니?

그리고보니 영화나 소설에서 나오는 드라큘라의 모티브는 오히려 그 여백작에서 유래되었다는 말도 맞는것 같아..그렇지 않니?

테페스 :응? 뭐라고?

제 니 : 뭘 그리 보는건데?내가 말한것 못 들었어?

테페스: 아..저기 저 십자가 목걸이 좀 보느라..

중간에 루비가 박히고 금박으로 장식된 저 십자가를 보고 있었어.

제 니 : 아..팜플렛에 보니 트란실바니아 고성에서 함께 발견되어 부쿠레슈티 역사박물관에 있던거라고 하던데, 아마 이번에 다른 유물들과 함께 대여해온건가봐.

엘리자베스 바토리가 착용하던 목걸이었나? 그리고보니 약간 붉은것이 혈흔이라도 묻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이제 볼만큼 봤으니 그만 가자, 테페스!

테페스:.....

제 니 : 뭐해,테페스? 우리 오늘 밤 파티에 가기로 했잖아.

내 친구들 모두 남친 데리고 온다고 했던말이야...지금부터 가서 준비해야 한다구..

너도 얼른 가서 옷 갈아입고 픽업하러 와.

테페스:.....아? 미안.....자꾸 누가 부르는것만 같아서..

갈까요, 공주님? 제가 직접 에스코트하도록 하죠!

제 니 : 내가 아까부터 부른거거든..정신은 어따 두는거야, 헛!

이번만 용서해줄께..어서 가자! 글구 오늘 멋지게 입고 와야해.

<현재, FBI 본부>

멀 더 : 스컬리! 미안해요..많이 아파요?

어젯밤 좀 무리했죠?처음이라 좀 서툴러서 그래요..다음엔 좀 익숙해질거예요.

스컬리: 휴..자고 일어나니 오늘은 좀 낫더군요.

또 할거라고요, 멀더? 당분간은 꿈도 꾸지 말아요..

어젠 멀더가 웬지 기분이 가라앉아보여 특별히 그런거니까..

아직도 아파서 제대로 못 걸을 지경이라구요.

멀 더 : 정말 미안해요, 스컬리!

나도 내가 그 정도일줄은 몰랐어요..스컬리를 너무 힘들게 했네요.

스컬리: 멀더! 어떻게 그리 몸치일 수 있는거죠?

그저 손 잡고 자연스레 리듬만 타면 될것을..

왜 그렇게 내 발등을 밟아댄거예요..아주 멍투성이가 되었다구요!

멀 더 : 그러게...'로리엔의 정원'에 춤추러 가기 전에 미리 말했잖아요.

춤이라곤 어릴때 포크댄스 취본게 다였다구요..

정말 미안해요..이럴 줄 알았으면 사내 스포츠댄스 동아리라도 들걸 그랬네요.

스컬리: 멀더! 당신 매일 유나킴 영상을 봤으면서..

내가 그리 들여다봤으면 음악이 몸에 익숙해졌을텐데..

멀 더 : 그걸 보면 유나킴은 대단한 것 같아요..

미끄러운 빙판에서 어찌 그리 유려하게 움직이는지.

난 그저 손만 잡고 춤 추는것도 힘들어서 스컬리 발등만 마구 밟았는데 말이죠..

하긴 춤도 서툴렀지만 사실 가슴이 너무 떨려서 긴장한 탓이기도 해요.

스컬리 : 왜 그리 긴장한건데요, 멀더?

멀 더 : 그거야 물론..스컬리와..

스컬리: 잠시만요, 멀더! 전화가 와서..

네! 네..흠..알았어요..바로 출발하도록 하죠.

멀 더 : 스컬리! 내가 왜 긴장했냐면요..

스컬리: 그 애긴 나중에 해요..사건이에요, 멀더!

두달 전에 죠지타운대에 다니던 제니란 여학생이 시체로 발견된적이 있었죠?

그리고 난 후에도 두명의 여학생이 더 희생된 사건말이에요..

멀 더 : 아..희생자들이 체내의 피가 다량 소실된채로 발견된 사건이라 기억해요.

창백한 시체에 목덜미에 두 줄기 상처 자국이 있어서 뱀파이어에 의한 살해다 뭐다 하며 소문이 퍼져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건 말이죠?

스컬리: 그래요, 멀더! 방금 또다른 희생자가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어서 현장으로 출발하자구요.

To be continued..

X-파일 20화 (김연아편) [23]

실버티어즈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4 | 반대 7 | 조회수 374 | 2010.12.18

<<아아..님이시여! 당신이 말에 올라 출정하실때면 그저 두 손을 모아 신께 기도 드리는것밖에는 제가 할게 없었습니다..언제나 몸 성히 돌아오시길 기원하며 성루에 올라 님의 귀환을 기다리는것밖에는..승리를 기원하며 드린 제 손수건은 품속에 잘 간직하고 계신가요?..그 손수건이 護身附처럼 당신을 지킬거라시며 환한 미소를 짓던 님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이젠 더 이상 님의 모습을 보지못하겠군요..부디 절 잊지 말아주세요..당신을 사랑한 가련한 이 여인을....>>

- 연인의 적들에게 목숨을 잃은 한 여인의 마지막 유포럼 -

멀 더 : 스컬리! 이번에 희생된 여학생도 죠지타운대 학생인가요?

스컬리: 아뇨! 이름이 크리스틴이라 하고, 다른 학교 학생인데 이번에 집에 왔다가 변을 당했네요.

하지만 이전의 희생자들과 동일한 수법에 당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그녀의 행적을 조사한끝에 가장 최근에 그녀를 만난 한 남학생을 용의자로 지목하여 조사중이라더군요.

멀 더 : 흠..그 남학생으로부터는 알리바이를 진술받았나요?

스컬리: 그게..자기는 크리스틴을 만나고 집에 돌아갔기에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지는 나중에야 알았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한가지 수상한 점이 있어요, 멀더!

바로 첫번째 희생자였던 제니라는 여학생의 남자친구가 바로 그라는군요.

멀 더 : 흠..그렇다면 현재로써는 그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군요.

다른 희생자들과도 연관이 있나요?

스컬리: 네..그의 이름은 테페스이고 부모는 루마니아계인데 1980년대 후반 차우세스크 정권이 몰락할 즈음에 정국의 혼란을 피해 이민을 왔어요..작년에 교통사고로 양친 모두 돌아가셨구요.현재 가족으로는 두 살 아래의 여동생이 있군요.

요한건 테페스가 다른 여학생들과도 모두 안면이 있다는거예요.

한명은 첫 희생자인 제니의 절친이었고, 세번째 희생자는 테페스의 같은 과 친구이구요.

이번에 희생된 크리스틴과는 고교동창인데 최근 방학을 맞아 돌아온 그녀를 잠시 만나고 갔다는데, 바로 그 날에 사건이 벌어진거죠.

멀 더 : 일단 그를 만나봅시다.

.

.

.
스컬리: 테페스! 현재 모든 정황상 당신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일단 희생된 여학생들이 당신과 연관되어 있다는것도 그 혐의를 짊게하구요.

자! 최근의 당신 행적을 모두 설명해주겠어요?그리고 그녀들을 왜 만났는지도..

테페스: 후우! 저는 도무지 제 주변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네요.

제니는 제 여친인데 두달 전 함께 파티에 참석한 후 다음날 그녀를 잃었어요.

그 후 상실감에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 날 위로해주던 제니의 친구와 같은 과 친구까지 희생되고..

덕분에 요즘은 대인기피증까지 와서 오로지 집에서만 지내고 있었죠.

같은 동네에 사는 크리스틴이 방학때라 집에 돌아왔다가 내 소식을 들었는지 그저께 날 만나러 왔기에 잠시 밖에서 요즘 벌어진 일에 대해 이야길 나누고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크리스틴마저 그렇게 됐으니..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멀 더 : 언제나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테페스씨! 혹시 요 근래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아니면 주변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거나 누군가에게 원한을 사진 않았나요?

어쩌면 누군가 테페스씨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울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현재로선 당신이 제일 유력한 용의자이니 조사가 마칠때까진 당분간 집에 갈 수 없을거예요.

테페스: 글썄요...별다른 점은 없는데..아! 한가지 이상한 점은 있는데 얼마전부터 누가 부르는듯한 환청이 들리고 가끔 정신을 잃을때가 있어요.

대략 두달전부터 그런것 같아요..

앗! 그러고보니 그녀들이 희생된 날에 모두 제가 정신을 잃고 한참후에야 깨어나곤 했군요.

이럴수가..혹시 내가 정신을 놓고서 그런 일을 벌인건가요? 흑흑...

멀 더 : 흠..그렇군요..아직 확인된건 아니니까요.

일단 정신과 의사를 섭외하여 상담도 받게 해주도록 하죠.

테페스: 제게 여동생이 있는데 그녀가 걱정할지 모르겠군요..

혼자 남아있는데 안전부절할지도 몰라요..부탁컨대 그녀를 안심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스컬리: 알겠어요..제가 그녀에게 연락을 해서 안심시키도록 할게요..너무 걱정마세요.

.
.br/>.

멀 더 : 스컬리! 테페스의 여동생 기억나죠?

당신이 전화를 걸어서 사정을 설명해줬던 그 블라디니아라는 여동생요.

그녀가 지금 면담 신청을 했더군요..함께 가도록 합시다.

스컬리: 아무래도 오빠가 걱정되어서 왔나보네요..가요, 멀더!

블라디니아: 두 분을 청한건 다름이 아니라 오빠가 범인이 아니라는걸 밝히기 위해서예요.

오빠는 죄가 없어요...그를 풀어주길 바랍니다!

스컬리: 미안하군요..현재 조사가 끝난게 아니어서 그럴수가 없군요.

블라디니아: 더이상 조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왜냐하면 제가 범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빨리 오빠를 풀어주기 바랍니다..

멀 더 : 블라디니아양! 주위 평판에 따르면 두 분 남매 사이가 무척 돈독하다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오빠를 위해서 일부러 죄를 뒤집어쓰려해선 안됩니다.

위증죄와 범인은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블라디니아: 그래요..그럼 내 이야길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물론 믿기지 않겠지만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니깐요.

말씀하신대로 우리 남매 사인 무척이나 좋죠..아니 특별하다고나 할까요?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유독 오빠를 따랐기 때문이에요.

돌아가신 부모님께선 나에게 브라더 콤플렉스라고 놀리곤 했으니까요.

덕분에 오빠 여태 여자친구조차 만들지 못했죠..언제나 내가 오빠결을 벗어나지 않으려해서..

난 그게 이상한지도 몰랐어요..어려서부터 유난히 오빠가 좋아서 그런가보다했을뿐..

그러다 작년에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곤 오빠가 무척 힘들어했어요.

난 오빠가 있어서 그나마 괜찮았지만 오빠 아니었죠.

그러다가 제니를 사귀면서부터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나때문이 아니라 제니때문이란게 가슴 아팠지만 언제까지고 오빠를 독점할 순 없으니
두사람 사이를 축복해줬어요.

그러다 그 날이 왔죠..두 달전 바로 그 날..운명의 그 날이 말입니다.

To be continued..

X-파일 21화 (김연아편) [33]

실버티어즈 [작성을 전제보기](#)

추천 26 | 반대 6 | 조회수 425 | 2010.12.18

<<영주시여, 명심하소서! 이는 운명을 비틀어 죽음에서 건져올리는 피의 사역임을..시체가 산이 되고 피가 강처럼 흘러야만 감히 시도할 수 있는 흑마법의 秘儀인것을..혹여 제물의 수가 부족하면 대법은 실패할 것입니다..만약에 영주님이 뜻을 이루지 못하신다면 바로 두번째 방법을 취하소서..이는 外道の 비전인 바 부디 숙지하시고 그대로 실행하셔야 합니다..바로 영주님의 피로 이런 문양의.....>>

- 늙은 마녀의 당부 -

<1492 년, 트란실바니아 왈라키아 지방의 어느 숲속>

드라쿨라: 숲의 마녀여! 어디에 있는가? 어서 나오라..여기 그대의 영주가 왔도다.

숲의마녀: 영주시여! 저는 현실과 신비의 경계에서 거니는 자.

영민들을 미혹하지도 저주하지도 않았으며 영주님의 위엄을 거스리지도 않았나이다.

그저 잊혀진 세상의 비의를 탐구하는 이 늙은이를 어찌하여 찾으시는지요?

드라쿨라: 지금 나의 심장은 비통함으로 멈추어있도다..

늙은 너와 입씨름 할 시간도 없으니 당장 내 앞에 나서라.

이단심판관에게 알릴것도 없이 온 숲에 불을 질러 네 몸을 숯덩이로 만들기전에 썩 나서라.

숲의마녀: 미천한 신분이 영명하신 영주님을 뵙니다.

드라큘라: 늙은 마녀여! 항간에 은밀히 퍼진 너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노라.

나의 사랑이 죽어간 날로부터 나는 이미 신을 부정하는 배교자가 되었느니...

여기..나의 엘리자베타를 살려다오!

그녀를 죽음에서 건져내어다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다시 장미빛 혈색을 찾아주고, 차가운 입술대신 꽃의 향기같은 숨결을 불어넣어준다면 내 너의 원하는 모든것을 주리라.

숲의마녀: 영주시여! 제가 아무리 신비와 환상을 궁구한다 하나 어찌 운명을 되돌리고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는 사역을 행하겠나이까..

드라큘라: 그렇다면 넌 바로 이 자리에서 말뚝에 꿰여 죽어가는 네 몸을 내려다보게 되리라.

무슨 수를 써도 좋고 필요한 무엇을 말해도 좋다.

방법을 찾아내어 나의 사랑을 돌려주어야 하는것이 너의 의무다.

숲의마녀: 그렇다면 흑마법의 비전으로 내려오는 한 방법밖에는 없나이다.

영주시여! 마님을 살해한 적들의 피가 필요합니다.

마님이 생전에 자주 쓰시던 물건을 매개체로 흑마법의 주술을 행하고 적들의 피를 제물 삼아서 운명의 축을 비틀고 되돌리셔야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위해선 적어도 십만의 제물이 있어야합니다..

영주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드라쿨라: 나의 사랑을 되돌리기 위해선 무언들 못하리!

당장 실행하라...그리고 바로 출진하리라!

숲의마녀: 부디 영주님의 염원이 이루어지시길..

그리고 흑여라도 대법이 실패한다면.....

<현재, FBI 본부>

블라디니아: 두 달전 부모님의 조국인 루마니아에서 유물이 대여되어 와 전시된다는 소식을 듣고 오빠와 함께 보러가기로 했죠.

그런데 제니도 같이 간다고 하여 동행하게 되었죠.

그런 유물을 둘러보다가 바로 한 물건을 보게 되었어요.

그 십자가! 엘리자베타의 목에 언제나 걸려있던 십자가를..크흑...으..

스컬리: 블라디니아! 진정하세요..

갑자기 왜 그래요? 자, 진정하고 다시 자리에 앉으세요.

블라디니아: 크크크..대법은 실패하였지..빌어먹을 운명이여!

멀 더 : 블라디니아! 괜찮아요? 왜 그러는거죠?

앗! 스컬리, 그녀의 눈을 봐요..빨갭게 변했어요.

블라디니아: 블라디니아? 그렇지..지금의 내 이름이군.

신이시여! 당신을 거역했다고 이리도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스컬리: 괜찮아요? 도대체 무슨 소릴 하는건가요?

블라디니아: 다시 소개하지.

나는 블라드 3 세! 왈라키아 공국의 군주이자 블라드 드라쿨라(용기사단원의 아들)라고 불리는 자이다.. 혹은 블라드 테페슈(깨어죽이는 자)라고도 불리지.

두 달전 그 십자가 목걸이를 보는 순간 모든것을 알았지.

이번에도 운명은 내 편이 아니었음을..

이교도들과 싸워 승리를 하고 귀환하는 길에 비보를 들었다.

적들이 패한 앙갚음을 하기 위해 암살자를 보내어, 쫓기던 내 약혼녀가 스스로 절벽에서 투신하여 죽었다는 소식을..

그 때의 하늘이 무너지는듯한 절망감을 아느냐..크흑..

그래서 수소문하여 찾아간 마녀로부터 엘리자베타를 되살리기 위한 대법을 시행하게 했다.

언제나 그녀의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에 박힌 루비에 그녀의 영혼의 한 조각을 머물게 하고, 흑마법의 비술로 그려진 역오망성진 안에 수정관으로 그녀의 시체를 보관한 채..

난 대법의 완성을 위하여 제물을 바치려 출진하였지.

숫적 열세나 부하들의 사기따위는 아무래도 좋았다.

그저 적들을 베고 또 베는것이 오로지 나의 소원이었으니..

하지만 아무리 적들을 주살해도 심만을 채우질 못하였고 그만 패사하게 되었으니..으드득!

스컬리: 이봐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거예요!

멀 더 : 스컬리! 잠시만..일단 그녀의 말을 들어봐요.

블라디니아: 그 때 마녀가 알려준 두번째 방법을 실행하였다.

轉生을 거듭하며 언젠가 그녀가 환생한다면 그녀를 찾아내게 하는 비술을..

그녀의 십자가 목걸이를 본 순간에야 난 깨달을 수 있었다.

왜 내가 브라더 콤플렉스였는지..왜 그렇게 오빠를 독점하고싶고 다른 이성을 막았었는지를..

크크크..빌어먹을 신의 장난인것을..

바로 내가 누구인가와 나의 엘리자베타의 환생이 오빠였다는것을 말이다!

스컬리: 흠!

블라디니아: 그녀는 아직도 자신의 환생을 자각하지 못하는 듯 했다.

그래서 마녀가 알려준대로 흑마법을 완성시키려 했지.

보름마다 한명씩의 피를 바쳐 마법진의 꼭지점에 피를 채워야하는 의식을..

오빠 주변에 알짱거리던 년들이야말로 제물로 삼기에 적당하였지.

이제 보름 후 한명만 더 채우면 그녀 역시 영혼의 조각을 다 채우고 날 알아볼 수 있었거늘..

빌어먹을..마음이 조금하여 현대의 체계가 과거와는 다르다는것을 잊었으니..크흑..흑..

스컬리: 블라디니아! 이봐요..괜찮아요?

블라디니아: 나의 사랑! 엘리자베타!

흐흑..이번에도 운명이 우릴 갈라놓지만 언젠간 꼭 그대를 찾아내어 함께하리다.

사랑하오..나의 목숨! 나의 여신..나의 엘리자베타!..크흑..헉!

멜 더 : 블라디니아! 이런..스컬리, 빨리 의료진을 불러요.

.
. .
.

스컬리: 그녀의 말대로 화가였던 엄마가 죽은 후 폐쇄된 아뜰리에에서 희생자들의 체액이
검출되었어요.. 다량의 피로 그려진 마법진같은 그림과, 범행에 이용된 스텐건과 주사기 등도요..

멜 더 : 그래요..그나저나 테페스가 상심이 크겠군요.

그는 잠전에 풀려났어요..어딘가 멍해보이던데 걱정이군요.

양친과 여친에 이어 이젠 하나뿐인 여동생까지 잃었으니..

스컬리: 검시보고에 의하면 블라디니아는 갑작스런 스트레스성 심장발작에 의한 사망이라네요.

그런데..멀더! 그녀의 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말이 사실일까요?

멀 더: 글썄요..어릴때부터 오빠를 무척 좋아하고 따랐던데다 양친의 사고사 이후 더 집착하게 되어 벌어진 이상심리에 의한것일 수도 있죠.

스컬리: 그렇다면 그녀의 동공이 붉게 변한것은요?

멀 더 : 급격하게 눈으로 몰린 혈액때문에 모세혈관이 터져 핏빛으로 변한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녀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이상 어느것이 진실인지는 알아낼 수 없겠죠.

스컬리: 그래요..하지만 웬지 그녀의 말이 사실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멀더! 과연 불멸의 사랑이란 존재할까요?

멀 더 : 흠..그건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불멸의 뱀파이어보단 불멸의 사랑이 존재한다는것이 더 설득력있을지도..

세상엔 알 수 없는 비밀과 풀리지않는 신비들이 가득하니 어쩌면 그녀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르지요.

당장 유나킴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어찌 그런 피겨변방인 한국에서 그녀같은 선수가 나타났는지..그건 이미 기적이니까요.

아마 내 말대로 외계인이거나 외계인의 유전형질이 구현된 후손일거라는게 맞을것같아요.

스컬리: 하여간 당신의 유나바라기는 대단하군요..지금도 유나킴 이야기라니..

멀 더 : 무슨 소리에요, 스컬리!

그녀는 그저 천왕성같은 존재일뿐..

유나킴의 피겨연기는 대단하지만 그저 그건 경외의 시선으로 보는거죠.

내가 내내 바라보는 이는 스컬리라구요.

스컬리: 아하..유나킴은 우주의 별같은 존재라 현실적인 나나 바라본다는거군요.

멀더! 됐거든요..난 이만 퇴근할거예요.

멀 더 : 스컬리! 그 무슨 말도 안되는..

스컬리! 어딜 가요...이봐요, 같이 가요!

X-파일 22화 (S'유저편) [31]

실버티어즈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3 | 반대 1 | 조회수 361 | 2010.12.19

<<아..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구요? 뭐 특별히 하는 일은 없습니다..罔易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기사나 클릭하고 댓글 달고 시간을 보내죠..민원이 들어오면 어쩌냐구요? 그럼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해주고 앉아서 바쁜척하면 다들 돌아가거든요..그러곤 바로 민원처리를 하는거냐구요? 우리나라 말중에 이런 말이 있죠..만만디..급할거 없이 천천히 하라는 아주 훌륭한 말이라 그대로 행하고있죠..아? 그럼 그 시간에 또 뭐하느냐구요? 또 罔易에 들어가는거죠..클릭하고 댓글 달고 게시하고 또 댓글달고 노는거죠..이러다 봄 퇴근시간이 되더군요..이래서 다들 공무원을 하는건가봐요..특히 저희省的 공무원들은 철밥통중의 철밥통이란.....>>

- 鐵飯碗이라 불리던 차이나 공무원 마오씨와의 인터뷰에서 -

멀 더 : 스킨리! 한참 바쁜 것 같군요?

스컬리: 그러게요..팀원 좀 보강해 줄것이지..

조직의 슬림화다 인원감축이다 뭐다해서 업무량이 너무 많아지네요.

오늘안으로 처리해서 보고해야 할 사안이 많네요.

같은 공무원인데도 어느 나라는 탕자탕자하다가 월급만 타가는 사람도 있다는데.

어쩌면 직업을 잘못 택한 것 같기도 하네요.

멀 더 : 그래도 나라의 안녕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사명감이 있잖아요.

스컬리: 멀더! 맨날 쓸데없이 이상한 현상만 추적하는 당신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이 사건일지 정리하는건 도와줄 생각도 않고 인터넷만 뒤지고 있는 당신이 말이에요.

멀 더 : 스컬리! 무슨 소릴요..전 지금 정보의 바다에서 쓸만한 첩보를 건져올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중 이라고요.

스컬리: 아아~~네! 멀더요원, 그 말 분명히 기억해두죠!

다음에 나보고 일거리 도와달라는 말 절대 하기 없기예요.

멀 더 : 잠시만요, 스컬리! 이거 보던거만 마저 보구요.

얼마전에 한국에서 연평도 피격당한걸로 국내에서도 한참 시끄러웠던거 기억나죠?

그때 연평도 폭격사진이라고 한국의 어느 커뮤니티 사이트에 피격당시의 위성사진이라고 속여서 올렸던 사람이 지금 워싱턴주 육군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계 보급병이라는군요.

한국검찰쪽에서 당시 인터넷에 게시한 미 육군사병의 신원을 확인해 통보해왔다는데, 그 연평도 사태때 NASA 홈페이지에 게재된 2003년 4월 2일 바그다드 폭격사진으로 낚시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기에 인터넷 유언비어를 엄단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이번에 통보해왔다는군요..

스컬리: 아..그때 CNN 지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의 언론들이 낚였던 사진 말이군요.

멀 더 : 그래요..그래서 이번에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는것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한다는군요.

근데, 이 나라는 웃기게도 자신들 정치적인 이슈가 문제가 될때만 열심이군요.

내가 유나킴때문에 가끔 스포츠 토론방 같은곳의 게시글을 번역기로 돌려서 보곤했는데, 마치 찹의 2CH 유저들간에 오갈법한 유나킴에 대한 유언비어나 인신비방, 왜곡등의 글도 버젓이 계속해서 올라오던데..

그런건 별 문제 삼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하긴 사회불안을 야기시키는것과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왜곡이 같을 순 없겠지만 뭔가 우습긴하네요..

이게 다 익명의 얼굴에 숨어서 태연히 남을 해치는 인간 본성의 문제겠지만요.

스컬리: 심리학에서도 그러잖아요..익명성이 평소 드러나지 않던 반사회적 행동을 할 가능성을 높이게 한다고 말이죠.

뉴욕대 사회심리학자인 스캇 프레이저의 실험에서도 그런 면이 잘 드러났죠.

인적이 드문 길가와 사람이 오가는 교외의 한적한 소도시 한곳에 차를 각기 주차시키고 잠시 운전자가 자릴 비운 상황인것처럼 숨어서 관찰했는데..

인적이 드문 곳에 세워논 차는 26 시간만에 카웍스통부터 차의 뒷바퀴까지 싹 훑쳐갔다더군요.

그런데 놀라운건 차량을 파손하거나 도둑질한 사람의 대부분이 깔끔한 정장차림인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었다는거예요.

실험에서 드러난 익명성의 함정이 이 정도인데, 기본적인 신원이 불분명한 온라인에서야 말할 필요도 없겠죠..

멀 더 : 하긴 그래서 요즘엔 심리학 분야에도 사이버심리학이란 새로운 분야가 연구되어지는거겠죠.

근데, 스컬리! 최근 발생하는 연쇄살인에 대한 단서는 좀 나온게 있나요?

스컬리: 아직은 그다지 드러난게 없어요.

살인수법이 비슷하다는 것 뿐이지 희생자들의 접점이 무엇인지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으니깐요.

흔히 연쇄살인범들의 공통점은 주로 심리적인 상처가 트라우마가 되어서 어떤 비정상적인것에 대한 집착이 병적으로 나타나고, 피해자들의 행위나 외모와 치장등이 살인을 유발하는데 이번 희생자들은 나이나 성별, 외모등에서 공통되는 부분을 찾기가 힘들군요.

게다가 그동안의 연쇄살인범 프로파일링에서 드러나기론 범인이 은연중 자기의 집에서 떨어진 곳에서 안심하고 범행을할 수 있는정도의 거리가 있어서 이를 완충지대(buffer zone)라 하고 추적하는 단서로 삼을 근거가 되는데..

이번 범행에서 나타난 희생자들의 피습장소는 너무나 제각각이어서 Geographical profiling 추적 시스템으로도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멀 더 : 살해 수법으로 봐선 그저 묻지마 살인은 아닌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게다가 첫 희생자의 상처에서 보여지던 망설임이나 발작적인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어느덧 상처도 깔끔해지고 있어요.

점차 살인이라는 심정적 거부감이 사라지고 범죄를 태연하게 해치우고 있다는거죠.

스컬리: 지금 현장요원들이 계속해서 피해자들의 집을 수색하고 있고, 비슷한 범행을 했던 과거의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으니 곧 어떤 단서가 포착되겠죠.

게다가 프로파일러들이 이번 사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 있으니깐요.

멀 더 : 아..참! 이번에 한국 경찰에서 1년간 FBI 범죄 프로파일에 대한 교환연구 목적으로 입국한 5명은 좀 어떨튼가요? 잘 적응하고 있나요?

유나킴의 영향인지 유독 그녀의 나라에 관심이 많이 가게 되는군요.

스컬리: Dr.choeunye 님 말에 의하면 마치 **소낙비로** 스펀지를 적시듯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데다, 연구결과를 심도있게 받아들이는 것 같대요.

특히 한국 경찰대학원에서 범죄심리학을 전공했다는 **강미경**씨같은 경우는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확한 프로파일링을 해낸다는군요..

그래서 요즘은 이번 연쇄살인건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하고 있다는군요.

·
·
·

멀 더 : 스컬리! 드디어 알아냈어요.

스컬리: 도대체 무엇을 알아냈다는거예요, 멀더?

멀 더 : 범죄연구실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포착해서 지금 정보를 받아오는 중이에요..

이번 희생자들 사이의 공통점도 발견했다는군요..

무척 의외인건..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To be continued..

X-파일 23화 (S'유저편) [20]

실버티어즈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4 | 반대 6 | 조회수 374 | 2010.12.20

<<교수신문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전국 각 대학교수 212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41%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장두노미'를 꼽았다고 밝혔다.

藏頭露尾는 중국 문학작품에서 나오는 성어로써 속으로 감추면서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하는 태도를 빗대기도 한다.

머리가 썩 좋지 않은 타조는 위험자에게 쫓기면 머리를 덩불 속에 숨기지만 꼬리는 미처 숨기지 못하고 찢쩍맨다는 뜻이다.

아무리 진실을 숨겨두려고 하지만 거짓의 실마리는 이미 드러나있다는 뜻으로 올 한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꼽았다고 한다.>>

- 2010 한국을 표현하는 사자성어의 발표에서 -

멀 더 : 일단 그동안의 희생자에 대한 공통점을 찾아냈어요.

그동안은 성별이나 외모, 직업등에서 서로가 공통점이 없어서 혹여 불특정 다수에 대한 지속적인 살해인 줄 알았는데 꾸준히 정보를 모으고 희생자들의 대외활동을 검토한 프로파일링 분석끝에 이들의 일치점을 찾아냈어요.

스컬리: 흠..첫 희생자는 젊은 나이의 **new bride**로서 주로 집에서 가사활동에 전념했고 대외적인 활동은 별로 없었군요.

두번째 희생자는 **uncle lucid** 인데 메릴랜드 주립대학 교수였는데 퇴근길에 변을 당했군요.

세번째 희생자는 '**after a rain**'이란 별장에서 집필중이던 공학박사구요.

또 네번째 희생자는 한국 이민자 출신의 상점주인이고..

그외 다른 희생자들의 사는 곳과 성별 혹은 직업군들이 모두 다른데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건가요?

멀 더 : 따로따로 보아선 서로 일치되는 점이 없더군요.

그리고 지도상에 표기된 희생자들의 집과 피습장소들도 중구난방이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죠.

단지 같은 흉기에 당했다는 공통점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범죄연구실에서 프로파일링한 자료에 결국 드러나더군요..

희생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정치적인 견해가 같다는거예요.

스컬리: 정치적인 견해요? 자세히 말해봐요, 멀더!

멀 더 : 그래요..이들은 모두 마크 오말리 주지사의 지지자들이거나 혹은 그들과 성향이 같은 파워 블로거란 점이에요.

어떤 이는 저번 주지사 선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고, 어떤 희생자는 후원금 모금에 열성적이었거나, 혹은 자신의 인기 블로그를 통해서 왜 그의 정책이 훌륭한가를 주지시키며 네티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거죠.

스컬리: 흠..그럼 이걸 혹시 그 반대진영이던 얼릭 후보 주변 누군가의 소행이라는건가요?

멀 더 : 일단 오말리 주지사의 재선에 성공한 후 취임축하 파티에 참여했거나 인터넷의 블로그를 통하여 자축 글을 올렸던 사람들이 대부분 희생되었다는 점에서, 먼저 반대진영에 용의점을 두고 그쪽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죠.

스컬리: 그렇다면 그들과 대립하던 인터넷 논객 출신중에는 그런 혐의가 가는 사람이 없던가요?

멀 더 : 스컬리! 맞아요..그래서 두번째로 추적한게 그런 사람들이예요.

오말리 주지사가 추진하는 '이민법제한을 풀고 다양성을 높이려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릴 높이며 넷상에서 그 지지자들을 공박하던 몇몇의 사람들을 따로 추적했어요.

스컬리: 그래서 성과는 있었나요?

멀 더 : 요하게도 한명의 용의자가 혐의가 가장 짙더군요.

그는 메릴랜드 주도 애나폴리스에 위치한 해군사관학교 부속 도서관에서 일하는 자예요.

평소에 일할때는 별로 말이 없는 과묵한 사람인데, 정치적인 쟁점에선 어느새 불같이 변하곤 했대네요.

최근 해군사관학교에 소수민족계의 입학정원이 늘어난것도 공공연히 비난하는가하면, 이번 주지사 선거에서도 이민자보호를 위한 오말리 주지사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릴 높였다더군요.

물론 그의 블로그에서도 줄곧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시민 정치포럼에서도 반대진영과 설전을 주고받았었구요.

스컬리: 흠..그런데 어떤 혐의점이 발견되었다는건가요?

멀 더 : 첫 희생자의 남편이 해군사관학교 사무처에서 일하느라 그 날 남편을 만나고 돌아갔다는건 아시죠?

스컬리: 네...처음에 조사할때 남편으로부터 진술받아서 알고 있죠.

멀 더 : 그녀가 희생당하기 전 부속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런 그녀를 보고 용의자가 혼잣말로 욕설을 하는걸 들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소리긴 하지만 분명히 격렬한 적의에 찬 욕이었다고 하더군요.

저런 사람때문에 위대한 합중국이 병들어간다면서 신경질을 부렸다구요.

게다가 그녀의 대출카드를 살펴보고 주소를 확인하는 장면도 cctv 로 이미 확인했어요.

스컬리: 아직 확연히 드러난 물증은 없군요.

그럼 일단 영장을 받아서 자택 조사를 할 예정인가요?

멀 더 : 네..지금 출발하려고요..같이 가죠, 스컬리!

스컬리: 그럼 바로 출발하죠! 참, 그의 이름은 뭐죠?

멀 더 : 그의 이름은 Arthur Sharking 이란 자인데 독일계 미국인으로 고조부때 이민와서 남부에 뿌리를 내린 집안의 사람이에요.

조사에 따르면 원래 집안 전통에 따라서 그도 진보적인 성향이었는데, 고교때 실연을 당하곤 대학에서 쇼펜하우어 사상에 심취하여 염세적인 모습을 자주 보였대요.

그래서 그의 집안에서 걱정하여 심리치료를 자주 받게했다고 하더군요.

그때 의료기록에 따르면 세상으로부터 자신이 대우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는 세상은 가치없고 그저 책만이 자신의 구원대상일뿐이라고 했다더군요.

게다가 잠재된 폭력성을 가끔 드러낼때가 있다더군요.

대학 졸업 후 도서관에 취직하여 그저 집과 일터만을 오가는 패턴을 반복했다합니다.

그러다가 지역 라디오 연설에서 대학동기인 얼릭 의원의 강한 미국에 대한 주장을 듣고는 심리적인 동조를 일으켜 정치성향도 바꾸고 열성적인 지지자가 되었다더군요.

스컬리: 흠..일단 주요용의자로 지정하고 주의깊게 조사해야겠군요.

To be continued..

X-파일 24화 (S'유저편) [33]

실버티어즈 [작성을 전해보기](#)

추천 23 | 반대 5 | 조회수 405 | 2010.12.22

<<악인은 선한이가 꿈만 꾸는것을 실제 행한다..악한 사람은 악한 의도와 악한 행동을 모두 지닌 자다..악한 행동은 위협적 행동, 폭력적 행동, 범죄적 행동으로 나뉘어진다..악한 의도는 과도함, 극도의 무심함, 동정심의 결핍을 특징으로 한다..그리고 악한사람의 공통 성격은 자기도취적 성격, 악의적 자기에 증후군, 싸이코패스로 구분된다....>>

- 범죄의 해부학 리뷰에서 -

멀 더 : 아더 샤킹씨! 집에 계신가요? 문 좀 열어 주세요!

샤 킹 : 누구시죠? 무슨 일입니까?

스컬리: FBI 에서 나왔습니다..몇가지 조사차 나왔습니다.

잠시 안으로 들어갈까요?

멀 더 : 샤킹씨!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샤킹씨를 조사하고 싶습니다.

최근의 사건이 벌어지던 날의 행적을 알고싶군요.

샤 킹 : 글썄요..도무지 무슨 소릴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전 그저 도서관과 집만을 오고가는지라 알리바이를 댈 증인도 없는 형편입니다.

스컬리: 한달 보름전쯤 도서관에서 new bride 의 도서 대출 기록을 살펴보고 주소까지 확인하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왜 그러신거죠?

샤 킹 : 음..민망하긴 하지만 이 나이까지 이성을 사귀어본 적이 없어서 그날 아름다운 여성이 눈에 띄기에 그저 누군가싶어서 살펴본겁니다.

멀 더 : 샤킹씨! 이상하군요..

분명 그때 옆에 있던 직원의 증언으로 그녀를 보곤 적의를 표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는데요..

일반적으로 호감을 품은 이성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지않죠.

게다가 당신은 이미 그녀가 누군지 알고있던 듯 했다면걸요.

그녀의 블로그에 당신이 다녀간 기록이 있더군요.

그 블로그엔 그녀의 사진도 나와있는데 그녀를 그 날 처음 봤다는게 말이 되나요?

샤 킹 : 사진과 실물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언뜻 봐선 그녀인지 몰랐습니다..그저 멋진 여성이구나 하고 여겨진데다 잠시 낮이 익은듯해서 카드를 살펴서 확인한 것 뿐이죠.

멀 더 : 혹시 Chesapeake Bay 에 있는 'after a rain'이란 별장을 아시는지요?

샤 킹 : 아뇨..전 그쪽은 가 본 적이 없습니다.

경관이 수려하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요.

스컬리: 그렇다면 샤킹씨의 차량 바퀴에서 나온 그쪽 특유의 흙들은 어찌 설명할 수 있죠?

체서피크 만 지역은 한동안 어업과 휴양업이 발달했던 지역이지만 70년대 무렵부터 주거지와 공업지역에서 쏟아진 하수와 산업쓰레기와 퇴적물로 무척 심각하게 오염되었죠.

80년대 이후부터 오염된 주변 환경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으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 지역 특유의 지질구성분은 이쪽 지역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샤킹씨의 자동차 바퀴에 묻어있는 흙은 그 지역에서 나타나는 성분과 일치하더군요.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의 차량과 동일한 바퀴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샤 킹 : 그..그건..잘 모르는 일입니다.

얼마전에 자동차를 도난당했다가 다시 찾았는데 그때 도둑이 몰았었나 봅니다.

멀 더 : 시경에서는 당신의 차량 도난 사건에 대한 신고 접수도 없었다는군요.

아무래도 이번 연쇄 살인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더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일어나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택은 지금부터 수색에 들어가겠습니다.

•
•
•

스컬리: 멀더! 샤킹씨의 자택 책장에서 범행에 쓰인것으로 보이는 제본용 송곳을 발견했어요.

혈흔이 지워져있었지만 페놀프탈레인 루미놀을 이용한 시약검사에서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 송곳의 형태가 검시 보고서에 나타난 상처와도 일치한다는 의사 소견도 받아왔구요.

그런데 샤킹씨 상태는 어떤가요?

멀 더 : 자신이 예전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심리상담 치료를 받았는데, 요즘 스트레스에 의하여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면서 정신과 치료를 의뢰하고 있어요.

스컬리: 정말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걸까요?

멀 더 : 모르죠..아니면 그저 처벌이 확실해지니까 자신의 범죄에 대한 회피심리로 양심을 속이고 숨고 싶어하는 마음인지도요.

전 개인적으로 싸이코패스는 오히려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가면을 쓰고서 태연히 흉한 범죄를 벌이지만 그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감정이 결여되어있기 때문이죠.

감정이 없으니 고통에 무감각하고 그때문에 타인은 물론 자신조차 아끼지 않고 해치는 짓을 거리낌없이 하는거죠.

일반인이 보기엔 괴물같겠지만 타고나야 할 무언가가 결여되었다는건 장애의 한 부분이니 그것이 불쌍하게 여겨져요..

하지만 저렇게 자신을 대단히 엄청난 존재로 착각하고 자기도취에 취하여 남을 피해 입히는 인간들은 자신의 작은 상처에도 움츠려들고 숨으려하죠.

범행을 저지를 땐 마치 자신만의 가치가 최고의 정의이고 지고의 선이라는 신념하에서 행동하고는 나중에는 현실을 부정하고 변명하며 도망치려 하죠.

자신의 나약함을 세상탓으로 돌리며 숨어서 칼날을 가는 이런 사람들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스컬리: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참 세상은 아름답기도 하면서도 참 무서운 곳이군요.

멀 더 : 바로 인간이 세상을 이끌기 때문이죠.

선한 본성이 발현될수록 아름다워지는거고, 숨겨진 악의가 더 거세질수록 강박해지고 무서워지는거겠죠.

스컬리! 그런 의미로 오늘 멋진 음악에 맞춰서 춤추러 갈래요?

세상은 아직 아름답고 살만하다는걸 느껴보자구요!

스컬리: 멀더! 또다시 내 발을 멍투성으로 만들려구요? 전 사양할래요..

멀 더 : 그럼, 우리의 눈과 마음을 정화시켜줄 유나킴의 작품연기에 심취해봅시다.

요즘 바빠서 연느 타임머신도 못 탈 때가 많았다구요..

스컬리? 왜 대답이 없어요?...스컬리!!

오늘 처 할아버님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좀 다녀왔습니다.

뇌경색때문에 쓰러지셨는데 바로 적절한 치료로 이제 호전되시려 하시더군요.

겨울은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가 특히 필요한 계절인가 봅니다.

일토방 식구들도 늘 건강하시고 스트레스보다는 늘 환한 웃음짓는 게시판을 향유하시길..

X-파일 25화 (김연아편) [19]

실버티어즈 [작영글 전체보기](#)

추천 21 | 반대 1 | 조회수 328 | 2010.12.22

<<아틀란티스 대륙은 최초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저서 "대화편"에서 언급된
전설상의 고대국가로 기원전 9 천 6 백년 전쯤 갑작스런 지진과 홍수로 멸망한 고대 이상향의
이름으로 남아있다.

플라톤은 아틀란티스를 가리켜 거대하고 경이로운 제국의 심장이었다라고 언급할만큼 정치.
군사. 경제. 법률적으로 완비된 신비의 대륙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대에도 그 실체를 찾기 위한 학자들의 연구와 추적이 계속 되고 있으며 그 위치와 문명에
대한 다양한 가설을 내어놓고 있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회자되고 있을뿐이다.

플라톤에 따르면 지중해 서쪽 바다 즉 대서양에 위치해있었다고 추정하는데, 이에
부합되기로는 대서양을 일컫는 영어 단어가 'Atlantic', 지중해 남서쪽의 커다란 산맥의 이름이
'Atlas mountains'인것도 이에서 유래된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한편으론 카리브해역에 위치했을거라는 추정을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는 '아스 틀란' 에서
건너온 뱀의 사람들이 멕시코의 일곱개 동굴에서 살았다는 멕시코 신화를 근거로 한 주장이다.
아스틀란이 아틀란티스의 어원과 뿌리가 같다는 것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2010 년 6 월 연구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카리브해에서 프랑스의 해저연구팀이 발견한 거대한 도시유적때문이다.

프랑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해저도시는 크기가 거대하고 구조가 매우 조직적이며 외견상
원시 유적의 느낌을 주는데 특히 일부 유적은 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다고한다.

현재 아틀란티스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써왔던 연구자들은 이 유적에 대한 심층 발굴을 위해
자금마련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하며...>>

- 애리조나대학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의 한 연구발표 자료에서 -

<현재, FBI 본부>

스컬리: 멀더! 뭘 그리 열심히 하고 있는건가요?

멀 더 : 그동안 우리가 쫓아왔던 각종의 미스테리에 대한 파일을 종류별로 정리하고 있어요.

분류에 따라 외계문명과 선행인류의 존재에 대한 파일등으로 나누고 현재 규명되지 않는 유물이나 현상등은 한데로 묶어서 정리중이죠.

스컬리: 과연 그런 모든것들이 언젠가는 진실로 드러나고 명백히 밝혀질 날이 있을까요?

멀 더 : 그저 지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불신하며 미신이나 전설로 치부한다면 그 감추어진 진실은 언제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거예요.

누군가 끊임없이 탐구하고 추적하며 연구하기 때문에 발전하고 규명되는거겠죠.

예전 트로이전쟁의 설화는 그저 전설로 치부되는 이야기거리로 취급되었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연구하고 흔적을 쫓은 학자들이 있어서 현재는 그 유적이 드러나고 실제로 존재했었던 문명이란것이 증명이 되었잖아요.

또한 신비의 대륙 아틀란티스를 찾겠다는 탐험심이 새로운 대륙을 찾아나서는 항해술의 발달을 부르고 미개척지를 찾아내는 원동력이 되었죠.

지금 이런 우리의 노력이 언젠가는 신비와 환상으로 점철된 엑스파일을 실체로써 증명해내는 날이 올지도 모르는거예요, 스컬리!

스컬리: 과연 그런 날이 오면 당신이 그렇게도 목을 매는 유나킴의 정체성에 대한 의혹도 풀릴까요?

멀 더 : 저로선 유나킴이 외계인이거나 혹은 그녀의 조상중에 외계의 피가 섞여 그 형질이 구현된 후손으로 보지만, 그 실체가 어떨지는 장담할 수 없죠.

다만 그녀의 존재가 인류에겐 무해하며 오히려 인류의 평화와 예술에 기여한다고 봐요.

그저 개인적인 호기심과 탐구심이 그녀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쏟게하는 것 뿐이지 그녀의 정체를 밝혀서 그녀에게 해를 입히려는 생각은 없어요.

스컬리: 멀더! 언젠가는 당신의 노력이 보상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군요.

멀 더 : 스컬리! 근데 이거 어떤가요?

유나킴이 요즘 광고중인 제품인지라 성능은 고려하지도 않고 지름신이 강림해버려서 산건데, 녹음기능과 녹화 재생기능까지도 있어요.

우리 실험삼아서 아무 이야기나 하고 재생시켜 볼래요?

난 어릴때부터 녹음같은걸 하고 들어보면 마치 내 목소리가 아닌것같아 어색하고 신기한 했는데 말이죠.

스컬리: 멀더! 가끔 보면 당신은 어린애같은 면모가 있다니까요.

워 그게 싫다는건 아니고 그저 그 순수함에 웃음이 난다고나 할까?

<제국력 553 년, 황실 마탑 주관 학술회의장>

사회자: 황립 학술원 원장 도요새입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수의 마도사분들과 저명한 학자들을 모시고 이번 특별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이유는 이미 배포해드린 안내 책자에 나와있듯이 지난번 제국 남동부 변경의 패어팩스 지방에서 고대문명의 흔적으로 보이는 각종 유물들을 발굴했기 때문입니다.

우르 제국 역사상 최악의 지진이라 불리던 지난 여름의 악몽이 끝나고 제국 근위기사단과 21 병단을 주축으로 하여 마탑의 마법사분들을 대동하여 피해지역 복구에 전념하던 중 지반 침하로 인하여 드러난 깊은 균열 아래에서 상상치않은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다음은 당시 책임자로 일행을 이끌었던 대지의 마탑의 탑주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대지의 마탑주: 안녕하십니까..대지의 마탑 수장을 맡고있는 **쑤돌이**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여름 제국 병사들과 일꾼들과 함께 다른 마법사분들의 도움으로 피해 복구에 전력을 기울이던중, 어느 마을 중앙을 가로지른 균열을 발견하곤 대지의 마법으로 원래의 지형으로 수복하려했지만 그 규모가 거대한지라 포기하고 드러난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탐사대를 내려보내었습니다.

탐사대가 올라와 보고한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었는데 그 아래에서 고대의 도시 유적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세월에 따른 지반의 압력으로 대부분 알 수 없고 드러난 곳이 많지는 않지만 도시계획에 맞춰 규격화된 도로망과 기이한 건축물의 잔해가 드러났기에, 바로 그곳을 금역으로 정하고 황실마탑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황실에서 파견된 직속마탑의 마도사분들과 아카데미의 저명한 학자분들과 함께 다시 조심스런 탐사에 나섰고, 일부 유적에서 몇개의 유물도 획득하여 그동안 비밀 장소에서 연구하였습니다.

황실마탑주: 황실마탑을 맡고 있는 **타블로**로입니다..다음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때 획득한 유물을 여러 권위있는 학자들과 마법사들이 함께 연구한 결과 대략적이거나 파악이 되었기에 1 차로 그 유물에 대한 연구성과를 비공개로 공유하며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비정기 회의이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황제폐하께서 깊은 관심을 표하신했으니 절대로 비밀 준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어 드린 책자는 모두 회수할 예정이오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그럼 유물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시 운 좋게 형태가 제법 남아있는 한 건물잔해안에서 사각형의 얇은 금속물체를 발견했는데, 이것은 현재의 기술로써 구현하기 힘든 첨단 의 물건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용도조차 모르는 물건이었기에 연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행히 인첸트 마탑의 도움으로 약간이나마 그 비밀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 유물에는 두 남녀의 목소리가 저장되어 있었는데 언어체계를 알 수 없는 관계로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들었지만 자주 언급된 **멀더**와 **스컬리**가 두 남녀의 이름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건물안에서 발견된 철제가방속에서 극히 얇게 제작된 은반을 얻었는데 실로 정교한 기술로 만들어진 물건이며 가운데는 동그란 구멍이 난 은빛의 원반이었습니다.

다른 은반들은 모두 깨지거나 금이 가고 오직 한개의 은반만이 온전하여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것도 연구도중 우연한 기회에 그 용도가 드러났는데, 지금 우리 제국에서 유행하는 영상저장 크리스탈과 비슷한 기능의 물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복원된 영상을 볼 수 있었는데 중간중간 훼손되긴 했어도 그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영상을 저장한 크리스탈을 재생한것입니다.

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는 아름다운 여성이 매혹적인 의상을 입고 금속으로 이뤄진 신발을 신고 얼음위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실로 인간이 아닌듯한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학술원에선 이미 현대에선 사라져버린 고대의 요정족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람같지 않은 매혹적인 모습과 상상하기 힘든 얼음위에서의 움직임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연구한 학술원 소속 학자들은 영상속의 그녀를 '**은반의 요정**'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발견된 은반속에서 오랜 시간을 지나와 건네진 고대인들의 친구라는 뜻이죠.

대략 멀더와 스컬리라는 정령사가 은반의 요정을 소환하는 의식을 담은 영상기록인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주변 벽에 새겨진 알 수 없는 문자들은 소환문자를 새긴것으로 여겨지구요.

다음은 제국사의 권위자인 아카데미 역사교수 **긴머리**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역사학자: 이번에 발견된 유물들은 저같은 역사학자에게 실로 충격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우르제국의 역사가 550 여년이고 이전 왕국과 제국들의 역사서를 바탕으로 추정되는 현 인류의 역사는 대략 5 천년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 어디에도 이런 첨단 문명을 지닌 역사는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이건 가장 오랜 기록을 가졌다는 대지모신 성황청의 기록에도 없는 유물입니다.

그렇다는것은 우리 인류 이전에 번영을 누렸다는 고대인이 존재했다는 가설로서만 설명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현생인류와 고대인간의 관계는 어떨하며 왜 고대인들이 한순간 멸망하고 현 체계의 역사가 대두되었는지는 미궁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술회에서 이 주제에 관하여 심도있는 토의를 나누고 황제 폐하께 보고하기 위하여 금번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X-파일 26화 (김연아편) [32]

실버티어즈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2 | 반대 1 | 조회수 389 | 2010.12.23

"법무부장관에 물어보니, 차명폰도 1 개를 만들어서 하루인가를 쓰다가 돌려줬다는데, 차명폰은 많은 공직자와 기업가들이 쓰고 있는 것 아니냐?"

보온병을 가리키며 "이게 포탄입니다, 포탄"

"전쟁이 터지면 군에 입대하겠습니다."

"룸에 들어가면 자연산만 찾는다던데"

- 입만 열면 조롱당하는 어느 정치인의 말말말 -

멀 더 : 여보세요? 네..거기 '러브플라워'인가요?

인터넷에서 귀사의 정보를 보고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아는 여성에게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깜짝 이벤트를 선보이고 싶은데요.

러브플라워: 네..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추고 고객님의 요구에 맞춤서비스로 최대한의 만족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멀 더 : 네..제 직장동료가 이번에 사촌 결혼식때문에 다른곳에 가있는지라 크리스마스를 거기서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검사 배달서비스로 제 맘을 보내고 싶은데 말이죠.

러브플라워: 아하..크리스마스 와 결혼들러리에 맞춰 이벤트를 원하시나 보군요?

멀 더 : 네..맞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좀 특별한 이벤트를 연출해서 기쁘게 해주고 싶군요.

성격이 약간 건조한데가 있어서 깜짝 놀랄만한 이벤트로 추억에 남는 크리스마스를 선사해주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러브플라워: 그렇다면 저희에게 연락하시길 잘하셨습니다.

저희는 많은 재능있는 분들을 섭외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연출하여 고객분들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 또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차도녀들에게 유행하는 특별 이벤트 코스를 추천해 드립니다.

고객님이 원하시는 지역은 대도시가 아닌지라 준비하고 배달해서 연출하는데도 좀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시는데 괜찮을까요?

멀 더 : 네..그건 상관없이 멋진 이벤트만 연출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쪽 주소를 불러드릴게요..

.

.

.

스컬리: 여보세요? 어머, 멀더! 웬일이예요?

아직 휴가가 끝나지 않았는데 전화까지 다 하고..무슨 급한 일이 있는건가요?

멀 더 : 아뇨..특별한 일은 없어요.

그저 스컬리가 어찌 지내나 궁금해서 전화해봤어요.

사촌 결혼식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나요?

들러리 드레스는 어떻든가요?

스컬리: 이곳은 작은 소도시라 그런지 사람들이 모두 소박하고 정겹게 지내는군요.

사촌인 **마리아**의 결혼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녀가 행복해하는걸 보니 나도 무척이나 기쁘더군요.

내 드레스 입은거야 남들은 그럭저럭 잘 어울린다고들 하는데 저로선 너무 어색하네요.

멀 더 : 아쉽네요..스컬리의 들러리 복장도 보고싶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왜 이리 시끄러운가요?

스컬리: 아..요즘 이곳도 좀 떠들썩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도 모여서 다들 한마디씩 하느라..그래서 그럴거예요.

다들 순박하고 정겨운 사람들이지만 어딜가나 몇명은 그에 아랑곳않고 민폐 끼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멀 더 : 무슨 일인데 그래요?

혹시 경사에 방해되는 일은 아닌가요?

스컬리: 뭐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이웃들에게 불편을 주는 어떤 사람때문에 좀 피곤해들 하더군요.

마리아네 집의 정원을 꾸며서 야외결혼식을 할 예정인데 정원을 마주한 이웃집이 문제예요.

평소에도 웬 사냥개들을 정원에 방치해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위협하곤 해서 원성이 자자했는데, 이번엔 난데없는 야생동물들까지 구입해선 키운다더군요.

밤이고 낮이고 시끄럽게 굴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이번 결혼식때문에 잠시만이라도 동물병원이나 다른곳에 옮겨줄 수 없냐고 해도 들은척을 안하는군요.

멀 더 : 그 정도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야겠군요.

스컬리: 그 옆집 주인 이름이 **Swindler** 인데요.

전에 길을 지나는 아이들이 무서워한다고 사육장소라도 좀 깊숙한 안쪽으로 옮겨달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하고선, 또 그냥 그대로 방치하곤 길가에서 개들이 위협적으로 짖는걸 낄낄거리며 즐기곤 했다네요.

하도 이웃들이 뭐라고 하니까 개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바로 이사를 가겠다고 약속해놓곤, 아이가 놀라서 넘어져 다쳤는데도 뭐 그런 말이야 그저 의례적으로 하는 말 아니냐면서..

대단한 상처도 아닌데 난리라며 그냥 약속은 무시하고 모른척 넘어갔다고도 하고..

이번에도 새로 들인 동물들이 하도 시끄럽게 굴어서 시정하지 않으면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니까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선..

잠시 다른곳으로 옮겼다가 이틀도 안되서 그냥 다시 정원에 풀어놓곤 방기하더군요.

하여간 말을 수시로 바꾸는데다 이웃들 생각도 안하는지라 여기 주민들 사이에 원성이 자자한 사람같아요.

멀 더 : 자신이 뱀은 말의 무게는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인가 보네요.

그런 사람들은 남들의 진심어린 충고나 부탁은 먹히지도 않을거예요.

그냥 원래 하려던대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것도 나을 것 같군요.

그나저나 스컬리! 내일이면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내가 스컬리를 위해서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우훗!

스컬리: 멀더! 원데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선물을 준다고..

내가 돌아가면 준다는거예요? 어찌죠..난 멀더를 위해 준비한것도 없는데..

아무튼 멀더도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돌아가서 봐요, 멀더!

.
.br/>.

멀 더 : 스컬리! 멋진 크리스마스 보냈나요?

어때요? 내가 이벤트 업체에 대행해서 보낸 선물은 맘에 들었나요?

깜짝 놀랐나요?

스컬리: 멀더!!! 정말 아주 깜짝 놀랐어요..주먹을 부를만큼이나요!!

내가 친지들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멀 더 : 무슨 말이에요, 스컬리?

왜 창피를 당했는데요?

스컬리: 설마 발뺌할 생각인가요?

멀더! 보내준 꽃다발은 참 고맙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 엄청난 선물상자는 뭔가요?

친지들 앞에서 그 상자가 열렸을때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건장한 남자 스트리퍼가 목에 리본을 묶고 토폴리스 차림으로 난데없이 튀어나와 춤을 추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다구요.

친지들은 어리둥절하면서도 깔깔거리며 웃고 난리였죠.

브라이덜 샤워파티라도 준비한거냐며 박장대소까지 하더군요.

멀더! 일부러 그런거 맞죠?

멀 더 : (빠끔) 아..특별 코스의 이벤트가 있다는 말만 듣고 그냥 그걸로 신청한거예요.

스컬리! 제발 믿어줘요..난 그런 이벤트인줄 몰랐다가구요.

그냥 추천하는대로만 따른거라구요.

정말 난 그런건줄은 몰랐다가구요..아..스컬리! 스컬리!??

내일은 금장디님의 내년 월드 티켓 당첨이 가려지는 날이라 알고 있습니다.

꼭 원하시는 티켓 득하셔서 풍성한 떡밥을 직송해주시길 기원합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정도는 연재를 못할 것 같네요..

늘 읽어주시는 분들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 주말을 보내시길..

X-파일 27화 (아사다편) [59]

실버티어즈 [작성을 전체보기](#)

추천 36 | 반대 3 | 조회수 1210 | 2010.12.26

<<既生瑜, 何生亮 하늘이여, 이미 주유를 내셨으면서 어찌 제갈량도 내셨단 말입니까..>>

- 삼국지연의에서 주유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면서 -

<1990 년, 나고야 아츠다 신사>

쿄 쿄 : 아마테라스 오오카미시여!

이 가련한 여자가 아마테라스께 기원을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부디 뱃속의 아이가 여신의 가호로 훌륭한 아이로 자라게 해주소서.

나의 인생 유전을 벗어나 아이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옵니다.

아마테라스: 여인아! 너의 기원을 가납하였도다.

너는 아이의 운명을 위하여 내게 무엇을 바치겠느냐.

너의 제물에 의해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리니..

교 코 : 아아~ 아마테라스시여!

저의 기원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제가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과 먹고싶던 **plum cake** 와 **sundae** 를 꼭 참고 바치옵니다.

적으나마 저의 성의를 받아주소서.

아마테라스: 돈과 건포도케익과 시럽을 얹은 아이스크림이라..

여인아, 너의 제물을 받아들이노라..

이제 너의 아이는 타고난 재능으로 부와 먹거리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리라.

그러나 다소 식탐이 생기더라도 나를 원망치 말라..너의 제물에 의한 영향일지니.

또한 주변의 돈이 뒷받침되는 한 영예를 누리리라.

그리고 너의 제물에 걸맞게 앞으로 **pcs** 의 **여왕**으로 불리리라.

다만 미리 알려줄 것이 있노라.

교 코: 무엇입니까, 여신이시여!

아마테라스: 흑여 금빛의 아름다운 아이를 만나게되면 너의 아이에게 넘사벽으로 다가오리라.

부디 네 아이 인생에 그녀를 만나지 않기를 축원하겠노라.

하지만 천기를 보니 얼음의 여신께서 강림하려 하시는듯 하니..

쫓쫓!! 그것만은 내가 어찌할 수 없겠구나..

다만 나의 가호를 받는 아이답게 슬럼프가 오더라도 불사조처럼 계속 부활할 수 있겠지만
부활에는 돈질이 필요하느니라..

요즘은 신도들도 줄어서 물질이라도 들어와야 신력이 내리니 이를 명심하라.

당부하노니, 주변에 일러 돈질을 아끼지 말게 하라..

그럼 미약하지만 수가 엇보이기도 하니..

<현재, FBI 본부>

스컬리: 멀더! 뭐하고 있어요?

설마 아직도 의기소침해 있는건 아니죠?

크리스마스때 잘못 신청한 이벤트는 잊어줄께요..이제 그만 기운내요!

멀 더 : 스킨리! 고마워요..

난 정말 그런 이벤트인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음..요즘 이상하게 되는 일이 없군요.

누군가 부두교의 주술로 날 마구 굴리는 중일지도 모르겠어요.

스컬리: 멀더! 너무 과한 상상이에요.

근데 뭘 보고 있던거예요?

멀 더 : 아..재팬 선수권 피겨대회 결과를 보고있었어요.

이미 쿤연아때문에 눈이 턱없이 높아져서 니뽕 여싱들의 경기는 보지도 않지만, 한때 유나킴의 라이벌이라 불렸던 아사다 선수가 과연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 궁금해서요.

근데 이번에 쇼트 1 위, 프리 2 위로 전체 2 위로 마감했다네요.

기사에서 부활이다 뭐다하던데..뭐 자주 죽었다 살아나는 선수인가봐요.

안도 선수는 200 점도 넘었던데 자국 선수권이라해도 이리 점수를 퍼주는건 좀 우습긴하네요.

스컬리: 뭐, 돈 들이지도 않고 자국 선수들 기 살려주려고 애쓰나보죠.

그럼 아사다선수가 세계선수권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군요.

저번에 일빙연 회장이 월드 출전하려면 자국 선수권 3 위 이내 성적에 들어야한다고 했었는데 2 위는 했으니까 말이에요.

역시 믿을건 안방밖에 없나봐요?

내가 알기론 올해 계속해서 죽 켜다고 하던데..

멀 더 : 흠..이건 사실 놀라운 결과예요.

니뽕 내셔널이 열리기 전 한국 인터넷 포탈에선 이미 아사다 선수가 포디움에 들거로 모두 예상하고 있더군요.

스즈끼 선수가 희생되고 그 자리를 아사다 선수가 차지하리라고 모두 입을 모아 예상하던데..

그런 예상이 맞았다는건 한국 인터넷 유저들의 미래예측이 대단한건지, 아니면 니뽕
빙상연맹의 행태가 너무 뻥한건지 어떤 의미로든 굉장히 놀라운 결과예요.

스컬리: 나야 피겨는 잘 모르지만 아사다 선수하면 뜨악이 있다던데.

일단 시도하고 랜딩만 하면 회전수건 투פות이건 상관없이 점수가 나온다고 하던데요.

나름의 네임밸류에다 그런 한방 승부수를 믿어 보는걸지도 모르죠.

그런거보면 껌들은 은근히 도박에 시운을 맡기는 나라같아요.

하긴 뭐 빠칭코의 천국인 나라니까 한편으론 수궁이 가기도 하는군요.

멜 더 : 뭐, 어쨌거나 전 아사다 선수가 안됐어요.

하필 또 권연아랑 부딪혀 다시 좌절을 맛보려는건지..

유나킴은 완전 외계인인데 들이댄다고 될까요?

주니어때야 지구 적응기라서 진면목을 숨겨서 가능했지만 이젠 따라가기도 벅찰텐데..

하긴 신의 아이도 아니고 그저 인간으로선 권연아를 극복하기가 힘들어 언제나 편법과
모략으로 도모해보는거겠지만..

아무튼 내년 3월이 기대되네요.

=====

다들 즐거운 휴일 보내셨나요?

옆국 빙상연맹 이사회 결과 결국은 스즈키 선수가 떨어지고 아사다 선수가 출전권 얻었네요.

역시 예측에서 벗어나지 않는 결과를 보여준 옆국 선수권을 보며 웃자고 쓰는 글입니다^^

X-파일 28화 (아사다편) [24]

실버티어즈 [작영글 전체보기](#)

추천 34 | 반대 2 | 조회수 675 | 2010.12.27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은 믿게 된다"

"거짓과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승리한 자는 진실을 말했느냐 따위는 추궁당하지 않는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그러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위기를 성공으로 이끄는 선전이야말로 진정한 정치 예술이다"

- 독일 나찌 선전상 '파울 요제프 괴벨스'의 어록 -

스컬리: 멀더! 얼마 전 근본주의 성향의 교회 신자 13 명이 예수를 만나겠다며 쪽지를 남긴 채 사라져 집단 자살이 우려됐던 사람들 아직도 행방을 추적중인가요?

멀 더 : 아..스컬리! 그 사람들 LA 팜데일에 위치한 재키 로빈슨 공원에서 발견했어요.

혹여 예전 존스타운 사건처럼 불행한 일이 터질까봐 걱정했었는데 모두 무사히 발견되었다네요.

당시 기도회를 여는걸 발견했는데 어른 5명과 어린이 8명 모두 무사하다더군요.

스컬리: 다행이네요, 멀더!

근데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사람들은 그런 사이비에 현혹당하고 미혹에서 벗어나질 못하는걸까요?

멀 더 : 그게 다 사람들의 절박함과 현실에서 벗어나고픈 마음을 틈타고 반복적인 선전과 학습으로 교묘하게 세뇌시키기 때문일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1997년 3월에 당시 지구 근처를 지나던 헤일-밥 혜성이 UFO 라면서 외계인이 탄 우주선에 승선하기 위해서는 죽음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집단자살한 외계인 숭배 종교집단인 "천국의 문(Haeven Gate)"사건만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죠.

나도 미스테리를 추적하면서 외계인의 존재 가능성을 믿고 있지만, 그들이 구원의 대상이 된다면 우주선이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해 줄 거라는 터무니없는 소리는 안 믿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광기어린 믿음과 근거없는 숭배에 빠져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인들도 세뇌시키고 비극으로 몰아넣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안가요.

스컬리: 그전에도 웅변이나 연설등으로 선전이 유효한 도구였지만, 2 차대전때 나찌의 선전상이었던 괴벨스 이후로는 그 효과가 방송이나 선전매체를 통해서 더욱 극대화되는 경향이예요.

이런 선전과 세뇌의 함정을 알면서도 당하는것을 보면 인간은 참 나약한 것 같기도 해요.

멀 더 :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때문에 더 그러하겠죠.

사람 심리란게 묘해서 자꾸만 듣다보면 그럴싸해보이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군중의 동조심리가 합쳐지면 집단의 광기가 일어나죠.

이런건 전체주의적인 나라일수록 그 경향이 강한데 특히 니뽕에선 그 경향이 유독 크게 나타나죠.

스컬리: 그런가요? 하긴 진주만 공격때도 카미카제라며 자살공격한걸 보면 당시의 세뇌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것 같기도 하네요.

멀 더 : 그건 아무것도 아니예요, 스컬리!

2 차대전때 니뽕군이 선전포고 없이 진주만을 기습공격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알래스카 부근의 알류산 열도의 끝자락인 애투섬만을 장악하곤 병참기지화하면서 병사 3 천여명을 주둔시켰었어요.

1 년동안 참전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대일 응징에 나섰을때 첫 전투로 애투섬 탈환작전을 벌였는데 2 주간의 함포공격과 공중공격으로 보급이 끊긴 일본군이 택한것은 바로 집단 자살이었어요.

전투에 의한 사망자는 수백명이고, 포로는 단지 28 명뿐이었지만..자살자는 2 천명이 넘었었죠.

자칭 황국신민으로서 끝까지 싸우는 것이 명예이며,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죽음으로써 충성을 바친다는 그네들의 방식이 불러온 비극인데 이것도 다 극단적인 세뇌에 의한 광기죠.

스컬리: 무섭네요, 멀더!

하긴 조작과 왜곡도 일삼는 그들인데 세뇌쯤이야 태연히 저지르겠죠.

만주사변도 만주를 꿀꺽하려는 속셈으로 재팬 군부와 우익이 자작극인 만철폭파사건을 벌이곤 이를 차이나 소행으로 몰아서 전쟁을 일으킨거라면서요?

멀 더 : 껌들의 조작과 왜곡과 세뇌는 현재진행형이에요.

내가 유나킴때문에 피겨에 유독 관심이 많은거 알죠?

유튜브를 돌아다니다 보면 유나킴에 대한 악의적 날조 영상은 수도 없이 많아요.

거기다 더 무서운건 일부 개인들뿐만이 아닌 방송, 언론을 가리지않는 전방위적인 면이라는거죠.

근거없는 소문과 기사를 양산해서 자국민들은 물론 세계에도 그 이미지를 훼손시키려는 행위를 태연히 저지르더군요.

그리곤 이미 찌리로 전락한 자국 선수를 포장하기에 여념이 없죠.

스컬리: 세상에..근데 그런게 통하나요?

멀 더 : 그들은 거짓말도 백번하면 진실이 된다는 믿음으로 괴벨스의 말을 철썩같이 믿고 행하고 있어요.

놀라운것은 그들의 자본과 인맥을 이용해 유나킴의 나라인 한국에도 몇몇의 발기자를 심어놓고 그들과 연계한 허위기사나 왜곡기사도 양산한다는거죠.

한심하게도 일부 한국인들은 그런 그들에게 놀아나기도 한다는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유나킴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와 자국 선수 띄우기에 골몰하는거죠.

으이구..유나킴이 지구에 온다는 사전 정보만 알았어도 우리 합중국을 선택하게 하는건데..

유나킴의 가장 아쉬운점은 국적이라는 말도 있더군요.

스컬리: 니뽕의 자국 선수 띄우기야 이해가 간다지만, 왜 남의 나라 선수까지 그리 깎아내릴까요?

멀 더 : 자신들이 전략 종목으로 채택하고 육성해온 피겨에서 어느날 갑자기 견제조차 않던 이웃나라에서 천재적인 선수 한명이 나타나 자국의 모든 선수들을 우월해 버리니 그 부러움과 아쉬움에 그러는 것 같아요.

한편으론 가지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선수인 유나킴에 대한 동경과 미움이 그런 행태로 나타나는거죠.

그래서 자국을 대표하는 선수인 아사다 선수를 그녀의 라이벌로 부각시키고 자꾸 띄워줌으로써 자신들의 선택과 육성이 옳았음을 입증하고 싶은거겠죠.

스컬리: 근데요, 멀더! 아사다 선수는 이번에 자국 선수권에서 비록 2 위라도 해서 월드 출전권을 따내긴 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영 실망스럽던데요.

그래도 그녀를 부활이다 뭐다 하면서 한껏 치켜세우다니 그들은 진심으로 믿는걸까요?

멀 더 : 사실 그들 속마음 깊숙한곳에선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진정한 세뇌의 시작은 바로 본인부터 속이는것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 그저 아사다 선수를 믿고 다시 매달리는거겠죠.

게다가 이번 니뽕 내셔널에서의 아사다선수는 스스로가 노미스라고 생각하고, 그리 높은 점수를 받고서도 불만족스러운 표정이던데..

아마 이런것과 맞물려서 니뽕 피겨계와 국가 전체가 그저 여태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또한번 도박을 벌여보려는 집단세뇌속으로 자신들을 밀어넣고 있는것같아요.

도대체 수행한 점프들 어디가 노미스라고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넘어지지만 않고 랜딩만 하면 노미스라고 생각하나봐요..그 나라는..

스컬리: 예고..괴벨스의 최후를 보면 알겠지만 선전과 세뇌의 추종자들은 모두 그 끝이 비극으로 끝나던데 말이죠.

과연 그 종막을 알기나 할까요?

멀 더 : 뭐, 다 자기네 믿고 싶은대로 행하고 선전하고 알면서도 따르는거겠죠.

내년 3월이 되면 판가름 나겠죠.

그나저나 니뽕은 유나킴이 외계인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할까요?

아무리 그녀를 의식하고 이기려해봤자 유나킴은 그저 자신의 작품만을 완성하고 관객과 교감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던데..

올림픽때도 그러했었죠.

스컬리! 아무튼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요 앞에 한식당이 개업했는데 비빔밥이 맛있더군요.

오늘은 특별히 내가 쓸게요!!

=====

스포츠조차 그저 승리가 최우선이라고 믿으며 몰상식한 행위조차 저지르는 옆국의 행태가 참 씁쓸합니다.

내년 3월에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관객과 교감하는 연기를 보면서 과연 피겨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을지 헛된 기대를 가져봅니다.

X-파일 29화 (발기자편) [21]

실버티어즈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5 | 반대 1 | 조회수 330 | 2010.12.28

“언론인은 다리 위에서 국가라는 배를 감시하는 사람이고, 그 자신의 임금이나 고용한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신문에 폭로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그 어떤 법률과 도덕보다도 더 많은 범죄를 예방한다.”

"항상 대중의 복지에 헌신하라. 항상 철저하게 독립적이어야 한다. 약탈적인 금권에 의한것이건, 약탈적인 빈곤에 의한것이건, 무엇이든 잘못된 일을 공격하는걸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 신문왕이라 불리는 조셉 풀리처 -

스컬리: 멀더! 얼마전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의뢰받은 사건 있죠.

건강 보조 식품업체인 '**melon**'라는 나스닥 상장업체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을 거절하는 바람에 지난 4월 23일 상장폐지됨으로써, 소액주주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해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를 촉구했던 사건 말이에요.

멀 더 : 아..기억나요.

가뜩이나 주가가 요동칠때마다 작전주 세력이 있었다는 첩보에 따라 흑여 불성실 공시나 주가 조작이 있었는지 조사에 들어갔던걸로 기억하는데요.

스컬리: 당시 나스닥 업체 대다수에 정밀 조사를 벌이던 중에 오히려 엔지니어링 업체인 **'Tristana'**사가 수사망에 걸렸는데요.

이 회사 홍보담당 직원이 인터넷 언론매체 기자들과 금품을 주고받은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입수했어요.

이 홍보직원은 지난 수년 동안 수시로 금품을 제공하며 인터넷 매체 소속 기자들을 관리해왔는데, 거래 내역중에 4만 달러가 넘는 액수가 나와서 해당 기자의 그동안의 기사들을 면밀히 조사했었죠.

멀 더 : 헐..기자라면 소명의식을 가지고 어떤 이익에도 흔들리지 말고 기사를 작성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스컬리: 그런 기자들이 드문 세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찌라시 언론이라고 다들 코웃음을 치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그래서 조사하니까 이 기자뿐 아니라 10명이 넘는 기자들에게서 주가 조작 혐의를 지우지 못하게 되더군요.

어떤 기자는 홍보기사를 작성해주고 받은 돈으로 BMW 자동차를 구입했고, 어떤 기자는 챙긴 돈으로 닛산의 인피니티 승용차를 구입했다고 나오고, 일부 기자는 골프채를 구입하기도 했더라구요.

멀 더 : 신뢰를 잃어버리면 회복하는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것을 알거나 하는지 모르겠군요.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큰 것을 잃는 어리석음이라니..

이래서 발기자 발기자 하는가보군요.

마치 한국의 언론행태를 보는 듯 하군요.

스컬리: 어머, 멀더! 한국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나보죠?

멀 더 : 내가 알기론 그쪽엔 코스닥인가 하는게 있던데, 아마 이런 유사한 사건이 일어난걸로 알아요.

거기다 그 나라는 더하죠.

가끔 유나킴 소식이 새로운것이 있나 하고 기사들을 검색할때가 있는데, 웃기는 기사가 너무 많더군요.

요즘 한국의 황금세대라 하면서 해외 유수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많더라구요.

우리가 NFL 에 열광하듯, 그들도 요즘 해외파 덕분에 프리미어 리그에 관심이 많던데..

가끔 한국출신 선수가 골을 넣으면 기사를 작성할때, 경기는 보지도 않고 그저 결과만 가지고 추측성 기사를 쓰는건 예사로 별이는 듯 해요.

얼마전 차두리랑 기성용 선수가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골을 넣었을때는 두 선수 모두 왼발로 슈트를 차서 골을 기록했는데도, 두 선수 모두 오른발 슈트로 골을 얻었다고 쓰질않나..

살짝 감아차기를 한걸 강력한 슈팅으로 묘사하질 않나 마구 상상에 의한 기사를 쓰더군요.

하일라이트만 봐도 제대로 쓸텐데 그러한 몇분간의 수고도 기울이지 않는가 보더라구요.

스컬리: 흠! 그럼 그렇게 써도 기자란 소릴 듣는단 말인가요?

참 기자되기 쉬운가 보네요?

멀 더 : 모르겠어요, 스컬리!

어떤 과정으로 채용되고 선발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들 기사를 보면 쉬워보이는 직업이더군요.

그래서 오히려 네티즌들은 일부 유저가 기자보다 낫다고 하면서 조롱하더군요.

게다가 유나킴에 대한 기사도 제대로 사실관계가 파악 안된 기사를 자기네 마음대로 작성하는가 하면, 한술 더 떠 옆나라인 재팬의 기사를 베껴와 그저 옮기는것에 더 할애하는 기자들도 많더라구요.

더우기, 자국 선수인 유나킴에 대한 기사는 금방 내려지고 옆국의 아사다 선수에 대한 사소한 기사들이 오히려 포탈 때문에 딱하니 걸린걸 볼때면 참 이해가 안가더군요.

스컬리: 뭐랄까..우리로선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커백션이 있는건가요?

남의 나라라서인지 뭐라고 할 말이 없군요.

멀 더 : 하긴 요즘은 진정한 언론인을 찾는게 우리 합중국에서도 드물잖아요.

그저 상업성과 명성만을 쫓는 기자들과 방송인들이 넘쳐나는 시대긴 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니뽕의 행태는 가히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는 극강의 포스를 보여주죠.

스컬리: 음..니뽕의 황색 언론은 익히 들어 알고있는데 또 뭐가 있나보죠?

멀 더 : 사실 스컬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나도 유나킴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나마 알았던 거거든요.

지난 밴쿠버 올림픽때 니뽕의 한 티비 프로그램이 심판들을 몰래 촬영하곤 마치 한국이 불공정한 채점을 유도한듯한 뉘앙스로 버젓이 방영하더군요.

객관성을 위하여 그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심판들을 대놓고 도촬해서 방영하는 뽕뽕함에 혀를 내두르게 되더군요.

그러더니 얼마전엔 유나킴의 연습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자국내에서 방송하였다는군요.

프로그램을 공개하기전까진 그 비밀을 엄격히 제한하는 서로간의 불문율은 아랑곳하지 않고 버젓이 몰카를 찍어대니 방송인으로서의 소명의식과 윤리의식은 어디에 있는지 모를 지경예요.

스컬리: 세상에!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졌었던 말인가요?

멀 더 : 그래요, 스컬리!

그저 자신들의 방송 시청률을 위한 상업적 목적의 도촬인지, 아니면 자국 선수들을 위하여 그네 나라 말로 **pakuri** 라는 盜作이나 모작을 위한 목적인지는 몰라도 분명 벌어진 일이에요.

뭐 이 정도면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로 막장중의 막장 방송이라고 할 수 있죠.

스컬리: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군요.

세상 누구보다 가장 신뢰성이 높아야 하는 직업이 기자나 언론인으로 아는데 이런 수준이라니..

얼 더 : 뭐, 다 자신들의 욕망에 직업의식도 팽개친 꼴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시원하게 웃을 수 있는 영화나 보러갈래요, 스컬리?

coolre 감독이 새롭게 메가폰을 잡고 **틸틸과 미틸**이 주연을 맡은 '**HelloFanny**'란 로맨틱 코미디가 요즘 인기몰이중이라고 하더군요.

우리 가서 가볍게 머릴 식히자구요!

사명감으로 무장하여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기사만을 써서 신뢰를 받는 진정한 기자들이 늘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글을 씁니다.

진흙속에 피어난 연꽃같은 기사를 찾는 감동보단, 제 기능을 다하여 이름만으로 기사의 신뢰도를 의심치 않는 언론들이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X-파일 30화 (김연아편) [46]

실버티어즈 [작영글 전체보기](#)

추천 39 | 반대 1 | 조회수 568 | 2010.12.30

聖: 탐관오리나 부정하게 모은 재물만 약탈하고, 후덕하거나 근면성실하게 축재한 사람의 재물은 건드려선 안된다.

智: 승산을 계산하고 착수하되, 돌발사태에는 임기응변으로 대처해야 한다.

勇: 침입할 땐 남보다 먼저 들어가야하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

義: 나을 땐 남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나중에 나오며, 붙잡혀도 동료들을 고변하지 않아야한다.

仁: 약탈한 재물은 공평하게 분배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두루 나눠줘야 한다.

- 大盜의 도리를 설파한 盜拓의 5 계 -

< 리츠 칼튼 호텔, 엘리베이터 안>

멀 더 : 스킨리!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429 호실이 맞나요?

그동안 마약 투약과 매춘 혐의로 추적하던 중 산업스파이 행적이 드러난 **sonia** 란 여성이 묵고 있는 룸이 말이에요.

스컬리: 맞아요, 멀더!

얼마전 자신이 에이즈에 걸려서 이미 병이 악화된 사실을 알곤 스스로 종적을 알리며 자수의사를 밝혀왔어요.

그동안 고급 콜걸로 활동하면서 日 무역 진흥회인 JETRO 에 고용되어서 백악관과 국회 고위직 인사들의 약점을 캐내서 넘기는 행위를 했으며, 가끔 중요 정보를 넘기면 수만 달러의 사례금을 받곤 했다고 그러더군요.

그녀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그녀 말대로 재팬과의 거래내역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얼마 전 거래가 단절된 정황이 엿보여요.

전화 목소리로 들어보니 어딘가 신경이 불안해보이던데 어서 신병 인수를 해야겠어요.

멀 더 : 바로 신원 확인하고 동행하도록 합시다.

스컬리: 이런, 미안합니다.

바쁜 마음에 빨리 나가려다 부딪혔네요.

룸메이드: 죄송합니다..

<리츠 칼튼 호텔, 429 호실 >

스컬리: 똑똑..소니아양! FBI 에서 나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신변 보호 요청을 하셨기에 지금 요원과 같이 나왔습니다.

멀 더 : 비켜봐요, 스컬리!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강제로 열고 들어가봐야겠어요.

스컬리: 앗! 멀더..그녀가 위험해요.

다량의 코카인을 한꺼번에 흡입하여 쇼크상태인 것 같은데요.

빨리 911 에 신고해야겠어요..

신병을 비관한 자살시도일까요? 아무리 중독되었어도 이런 치사량을 한꺼번에 들이키진 않는데 말이죠..

멀 더 : 이런, 스컬리!

아까 그 메이드예요...빨리 쫓아가보죠.

.

.

.

<2 시간 후, FBI 본부>

스컬리: 그녀는 좀전에 결국 쇼크사했다고 하더군요.

호텔측에선 그런 행색의 메이드는 고용한 적이 없다고 알려왔구요.

아무래도 멀더의 예상대로 킬러가 변장하고 와서 범행을 저지른 것 같아요.

멀 더 : 역시나로군요..어쩐지 철저하게 교육받은 메이드가 손님들이 미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기도 전에 타려는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게 수상했어요.

아무래도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이 아닌 것 같군요.

스컬리: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로군요, 멀더?

흠..cctv 에 드러난것은 변장한 모습이라 신원을 알아보기가 힘들텐데..

아무래도 수사가 힘들어지겠군요.

이번 사건..다시 생각해봐도 찻의 소행같죠?

멀 더 : 심증뿐이지만 정황상 그렇다고 보는게 유력하겠군요.

이미 합중국내에서 벌어지는 대다수의 산업스파이 활동은 차이나와 재팬의 소행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과의 기술분쟁과 소송도 상당수 진행되고 있죠.

스컬리: 요즘 차이나가 짝퉁의 대명사처럼 불리우지만, 원래 모방하면 재팬이었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어쩌다 하면서 세계의 우수 기술을 모방하면서 지금의 경제 대국을 이루었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언제나 지적받는것이 그런 모방에서 새로운 창조로 나아가는것은 드물었다는거죠.

늘 남들이 선점한것을 발빠르게 모방하고 교묘히 조작하는 행태는 아직도 나아진것이 없을 정도로요.

특히 산업기밀을 빼가는 행위는 거의 범죄수준일 정도니까요.

멀 더 : 껌들은 흔히 남들에게 피해를 안주고 도덕과 양심이 바른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형편없는 나라인 것 같아요.

자신들의 이익에만 부합된다면 어떤 것도 저지르죠..그들의 모작이나 도작은 말할것도 없구요.

한가지 말해줄까요, 스컬리?

스컬리: 원데요, 멀더?

멀 더 : 요즘 한류 열풍이 불면서 널리 K-POP 이 인기를 끌고 있죠.

그중에 SNSD 란 걸그룹이 있는데 니뽕에서도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녀들의 컨셉에 맞춘 안무때문인지 다리가 이쁜 그룹이다해서 '미각그룹'이라며 부르더군요.

그런 인기를 등에 업고 그녀들이 얼마전에 본격적으로 니뽕에 진출했을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줄 알아요?

그녀들의 히트곡중 '소원을말해봐'란 노래가 있는데 짧은 해군복장에 각선미가 강조되는 춤이 유명해요.

근데 니뽕의 SOD 란 성인비디오 회사에서 그 그룹의 복장과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해서 '미각전설'이란 타이틀로 성인 AV 를 제작했을 정도라구요.

이쯤되면 찻들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스컬리: 세상에..그런 짓까지 태연히 저지르는 나라였군요.

멀 더 : 게다가 어제 내가 말했죠.

유나킴의 비밀훈련까지 몰래 촬영해서 방영하는 방송국까지 있다고.

심지어는 사전에 허락을 받은 촬영이었다고 태연하게 거짓해명까지 했다는군요.

그게 진짜 자신들 시청률을 위한 도촬인지, 아니면 자국 선수들을 위한 훈련내용의 빼내기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로선 살짝 의심도 되는군요.

어차피 편집본을 방영하는거니 문제가 생겼을때 최소한의 발뺌을 위한 내용만을 방송했을수도 있어요..그런 쪽으론 워낙에 교활한 찻들이니까요..

스컬리: 아..그래서 유나킴의 소속사가 강력하게 항의하는거로군요.

하긴 아사다선수는 커텐까지 치고 그 안에서 비밀리에 훈련했을 정도라죠?

그런데도 그런 피겨계의 불문율을 깨고 도촬하는 양심이라니 할 말이 없군요.

얼 더 : 웃기는건 한국의 일부 누리꾼은 그까짓 훈련모습 공개가 뭐가 문제냐고 하거나, 그동안 제대로 된 훈련모습을 공개안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거라는 소릴 하더군요.

어디까지나 선수측의 의지에 따라 벌어지는 훈련을 감놔라 배놔라 하는것도 우습지만, 시즌 전 다른 나라 선수들이 연습 공개해야한다고 목소릴 드높인걸 못본 것 같은데 말이죠.

왜 유독 유나킴에게만 가혹한건지..그게 다 정상에 선 자의 어려움일까요?

난 이번에 그녀 소속사가 보여준 강력한 항의도 확실히 그녀의 위치에 따른 파워를 보여준거라고 봐요.

그녀의 나라를 보세요.

얼마전 차이나의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하다가 단속하는 한국 해경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다 잡혔었던 적이 있는데, 차이나 정부의 강한 항의에 찌소리 못하곤 벌금조차 물리지 못하고 불기소 처분하여 모두 송환시켰더군요.

그건 무죄방면이라는건데 그럼 다음엔 어떻게 불법어로를 단속하겠다는건지..

현장에서 폭력에 맞서가며 법을 집행하던 일선 해경들로선 힘빠지는 일일수밖에요.

엄연히 정치적 파워게임에서 밀린거예요.

이런 글로벌 호구짓을 당하는 자국인데다 빙상연맹조차 관심이 없으니, 비밀 언덕이 없는 유나킴으로선 소속사 차원에서라도 강하게 경고하는거죠.

피겨계에서 권의 위치를 공고히 하였기에 각국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하는거라고 봐요.

피겨도 무척이나 정치적인 스포츠인데, 국가나 연맹의 도움이 없어도 그녀의 위치쯤 되면 이런 불법 촬영과 방송은 충분히 이슈화되고도 남죠.

게다가 올해 여싱들의 연기에 실망해서 내년 월드의 쿼연아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피겨 관계자와 팬들에게 월드 출전을 불모로 강하게 경고한다는건 ISU로서도 그저 외면하게만 하지는 못하겠죠.

적어도 니뽕의 조직적인 흔들기를 원천 봉쇄할 순 있다고 봐요.

아무튼 나로선 정당한 대응이라고 봐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피겨계에서라도 팩스 유나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러면 유나킴같은 기술과 예술의 조화로운 피겨가 대세를 이룰테니까요.

스컬리: 멀더! 또 유나킴 이야기 나오니 흥분하는군요.

알았어요..그보다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니뽕의 가혹한 증거인멸때문에 산업스파이
증인이 확보되지 못해서 국장님께 혼나겠군요.

일단 보고서 작성하러 가죠!

X-파일 31화 (막간담화) [50]

실버티어즈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4 | 반대 3 | 조회수 359 | 2010.12.31

멀 더 : 스컬리! 그나저나 우린 언제까지 출연해야 하는걸까요?

처음엔 유나킴의 기사를 보고 닉시성 상황극에 단발 출연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새 30 화까지 고정출연을 하고 있군요.

스컬리: 그러게 말이에요, 멀더!

사실 이렇게 오래 출연할줄은 몰랐는데 말이죠.

거의 매일 출연하다 보니 요즘은 좀 피곤한지 화장도 잘 안 먹는것 같더군요.

스타일리스트가 피부 관리 좀 하라는데 그럴 시간이 있어야 말이죠.

연일 강행군인데..

멀 더 : 이게 다 분석실의 Dr.anitya 님 때문이에요.

분석실에서 X-파일 음악을 틀어놓지만 앉았어도 우리가 출연할리는 없었을텐데 말이죠.

게다가 한 회로 끝날것을 계속 출연하라고 압력을 넣는 바람에 이리 된거라구요.

어..저기 Dr.anitya 님이 마침 오시는군요..

anitya: 하이요~멀더! 스컬리!

요즘 두 분 요원 활동 잘 보고 있어요.

분석이 끝나고 쉴 때마다 틈틈이 보고 있습니다.

스컬리: 저희는 그래서 힘들어 죽겠거든요.

정보통에 의하면 이게 다 애니샤님에서 비롯된데다 매일 독촉한 결과라고 하던데요.

anitya: 노노! 천만의 말씀!

저야 단초를 제공한 것 밖에 없죠.

저보다는 금장디님때문입니다..A-50 행성을 쯔마박사와 함께 팀을 이뤄서 발견해내곤 어느새 은퇴하셔서 지금은 출판사 편집장으로 자리를 옮기셨더군요.

천문지리학 관련 책을 감수하거나 하시면서 X-파일 극본 관리까지 하시니 대단한 분이죠.

쯔마님, 그렇게 생각치 않으신가요?

쯔 마 : 맞아요..전에는 함께 팀을 이뤄서 우주를 관측하고 연구를 했었는데..

어느새 출판계로 옮기시더니 대본관리까지..

덕분에 저만 홀로이 연구하려니 힘들어 죽겠다구요.

다행히 이번에 새로 옮긴 천문대 분위기가 좋아서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금장디님 어디 계시죠?

구석에 계셔도 그 포스가 남달라서 눈에 댈텐데 말이죠..

금장디: 오훗훗! 다들 제 애길 하고 계셨던가요?

얼마전에 당첨된 월드 쇼트 티켓 오는대로 코팅하려고 문구사에 주문 좀 해놓느라요..

그나저나 X-파일 작가는 어디 있나요?

워 요즘은 알아서 연재를 잘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왕 닦아온 눈빛신공 좀 발휘할까 하는데..

그나마 당첨 주문 외워준 덕에 요즘 살짝 풀어주긴했지만요..우훗!

Mrs.bany: 하음..모두 여기 모여계시네요..

요즘 고서적을 너무 붙들고 있었나봐요..시력이 너무 약해져서 아직도 고생이네요.

감기에 눈까지..총체적 부실이라니..

여러분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세요..

그나저나 오늘 여기서 뭐하는거예요?

얼마 전 일토방 시상식도 끝난걸로 아는데 말이죠.

비 니 : 저도 아직은 목감기가 남아서 고생인데..어서 나으셔야죠!

그냥 뭐 한 해가 저물어가는게 아쉬우니 이렇게 모여서 뒷담화중이에요.

사악한 작가나 좀 씹어볼까 하구요.

전 7 화에서 스컬리의 머리를 장식한 모자로 출연해서 대화분량도 없었다구요.

작가는 언제 나오나요? 좀 따져야 하는데..

lorien: 푸하하하! 그래서 바로 조공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 대본에서 중국 출장도 다녀온데다가 엑스파일 음악과 사진도 한번 올렸다고 가끔 여는 음악살롱 로리엔의정원도 소개해주던걸요.

이게 바로 짬짜미런가요? ㅎㅎ 사실은 운동종목에선 퇴출되어야지만 말이죠.

그나저나 멀더는 정말 춤을 못추더군요.

그렇게나 발을 밟아대는걸 보니 스컬리가 불쌍할 정도더라구요.

어때요? 이따가 제 정원에 놀러와서 스텝이라도 맞춰보는게?

멀 더 : 아..그게 제가 몸치인데다 좀 시간이라도 나야 몸치탈출을 할텐데.

매일 여기 출연중이라 여유시간이 없으니 더한거라구요.

근데 실비아 부국장님은 어딜 가신거죠?

가끔 모두 회의에 참석 대기중일때면 확하고 나가시던데 말이죠.

부국장실이 자주 열려야 좋은데..

실비아: 아..미안요...가끔씩 이끌려서 곱창같은 야식을 먹고 오느라 말이에요.

아님 급하게 마사지를 받으러 가느라고..

음..앞으론 자주 부국장실을 개방하도록 하죠.

하지만..전 소심해서리..가끔 생각날때만 연답니다..

여러분 모두 이해해주실거죠?

스컬리: 아뇨! 사실 FBI 에서 부국장실만큼 편한 곳이 없거든요.

자주 좀 개방해주시죠! 요원들 사기진작도 되게요..

근데 국장님은 같이 안 오셨나요?

실비아: 아..내년 배정된 예산이 더 줄었다고 한탄하시며 머릴 부여 잡으시던데..

아마 곧 오실거예요..아! 저기 오시네요..

볼트인: 여러분! 다 모여 계셨군요.

에효..올해도 예산때문에 속을 썩었는데 내년엔 더 긴축재정을 해야할 판이군요.

멀더와 스컬리는 출장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두 요원때문에 더 골치가 아파서 탈모까지 올 지경이라구요.

이러다간 소림사에 출가해야할지도 몰라요.

아님 이 기회에 은퇴하고 여유롭게 시작에나 몰두할까봐요.

여행과 음악과 시가 참 그립군요..

응? 저 분은 황야거사님이 아닌가요?

할랑한들넵: 어허허! 볼트인님의 관상을 보아하니 전생에 소림사 방장을 역임하셨구려.

연말을 맞이하여 제자 해밀과 시간을 거슬러 오니 여러분까지 뵈는구려.

모두 반갑소이다..요즘 신경쓰는 일이 있긴하지만 여러분을 만나니 기운이 솟습니다.

해 밀 : 멀리서도 여러분의 활동을 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들 중심을 잡고 애써주시니 참 좋더군요.

이상형: 무슨 말씀일요..선뜻 나서기 힘든 길을 앞장서시는 두 분이 있어서 그나마 밝은 내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며 두 분의 건승을 기원할 뿐입니다!

응? 그런데 저기 오는 분은 권연아 아닌가요?

권연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말을 맞아 여러분께 이리 인사 드리러 왔습니다.

언제나 절 응원해주시고 성원해주셔서 감사했구요.

지금 열심히 훈련중이니까 3월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뵈게요.

모두 행복하시고 즐거운 연말연시 보내세요!

일 동 : 감사합니다! 연아 선수!

연아양도 언제나 행복하시고 기쁜 나날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멀 더 : 응? 잠깐만요..지금 유나킴 목에 걸린 저 목걸이 혹시 그 은루 아닌가요?

날마다 날 굴리느라 요즘 이를 갈고 있었는데 잘 만났군요.

누군 매일 출연시켜서 굴리면서 지금 혼자 유나킴 목에서 찰랑이고 있는건가요?

실버티어즈: 워~워~~ 진정하세요, 멀더!

지금이야 비록 악세사리 신세지만 어디까지나 저의 진실한 정체는 메탈아머라구요.

그러니 이곳이 제가 있을 자리인거죠..음하하하!!

앗? 주먹 쥐지마세요~~

아무튼 이리 모여계시니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 드립니다!

모두 연말 즐겁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도 희망차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

한 해 동안 연아양과 멋진 팬분들 덕분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막간 담화에 출연 못하셨지만 이전 글들에 출연하셨던 고마운 댓글러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늘 애독해주시는 여러분께도요..

모두 내년에도 연아양과 더불어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한 이삼일 정도는 연재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연초에 찾아뵙겠습니다..모두 건강하세요^^

X-파일 32화 (김연아편) [55]

실버티어즈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31 | 반대 4 | 조회수 453 | 2011.01.03

<< 나무의 의사 소통 방식 - 아프리카에는 놀라운 특성을 보여 주는 아카시아나무들이 있다. 그 나무들은 영양이나 염소가 자신을 뜯어먹으려 하면 제 수액의 화학적 성분을 독성으로 변화시킨다. 동물은 나무의 맛이 달라졌음을 깨닫고 다른 나무를 뜯어먹으러 간다. 그러면 이 아카시아나무는 즉각 냄새를 발산하여 근처의 다른 아카시아나무들에게 약탈자의 출현을 알린다. 몇 분 만에 그 주위의 아카시아나무들은 모두 동물들이 뜯어먹을 수 없는 것들이 되고 만다. 그러면 초식 동물들은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난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탓에 경보 신호를 감지하지 못한 아카시아나무를 찾아가는 것이다.>>

-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中에서 -

멀 더 : 스킨리! 비상상황이에요.

지금 바로 의회 의사당으로 출동해야합니다.

방금 비행제한공역으로 설정된 의회 건물 주변으로 무전이 두절된 항공기가 접근중이래요.

혹시 테러리스트에 의한 하이재킹과 테러 기도가 있을지도 모르니 준비를 갖추도록하구요.

스킨리: 빨리 가도록 하죠..해당지역에 연락은 취했나요?

이거 신년 벽두부터 장난이 아니군요..

멀 더 : 일단 의사당과 상하원 건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피신시키도록 비상 소개령을 발령했어요.

지난 번 9.11 테러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으니까요.

스컬리: 그럼 테러를 대비한 항공타격대는 출동했나요?

멀 더 : 제한구역으로 비행기가 진입하면서 바로 항공우주방위사령부(NAADC)에서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있던 F-16 전투기를 발진시켰다고 하네요.

스컬리: 멀더! 서두르도록 하죠.

빨리 가서 주변 지역 교통을 통제하고 주민 소개가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살펴야겠군요.

.

.

.

멀 더 : 스컬리! 문제의 항공기는 레이건 공항에 무사히 착륙했나요?

방금 비상 소개령이 해제되는걸 보니 사건이 마무리된 것 같은데..

스컬리: 그래요, 멀더!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힐튼 헤드를 떠나 의회 인근의 레이건 공항으로 향하던 피드몬트항공 4352 편이 공항에 접근할 무렵 관제소와의 무선 연락이 끊어진 채 의사당 방면의 제한 공역을 향하면서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하더군요.

무선 접촉이 끊어진 구체적인 사고경위는 조사중이라고 하네요.

멀 더 : 마지막까지 연락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무고한 피해가 생길뻔 했군요.

최악의 경우 전투기에 의한 공중격추를 시도했어야만 하니까요.

이래서 현대사회에서 소통의 부재란 가끔 비극을 초래한다니까요.

스컬리: 어쩌면 인간의 모든 분란과 비극은 원활하지 못한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신이 사람들의 언어를 다르게 함으로써 서로 배척하고 흩어졌다잖아요.

인간을 불신과 파멸로 모는것은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곤란이 아닐까요?

멀 더 : 내 생각도 그래요, 스컬리!

바벨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혼란'이란 뜻이라죠.

혹은 bab(문)과 el(신)의 합성어란 학설도 있던데..

그렇게 따져도 신과 소통하는 고대의 종교적 정치적 수단이 무너지므로써 당시 사람들의 계층간 집단간의 반목이 이뤄졌다고 해석할 수도 있죠.

현대사회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간, 민족간의 관용과 이해가 부족한 소통의 일방성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다고봐요.

한 나라안에서도 각 정치집단이나 국민들의 소통의 부재가 혼란을 초래하는 것 같구요.

스컬리: 특히 현대인의 질병이라는 고독이 팽배해있는 요즘의 사회에서는 대화의 단절이 부르는 사건 사고가 참 많아진 것 같지 않아요, 멀더?

멀 더 :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는 현대인의 고독을 두 가지로 정의했다죠.

첫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고독하다고..

즉, 현대문명의 가치속에 자신의 인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스스로 고독을 초래했다고 보는거죠.

둘째로는, 자기를 내어 줄 만한 대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경우이구요.

즉, 믿고 의지할만한 대상이 없어서 개인주의가 더 커지기 때문이라는거죠.

그래서 유럽에서도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거의 10 명당 2 명꼴이라는군요.

스컬리 : 전통적인 권위로부터 해방되었지만, 대신 고독과 공포를 얻었고 그래서 모든것을 자신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것이 현대인들이 군중속의 외로움을 얻게되었다는거군요.

멀 더 : 그래요, 스컬리!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원인이죠.

그러한 현대인의 질병을 가속화하는 산업화에 대한 반동으로 경종을 울리려했던 시어도어 카진스키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사람조차도 자신만의 사상에만 경도되어서 일방적인 주장과 테러로 대중을 공포로 몰아넣었을뿐이지만요.

스컬리: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다잖아요.

스스로 그런 고독의 무덤속에 빠지기보단 이웃과 사회와 서로 소통하면서 밝고 긍정적인
면으로 자신의 중심을 지켜야만 하겠죠.

그래야 개인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회도 더욱 행복해질테구요.

멀 더 : 문제는 그러한 서로간의 소통이 갈수록 원활해지지 못한다는것에 있죠.

그런 면에서 난 그저 바라만봐도 아름다워지고 서로간의 파장을 느끼게 하는 유나킴의 피겨에
빠져드는건지도 모르겠어요.

스컬리: 하긴 멀더 당신때문에 나도 유나킴의 영상을 접했지만 볼수록 찬탄하게 되고 그
작품속의 연기에 공명하며 함께 호흡하는 느낌이더군요.

멀 더 : 그래요, 스컬리!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토록 유나킴의 연기에 열광하는걸거예요.

서로의 언어가 달라도 같은 느낌을 공유하게 되는 소통과 호흡의 교감을 얻게되기 때문예요.

그녀의 연기를 보다보면 우리가 그저 무심히 지나치곤 하는 아름다움을 쉽게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가슴을 울리는 음악과 연기가 하나로 어우러져 탄성을 절로 내뱉게 되구요.

스컬리: 그것이 바로 스포츠의 감동과 예술의 위대함이 아닐까해요.

얼 더 : 스컬리! 그래서 난 소망해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연기를 보면서 잃어버린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고, 함께 느끼는 감동과 교감의 여운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개인이라는 도심속의 섬을 이어주는 가교와 같은 그녀의 연기를 보면서 시기와 이기심은 잠시 묻어두고 웃음과 행복이 좀 더 퍼지길 말이에요.

새해엔 그런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길 소망합니다!

=====

작년 한 해엔 서로간의 소통의 부재와 불신이 키운 참담한 비극도 경험했습니다.

좀 더 소통하고 진심을 전하는 사회가 되어서 이 나라에도 평화가 어서 찾아오길..

그리고 일방통행만을 부르짖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교감하는 정부가 되길..

게시판도 서로 존중하고 아름다움을 향유하는 깨끗한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행복과 기쁨 넘치는 나날이시길!!

X-파일 33화 (게시판편) [33]

실버티어즈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32 | 반대 4 | 조회수 403 | 2011.01.04

<< 지금부터 천년 전 신라시대 거령현, 오늘 날의 영천면 지사리에 金蓋仁이라는 郎子(총각)이 살고 있었다. **김낭자**는 개를 한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그 개를 몹시 사랑하였으며 어디든 개를 데리고 다녔다. 늘 개를 아끼며 생활하였고 그 개도 충심으로 그를 따랐다.

그러던 어느해 이른 봄 그는 개를 데리고 장이 선 마을로 놀러나갔다. 원래 술을 좋아한 그는 그 날도 친구들과 술잔을 주고받다 그만 날이 저물었다. 술에 취한 채 집으로 가다가 몸을 가누지 못해 그만 들판에서 잠이 들어버렸고, 개는 주인이 깨기만을 기다리며 쫓그리고 앉아 주위를 살피면서 지키고 있었다.

마침 들에 불이 나서 번져오고 있었다. 개가 다급하게 주인을 물고 밀치며 깨우려 노력해봐도 술에 곪아떨어진 주인은 주위의 불길도 느끼지 못하고 잠에 취해있었다. 뜨거운 불길이 점점 다가오기 시작하자 개는 근처 냇가를 찾아 쏜살같이 달려가 온몸에 물을 흠뻑 묻혀와 잔디를 적시기 시작했다. 수십수백번을 이렇게 왔다갔다하자 잔디는 물에 젖었고 써늘함을 느낀 주인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힘이 쏙 빠진 개는 주인의 옆에서 쓰러져 죽고말았다. 주위를 둘러본 후 사건의 전말을 알게된 그는 몸을 바쳐 자기를 구해준 개를 부여안고 크게 원통해 하였다. 주인은 개를 장사지낸 뒤 그 곳을 잊지않기 위해 평소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아두고 자리를 떠났다.

얼마 후 지팡이에 싹이 돋기 시작하더니 커다란 느티나무로 자랐고 그때부터 그 나무를 獒樹라 하였고, 그것이 고장 이름으로 정착되었다. 그 개의 충심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되었던 義犬碑는 문자마저 마멸되어버려 1955년에 다시 건립되었고, 이 뜻을 전국에 알리기 위하여 면의 명칭도 둔남면에서 오수면으로 1992년 8월 10일 바뀌게 되었다.>>

- 오수 마을 의견 전설에서 -

멀 더 : 스킨리! 굳이 안 따라와도 되는데 말이죠.

감기에 심하게 걸려있을땐 폭 쉬는게 회복에 더 빠르다구요.

스컬리: 쿨럭! 하지만 우리 파트너인데 멀더 혼자만 고생하게 할 순 없잖아요.

길이 멀다고 이 정도에 쉬어서야 베테랑의 체면이 안서죠.

멀 더 : 체력이 약해있을땐 면역력이 더 떨어져서 힘들어진다고요.

단순히 UFO 를 봤다는 신고때문에 확인 차 가는건데 스킨리가 고생하는군요.

스컬리: 과연 그 제보가 정말일까요?

요즘은 그런 신고들이 대부분 허위로 밝혀지곤 했잖아요.

게다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네브라스카 오마하 지역은 구제역이 퍼져서 방역 작업과 도축으로 난리도 아닌데 괜히 병원균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멀 더 : 일단 가서 확인해봐야겠지만 직접 목격한데다 사진까지 촬영했다니 진술을 들어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동식물방역청(APHIS)에서 최선을 다해 방역에 힘쓰고 있다니 조만간 진정이 될지도 모르죠.

돌아오는 길에는 소독하고 나오면될거예요.

스컬리: 그래요, 멀더! 이번 목격자는 고등학생이라죠?

갑자기 이상한 물체가 하늘을 나는걸 보고 사진까지 찍었다고 하던데..

앗! 멀더...조심해요.

멀 더 : 이런..하마터면 사고를 낼뻔 했네요.

그런데 이런 한적한 도로에 웬 개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보아하니 목줄까지 걸려있는게 유기견이나 야생견같진 않은데..

스컬리: 멀더! 유심히 봐요..

저 개 마치 우리가 따라오길 바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조금 가다 멈춰서서 쫓고 다시 와서 쫓고 그러잖아요.

멀 더 : 흠..그렇게도 보이는군요..잠시 따라가보죠!

이봐! 어딜 자꾸 가는거니? 그쪽은 비탈길 아래로 그저 옥수수밭만 펼쳐져있는데..

스컬리: 멀더! 저기 차가 전복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 개의 주인이 저 안에 있는것같군요.

.

•
•
멀 더 : 어때요, 스컬리?

운전자는 이제 깨어났나요? 부상정도는 어떻다고 하던가요?

스컬리: 다행히 에어백이 큰 부상을 방지했지만 갈비뼈 두대가 골절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이 개 덕분에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에요.

운전자가 의식을 잃어서 오래도록 방치되었으면 위험할 뻔 했거든요.

자신의 농장에 구제역이 발생하였다는 소식에 급히 돌아가다가 사고가 났다더군요.

지금 보호자가 오고 있어요.

멀 더 : 정말 다행이군요.

확실히 이 개가 주인을 구했네요.

우리도 그저 무심히 지나칠 뻔 했는데 말이죠!

그런거보면 사람들은 흔히 개에 비유하여 욕을 하곤하지만, 개처럼만 충직하고 올곧게 살아도 오히려 인간세상은 더 아름다워질거예요.

스컬리: 그렇죠..사실 애꿎게 욕때문에 개의 이미지가 흐려져서 그런거지 개들은 한결같죠.

이 개를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건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개보다 못한 사람은 되지말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요.

X-파일 34화 (김연아편) [16]

실버티어즈 [작영클 전세보기](#)

추천 27 | 반대 2 | 조회수 380 | 2011.01.05

THE FIRST KIND : SIGHITING (목 격)

THE SECOND KIND : EVIDENCE (흔 적)

THE THIRD KIND : CONTACT (접 촉)

THE FOURTH KIND : ABDUCTION (납 치)

- 천문학자이자 UFO 연구가인 앨런 하이벡의 4종류 외계인 근접조우 방식 -

멀 더 : 스컬리! 감기는 어때요? 빨리 돌아가서 쉬어야되지 않겠어요?

먼저 돌아가서 이 소년이 찍은 UFO 사진이나 감정해보던가해요.

스컬리: 아니에요, 멀더!

그냥 같이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죠.

이곳 네브라스카주 오마하 지역에서 요즘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는데 그에 관한 증언도 마저 들어보구요.

멀 더 : 그렇지않아도 그때문에 좀 더 머물러야 할 것 같아요.

이 지역은 옥수수농장과 육우 농장이 많은 지역인데, 농장주 몇명이 이상한 경험을 했다더군요.

스컬리: 내가 들어본것도 그래요, 멀더!

멀더가 들은 내용도 농장에 훔쳐온 복장의 누군가가 한밤중에 방문했다던가요?

멀 더 : 맞아요, 스컬리!

깊은밤에 낯선 누군가가 문을 두드려 나가보니 눈부시게 환한 빛이 비추었다고 하더군요.

그 빛속에서 벌거벗은 상의에 거친 쇼울을 두른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나 말을 걸었는데...

민 머리에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던 것 같더군요.

스컬리: 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혹시 외계인일까요? 들어본대로만 몽타주를 그리면 마치 어릴때 본 영화 E.T 같기도 한데..

멀 더 : 글썄요..증언이 구체적이진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 E.T는 아닌 것 같아요..

머리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던걸요.

게다가 손가락을 뻗쳐 접촉한게 아니고 인간의 언어로 말까지 했던데..

스컬리: 어떤 통역장치를 썼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요, 멀더! 혹시 당신이 들은 내용도 같은건가요?

요즘 금이나 다이아몬드와 교환하느라 옥수수가 부족해서 왔다면서..

"순순히 옥수수를 넘긴다면 유혈사태는 벌어지지 않을겁니다"라고 했었던데요.

멀 더 : 맞아요, 스컬리!

그렇게 말했다더군요..어이없어서 쫓아내고 보니 다음날 농장의 옥수수가 모두 못쓰게 되었다던데.

그래서 지금 해당 농장들을 방문해보려고 해요.

스컬리: 희한한 상황이군요..다들 같은 경험이라니.

혹시 헐벗은 입성의 옥수수강탈자인건가요?

멀 더 : 모르죠..일단 조사를 마쳐보고 판단해야겠죠!

가봅시다, 스컬리!

.
.
.
.

스컬리: 멀더! 아까 제가 가본 해당 농장들 모두 옥수수를 수확하지도 못할 정도로 망가졌더군요.

게다가 지역 경찰에게 부탁하여 항공사진을 촬영했는데..

이상한 게 발견되었어요..이걸 좀 보세요, 멀더!

멀 더 : 흠..이건 미스터리 씨클같군요.

외계우주선이나 외계문명의 흔적같은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이 지역 사람들이 겪은건 외계문명과 의 조우인걸까요?

어쨌든 이 사진에 나타난 미스터리 씨클의 장소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과학적으로 조사해봐야겠군요.

인위적으로 깎아서 남긴 흔적인지 아니면 열기나 규명할 수 없는 무언가에 의해 남겨진 흔적인가를 알아봐야겠어요.

스컬리: 저기..멀더! 근데 한가지 말해주고 싶은게 있어요.

이건 그 농장주들의 가족에게 들은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혼자서 따로 조사해봤거든요.

멀 더 : 원데요, 스컬리?

스컬리: 가족들에 의하면 그 농장주들이 요즘 게임에 푹 빠져있었다더군요.

알아보니까 '시드마이어의 문명 5' 라는 게임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게임중에 나오는 캐릭터와 증언 내용중의 존재가 비슷해서 말이죠..

게다가 대사까지 말이에요.

멀 더 : 게임의 캐릭터라구요, 스컬리?

도대체 누군데요?

스컬리: 이런 말 우습지만 마하트마 간디라더군요.

그 게임속에선 be 폭력주의자로 묘사된다는데..

요즘 농장일도 거의 손놓고 게임에만 몰두했다네요.

마치 멀더 당신이 연느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가는줄 모르듯이, 그 게임도 시작하면 문명 타임머신에 탔다고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여서 중독성이 강한 게임이라더군요.

혹시 이 사람들 게임에 너무 빠져 일도 안해서 옥수수가 망가지고 게임과 현실도 구분못하는건 아닐까요?

아니면 수확기를 놓친 변명으로 한두명이 말한게 유행처럼 퍼진걸지도요.

멀 더 : 흠! 그럴수가..그렇다면 이 미스터리 씨클은 어찌된걸까요?

스컬리: 그저 우연의 일치겠쥬.

아니면 게임에 빠져 지나다 늦게나마 남은 옥수수만을 수확하고 보니 트랙터가 지난 흔적이 묘한 문양을 그려내서 마치 미스터리 씨클처럼 보이던가 말이쥬.

멀 더 : 정말 그런걸까요, 스컬리?

난 이번에는말로 외계인과의 조우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진지했었는데 말이쥬.

게임에 너무 몰두해서 벌어진 착각의 결과라니..

하지만 여러명의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걸까요?

스컬리: 어머! 멀더..당신이 유나홀릭인건 어떻게 설명할건가요?

당신도 모든걸 권연아와 연관지어 생각하거나 늘 유나킴의 영상에 빠져있으면서 말이쥬.

거기다 당신과 내가 연느 타임머신을 경험해봤듯이 중독적인 무언가가 있었겠쥬.

멀 더 : 오~스컬리! 그건 아니라고요.

난 그저 외계인을 추적하다보니 상상이상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권연아의 존재가 눈에 들어온 것 뿐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눈 달린 생명체라면 어찌 그녀의 연기에 감탄하지 않겠어요.

전 지극히 정상이라구요..

스컬리 : 아무튼 어서 본부로 돌아가서 이 사진의 진위여부나 알아봐야겠어요.

어서 가죠, 연아홀릭커님!

X-파일 35화 (히어로편) [18]

실버티어즈 [작영클 전제보기](#)

추천 25 | 반대 4 | 조회수 324 | 2011.01.06

<<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올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앎이라..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

- 데살로니가 전서 5 장 1 절부터 3 절까지 -

스컬리 : 멀더! 어제 AFP 통신을 보니 스웨덴 팔세핑 지역에서 갈가마귀 100 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채 눈 쌓인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고 하네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조사중이라고 하던데 얼마전 국내에서의 새떼 죽음과 무슨 연관이 있는건 아닐까요?

멀 더 : 글쎄요..구랍 31 일 밤에 아칸소 주 비브市에서 수천마리의 찌르레기가 떨어져 죽은것도 아직 명확히 규명된 것은 아니니 뭐라 연관짓기가 힘들 것 같네요.

다만 아칸소주를 지나간 강한 폭풍에 의한것이거나, 아니면 오래 지속된 폭죽놀이에 의한 폭음과 불꽃에 의한 건물과의 충돌에 따른것으로 추측한다는데..

이런 종류의 떼죽음은 통상적으로 제대로 규명하기가 힘들다더군요.

스컬리: 2 일에는 아칸소강에서 8 만에서 10 만에 달하는 물고기 떼죽음도 있었고, 어젠 루이지애나주 푸앳트 쿠페이 패리市에서 붉은어깨찌르레기 약 500 마리가 또 도로에 떨어져 죽어있는걸 발견했다잖아요.

뉴질랜드에서도 북섬 코로만델 지역에서 4 일날 여름 휴가를 즐기던 사람들이 해변에 떼지어 죽어올라온 도미떼를 발견했다던데.

혹시 이렇게 다 종말의 징조가 아닐까요?

멀 더 : 아칸소강에서 죽은 물고기들은 한 어종에만 국한되었기에 전염성 질병에 의한것으로 추정되고, 비브시와는 200km 이상 떨어져있기에 연관성은 없어보여요.

그리고 새떼나 물고기 떼죽음이 반경 몇 키로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구 전체의 무슨 징조로 단정하기엔 우리가 있다고 봐요.

그런 떼죽음에는 먹이부족과 폭풍, 질병, 살충제, 인공구조물과의 충돌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갈수록 지구환경이 황폐해지고 기후가 불안정해지니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네요.

스컬리: 일간지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은 이 사건들에 각종 가설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더군요.

성서적 종말의 징조라거나 비밀 화학 무기 실험에 의한것이라는 음모설부터, 지구 자기중심의 이동 혹은 UFO 의 충돌등 각종 미신과 설이 퍼져있다고 해요.

멀 더 :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존재나 현상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과 동경이나 호기심을 가지고 있죠.

그중에 특히 미지에의 두려움이 커지면 스스로 광기에 지배당해 비극을 맞기 쉽죠.

지금의 현상들이 어떤 원인에 있든 그저 자신의 삶에 충실하면 되지 않을까요.

종말의 징조다 어쩌다 하면서 미리 앞서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러기보단 조금이라도 더 자신과 주변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것에도 더 신경쓴다면 종말을 조금은 미룰 수 있겠죠.

스컬리: 진짜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면 그걸 해결해줄 히어로가 출현했으면 좋겠어요.

영화같은거 보면 재난이나 테러를 한방에 해결하고 시민을 구출하는 영웅들이 있잖아요.

멀 더 : 하하하 스컬리! 내가 비록 히어로가 되어줄 순 없지만 혹여 마지막 날이 온다면 홀로 두려움에 떨지않게 함께 있어줄게요..

그리고 사실 영웅들이 별건가요.

우리가 잊고 지내는 가치를 일깨우며 자신만이 아니라 남들도 변화시킨다면 누구나 다 영웅이죠.

다만 늘 한결같이 해야한다는게 힘들지만 그런 영웅들이 적잖이 출현했기에 인류는 조금씩은 발전해왔다고 봐요.

스컬리: 하긴 인술을 위해 헌신한 슈바이처 박사나 평생 자애와 사랑을 실천하신 마더 테레사 이런 분들이 모두의 영웅이겠죠.

또 늘 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여 인류의 정신적 지주나 스승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땀으로 보여주는 감동적인 스포츠영웅까지 참 많은 분들이 있군요.

멀 더 : 그렇죠..누군가를 보며 자신의 향상심을 키우고 의지를 새기고 아름다움을 느낀다면 그 대상은 분명 자신에게는 영웅일거예요.

부모님이나 선생님,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가릴것도 없이 말이죠.

단지 인위적으로 포장하고 억압하여 세뇌된 일그러진 영웅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리고보면 권연아는 외계에서 온 존재이면서도 참 영웅의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군요.

힘든 역경을 떨치고 일어나 정상에 자리에 앉은 노력과 자세는 말할것도 없이, 평소 세계평화와 인류애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유니세프 활동까지 말이죠.

어쩌면 정말 종말을 향해 치달는 인류 문명에 전하는 외계인의 시그널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좀 화가 나기도 해요.

아무리 한국 국적으로 화했다해도 어쩌서 권연아는 그토록 자신의 역할에 몰입하는걸까요.

얼마전 뉴스에서도 보니 자신의 고국에만 영상메세지를 보내 새해인사를 하더니 이번엔 새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떡밥까지..너무 고국팬만 편애하는거 아닌지 모르겠군요.

외계인이면 쏠지구적으로 살피고 아껴줘야죠.

흠..이런건 히어로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것인지도!

스컬리: 아이고~ 멀더! 또 오바해서 아스트랄계를 헤매고 있군요.

그리고 사실 그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 영화 '슈퍼맨'에서도 클라크는 평소 합중국 시민으로서 규범을 잘 지키며 선량하게 살다가도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할 땐 슈퍼맨으로 변신해 문제를 종결하잖아요.

외계인이지만 합중국시민인 슈퍼맨이 평소 자국을 더 아낀건 당연시했으면서..

멀 더 : 하긴 스컬리 말을 들으니 그럴긴 하네요.

요즘 종결자란 말이 유행한다면서요.

어떤 시대나 문화를 종결시키며 새로운 것을 선도하는 역할이나 혹은 그 신조류의 정점을 뜻하는 말 같던데 말이죠.

그리고 보면 권연아도 현대피겨의 종결자라고도 할 수 있죠.

니뽕 선수들에 의해 유행한 점핑빈 시대의 종막을 고한 종결자인데다, 기술과 예술의 정화만을 갖추어 신피겨를 개척하고 정점을 찍은 아트피겨의 종결자라고 할 수 있을지도..

아! 얼른 3 월이 와서 종결자의 면모를 과시하는 슈퍼히어로 유나의 모습을 보고싶네요.

스컬리: 멀더! 일단 봄을 기다리기 전에 오늘의 일이나 좀 종결하시죠.

여기 사건서류 밀린거 안 보여요?

종결은 커녕 자꾸 미결 상태로 쌓을건가요?

멀 더 : 으음! 이 잔소리 종결자 스컬리 같으니라고..

=====

한 이틀은 글을 올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추워서 온천이나 좀 다녀오려구요..

다음주까지 한파라고 하던데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X-파일 36화 (김연아편) [47]

실버티어즈 [작성글 전제보기](#)

추천 45 | 반대 2 | 조회수 517 | 2011.01.09

1. 초등학교 4 학년때 아이큐 검사 결과 167 이상으로 판명
2. 15 세에 당시 세계 최고 권위의 하버드 대학 입학
3. 18 세에 당시 불혹의 수학교수들도 고개를 젖던 수학 난제들을 해결
3. 20 세에 이미 박사 학위 취득
4. 22 세에 6 편의 수학 관련 논문이 책으로 출판
5. 26 세에 버클리대 수학과 종신교수로 임명

- 천재 수학자 시어도어 카진스키 경력 -

스컬리: 멀더! 당분간 퇴근은 엄두도 못내겠군요.

애리조나주 투산의 쇼핑센터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고로 6 명이 숨지고 13 명이 부상당해서 지금 대테러 경계가 내려진 상태예요.

멀 더 : 이번엔 워싱턴 정가도 놀라서 긴장 상태에 빠져있더군요.

유권자와의 만남의 행사를 가지는 현역의원을 겨냥한 범죄인데다 무차별 총기난사로 가브리엘 의원은 중태에 빠지고, 그녀의 보좌관과 연방판사와 9 살난 여자아이까지 희생되었다죠.

스컬리: 현장에서 잡힌 범인의 심문을 맡은 그쪽 지부 수사관들에 의하면 정신이상 징후가 보인다고 하더군요.

작년 9 월에는 교실과 도서관에서 이유없이 감정폭발을 일으켜 난폭행위를 하고 정학처분을 받아서 10 월에 학교를 나갔는데, 학교측에선 정신건강 진단서를 제출해야 복학시켜 준다고 했다더군요.

이번 범행 이전에 그가 만들어 올린 유튜브 영상들엔 문맹률과 금본위제도 실패 등에 대한 비판을 가하며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총기 영상을 올리기도 했대요.

멀 더 : 웬지 현대사회의 물질적 기술주의를 비판하면서 폭탄 테러를 저질렀던 수학자 출신의 시어도어 카진스키가 떠오르는군요.

비기술주의를 천명하면서 주로 대학과 항공사에 대한 테러로 UNABOBMER 로 불리웠고, 자신만의 신념에 찬 테러행위로 애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곤 결국 망상성 정신분열로 판명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 말이에요.

스컬리: 오로지 자신만의 신념이 옳다고 그걸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로써 테러를 택하다니 정말 나로선 이해가 안가요.

아무리 목적이 순수해도 그 수단이 온당한 방법이 아닌바에야 어떻게 지지를 얻을 수 있겠냐구요.

이번 사건처럼 가끔 분별없는 젊은이들이 그 위험한 열정을 따라할 뿐이지 대중의 호응을 이끌어낼 순 없을텐데 말이에요.

멀 더 : 대부분의 테러범들이 저지르는 오류가 그거라고 봐요.

제도권의 모순과 압제에 대항한다면 일반의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켜선 안되는건데 그들은 그저 이슈를 만들고 논란을 부름으로써 자신들의 행위가 부분적으로 성공했다고 여기나봐요.

그건 그저 상처뿐인 그들의 멍에로만 남을 뿐인데 말이죠.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해서 스스로의 자부심만을 간직하려는 이기심인지도 모르죠.

스컬리: 멀더! 당신은 전해들었다고 했죠.

우리 아빠가 예전에 독일적군파의 항공기 테러로 돌아가셨다는것을..

사실 당시 바더가 이끌던 적군파의 반향은 엄청났다더군요.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독일 정부를 비판하여 이상을 추구하던 행동하는 지식인이었던 올리케 마인호프가 인터뷰를 계기로 적군파에 경도되어 그들에게 합류했을 정도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가선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을 아랑곳하지않는 테러로 그녀의 신념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하다가 잡혔죠.

그리고 수감된 적군파를 석방하라는 요구로 항공기 납치를 시도했다가 진압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난 커오면서 줄곧 생각했어요, 멀더!

아무리 훌륭한 신념이라도 그 신념에 무고한 핏빛이 드리워진다면 결국은 실패로 끝이 나고 비극만을 잉태할 뿐 이라는것을요.

지난날의 실패한 테러리스트들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날에도 되풀이되는 역사가 참 씁쓸하네요, 멀더!

멀 더 : 카진스키처럼 정부의 실험에 의해 심리적인 외상을 입어서 생겨난 정신분열증때문이거나 이번 총기사건의 범인이나 적군파처럼 정부와 사회에 반동하여 일어난 테러이든 모두 자신들만의 신념이 정의라고 생각해서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걸 꺼리지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겠죠.

그들이 경종을 울리려 한 것이 무엇이든 그들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을거예요.

오히려 사회를 혁신시키고 사상을 주지시키기 위해선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실천하는 행동력으로 자신의 주변부터 바꾸는것이 느리지만 가장 빠른 길일거라고 봐요.

스컬리: 하지만 대부분 급진적인 행위로 극적 효과를 노리는게 인간의 맹점인가봐요.

그리고 그걸 표출하는 분노에 휘둘리는 것이 자신을 불태우는줄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거겠죠.

멀 더 : 진정한 승리자는 어떤 부당한 제도와 악의적인 룰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 쟁취하는 사람일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불리하고 편파적인 기존의 질서에 정면으로 부딪히되, 다른 누구를 희생시키거나 발판삼지 않고도 결국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그런 사람이요.

난 그런 사람을 한명 알고 있죠.

무척이나 강인하고 의연한 사람이라, 사실 외계인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스컬리: 이쯤에서 언급될 줄 알았어요, 멀더!

바로 쿤연아를 말하는거겠죠? 딱 이 시점에서 나오거든요~~

멀 더 : 유나킴이 외계인이든 혹은 지구인이든 그건 사실 중요치 않아요.

그녀가 걸어온 길은 참 순탄치 않았음에도 모든걸 이겨내고 영광의 자리에 올라섰죠.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그녀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녀의 배경이 될만한 빙상연맹도 없고, 누군가처럼 알아서 구제해서 월드 진출을 시킬 여력도 없는 나라를 고국으로 두었음에도..

유나킴은 오롯이 혼자만의 힘으로 극복해왔고, 룰이 자신에게 불리하든 유리하든 묵묵히 기본을 다져서 자신의 기량을 선보여왔죠.

그래서 난 그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거예요.

주변의 파고가 어떠하든 그걸 헤칠 용기를 지녔고, 다른 힘에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는 신념이 대단해서죠.

물론 그 모든걸 차치하고서라도 그녀의 연기를 보면 빠질 수 밖에 없지만 말이에요.

스컬리: 하긴 나이 어린 우리 조카나 연세 지긋하신 우리 엄마도 유나킴의 연기에 감탄하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굉장한 스케이더라고들 말하더군요.

멀 더: 그래요, 스컬리! 그녀의 연기를 보면 대부분 그녀의 팬이 되고 말죠.

그리고 그녀가 극복해 온 여정을 귀담아 듣다보면 그녀에게 찬탄하고 더 아끼게 되죠.

그런걸 못마땅해하며 가끔 그 팬들을 광빠로 몰아붙이고 그 반대편에 서는것이 정의이고 비판의 목소릴 내는것이 경종을 울리는것이라 착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하지만 정작 우스운것은 팬들을 모두 싸잡아 매도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 비판과 비난을 구분못하고 오로지 비난으로 자신만 고고한 척 한다는거예요.

특히 거짓과 식언을 일삼으면서 정의를 운운하는 자가당착을 벌이는 사람도 있죠.

자신의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남을 비난할 계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상엔 이렇게 자신들만의 신념에 빠져서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더군요.

스컬리: 언제나 대립과 소요가 끊이지 않는게 인간사회이고 그래서 투쟁의 역사가 이어온거겠죠.

그런 아쉽고 불편한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 여러 예술가들이 음악과 영화, 영상과 글로써 아름다움을 선보이고 살찌워온거 아닐까요.

늘 슬픔과 비극이 하루도 못지 않는 지구촌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닦아주는 그런 예술작품이 있어 보다 아름다운 내일을 기대하는걸테니까요.

그런 의미로 빙판위의 예술가인 유나킴의 영상으로 오늘의 참담함을 씻어볼래요, 멀더?

멀 더 : 오~~스컬리, 그거 정말 멋진 생각이군요!!

오늘같은 날에는 유나킴의 타이스의 명상곡이 딱일거예요.

보고나면 오래도록 가슴에 울림을 자아내는 연기거든요..

함께 보도록 합시다, 스컬리!

=====

청산님! 캘린다 잘 받았습니다.

올해 새해 선물로 최고의 선물을 받은 듯 합니다.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X-파일 37화 (김연아편) [34]

실버티어즈 [작영글 전체보기](#)

추천 23 | 반대 1 | 조회수 249 | 2011.01.10

감독: 곽재용

주연: 차태현, 전지현

제작: 신씨네

#1. 강가, 기차길

FADE IN

강물이 보이고, 강가의 기차역으로 기차 한 대가 들어오고 있다.

기차가 멈추면서 내리는 사람들이 보인다.

DISSOLVE TO

#2. 강과 기차길이 내려다보이는 나무 아래

기차길이 내려다보이는 산, 어느 나뭇잎이 무성한 나무 아래에 망부석처럼 서있는 건우가 보인다. 아래로 멈춰선 기차가 내려다보이고, 사람들이 내려서 역을 빠져나오는 모습들도 보인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표정의 건우, 실망한 표정으로 핸드폰의 시계를 본다.

그 위에 흐르는 건우의 나레이션.

건우: 2년 전 바로 오늘, 그녀와 저는 이 자리에 타임캡슐을 묻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년만에 다시 만나는 날이지만 그녀는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 기다립니다.

- 영화 '엽기적인 그녀'에서 -

<현재, 워싱턴 FBI 본부>

멀 더 : 스킨리! 이번 투산에서의 하원의원 피격사건에서 숨진 희생자 중에 한명이었던 9세 소녀가 9.11 테러 당일 날 태어나 '희망의 얼굴'로 선정되었던 소녀라고 하더군요.

스컬리: 그래요, 멀더!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이에요.

이번에 희생된 크리스티나 테일러 그린양은 9.11 테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을때, 시름을 달래고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하여 당일 날 태어난 아기들을 각 州별로 한명씩 선정했을때 펜실버니아주를 대표해서 뽑힌 아이였다네요.

그렇게 뽑힌 아이들 50 명을 책으로까지 출간하여 과거의 아픔속에서도 꽃피운 탄생의 놀라움과 희망을 상징하고자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끔찍한 테러로 희생되었으니..

채 피우기도 전에 꺾어버린 희망의 꽃망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멀 더 : 어째서 이런 슬픈 비극이 반복되는지 모르겠군요.

그녀를 잃은 부모는 또 얼마나 참담할까요.

더이상 그토록 생기발랄한 미소를 볼 수도 없고, 새의 지저귀음같은 어여쁜 목소리도 더이상 들을 수 없을테니 말이에요.

스컬리: 난 가끔 잠자리에서 일어나기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를 접하는 직장이다 보니 오늘은 또 어떤 슬픈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요.

정말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언제쯤이면 아름다움과 평화로 충만하여 모두 평안하게 살 수 있으려는지..

멀 더 : 아마 인류가 존속하는 한은 끝나지 않은 난제일거예요.

때론 종교적 신념이 혹은 정치적 맹목이, 그리고 자신들의 사상의 증명을 위하여 애꿎은 사람들을 피해입히고 상처주는 일이 반복될테니까요.

다만 그런 피해를 입었을 때 서로가 조금씩이라도 다정히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한다면 조금은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스컬리?

스컬리: 모르겠어요, 멀더! FBI 에서 일하다보니 더욱 인간에 대한 불신이 커지기도 하고, 가끔은 결혼조차도 안하는게 낫다는 생각을 해요.

혹여 아이를 갖는다면 이런 험한 세상에서 또 얼마나 많은 위험속에서 자랄까를 생각하니 두려워지기도 하거든요.

멀 더 : 비극과 참화속에서도 희망은 꽃피우기 마련이에요, 스컬리!

이번에 희망의 얼굴이었던 소녀의 희생도 있었지만, 그저 절망에만 빠지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로 뒷걸음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의 병으로 고통받을테니까요.

아픔을 가진 사람을 위하여선 치유되도록 기원하고, 상처받은 사람은 떨치고 일어서도록 격려해주는것이 남은 사람들의 몫이라고 봐요.

그러니, 스컬리! 우리 기운 내보자구요.

스컬리: 고마워요, 멀더!

지치고 어두운 마음이 조금은 달래지는 느낌이군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계란 모양의 원통형 물건 말이에요.

멀 더 : 음..이건 타임캡슐이에요.

혹여 우리가 더 나이 들어서 나중에 이 타임캡슐을 꺼내본다면 그속에 담긴 물건을 보며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에 잠기지 않을까해서요.

그리고 세대를 잊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해도 혹여 미래의 누군가가 이 캡슐을 발견하고서는 과거 인물들의 생활상과 개인사를 들여다보며 우리 시대의 문화와 생각을 잠시나마 참고할 수 있을거예요.

스컬리: 그런데 난데없이 왜 타임캡슐인가요, 멀더?

멀 더 : 요즘 사건 사고도 참 많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날들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지금의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기념하고 보관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스컬리! 어때요?

우리 서로에게 편지 한장을 쓰고 이 캡슐에 담았다가 미래의 어느 날에 개봉해보는것이!

거기다가 자신이 아끼는 물건도 하나씩 보관하도록 하죠^^

스컬리: 흠..하긴 미래의 어느 날 개봉하였을때, 우리가 잊고 지내던 기억의 편린을 마주한다는것도 시대를 뛰어넘는 과거와의 조우가 되겠군요.

괜찮은 생각이에요, 멀더! 근데..서로에게 편지는 왜 쓰자는거죠?

멀 더 : 흠!흠! 이게...사실은 말이죠, 스컬리!

내가 어제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그 소녀가 권해주더군요.

꿈결처럼 짧은 만남이었는데도 이상하게 참 잊기 어려운 느낌이라서 말이죠.

<하루 전, 워싱턴 조각공원 내 분수연못 링크>

멀 더 : 아휴, 그냥 유나킴 영상으로나 만족하는거였는데..

괜히 스케이트 한번 타보겠다고 나와서 이게 뭐하는건지 모르겠네.

어릴때 몇번 타봐서 자신있게 나왔는데, 주변의 어린 아이들보다도 못하다니..

응? 아하하;; 안녕! 꼬마아가씨! 왜 그렇게 날 뚫어져라 보니?

엘레인: 전 꼬마아가씨가 아니고 엘레인이란 이쁜 이름이 있더군요.

우리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좀전에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저씨 정말 못타는군요.

엄청 넘어지시더라구요..우리 아빠도 몸치인데 정말 비슷하네요.

멀 더 : 그래, 엘레인! 정말 어여쁜 얼굴만큼이나 사랑스런 이름이네.

그런데, 그렇게 열렬한 시선은 처음이라 익숙치가 않구나.

난 어린 숙녀에게까지 인기 많은 남자는 아닌데 말이다.

엘레인: 핏! 누가 뜨거운 눈으로 봤다고 그래요.

딱 봐도 소심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도 못하는 남자로 보이는데.

아저씨! 이건 정말 아저씨보단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충고인데요..

내일은 좀 과감하게 마음을 전달해보세요.

아니면 은연중에 우회해서 그녀의 마음을 확인해보던가요..

아..타임캡슐같은거 만들어 묻자면서 편지를 써보자고 해봐요.

멀 더 : 흠! 엘레인, 정말 내 얼굴에서 그런게 보이니?

짝사랑하는 여성에게 고백도 못할 정도로?

엘레인: 그래요, 아저씨!

그러니 내 충고대로 한번 해봐요.

내일은 그녀가 좀 마음이 우울해있을테니 잘 달래주고요.

꼭 내가 이르는대로 해야 해요.. 안그러면 누군가의 운명이 바뀐다구요.

그리고 유나킴은 저도 무척이나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그녀앞에선 너무 티나게 좋아하는 내색을
하진말아요..나중에 그 문제로 애 앞에서 툭툭거리지 않도록..

앗! 균형 잘 잡아요, 또 넘어지지 않게!!

멀 더 : 응? 아니 내가 유나킴 좋아한다는건 어찌 아는거니?

(쿵!!) 아이쿠.....어라? 엘레인! 엘레인?

혹시 방금전 제 앞에 서있던 갈색머리가 탐스러운 소녀 못 봤나요?

<현재, 워싱턴 FBI 본부>

멀 더 : 스컬리! 아직 멀었어요?

아까 한통은 다 썼던 것 같은데..뭘 또 쓰는거예요?

스컬리: 아..아까건 멀더, 당신에게 쓴거구요.

쓰다보니 미래에 이 타임캡슐을 열어보는 누군가가 내 아이가 되는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한통 더 써보고 있어요.

문득 그 아이가 딸이면 어떨까싶어 써보는 중이에요, 멀더!

이름은 뭐가 좋을까..엘레인 어때요,멀더? 재미있겠죠? 멀더! 멀더?

멀 더 : 흠....엘레인이라....

슬픈 표비명

나 죽거든, 사랑하는 친구여
내 무덤 위에 버드나무를 심어다오.
그늘 드리운 그 가지를 좋아하느니
창백한 그 빛 정답고 그리워라
내 잠든 땅 위에
그 그늘 사뿐히 드리워다오.

- 알프레드 뒤 뤼세 의 悲歌 -

스컬리: 멀더!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건가요?

당신이 그렇게 열중하는건 유나킴의 영상을 볼때나 그럴텐데..

오늘은 웬일로 음악까지 틀어놓고 말이죠.

멀 더 : 아..어서와요, 스컬리!

최근 발간한 영국 '언론왕립사회회보'에서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알버트 해리스 박사가 설명한 주장을 보고 있어요.

인류의 눈부신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더이상 외계생명체를 공포의 대상이 아닌 친근하게 느끼는 성향이 커져서 우주 어딘가에 외계생명체가 존재하거나 그들이 지구를 찾는다는 증거가 발견되더라도 인류는 이에 화나거나 불안해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군요.

스컬리: 흠..하긴 당신의 주장대로 권연아가 외계인이라면 우리가 겁내거나 경계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오히려 그녀가 보여주는 천상의 연기와 작품세계에 감탄할뿐이니까요.

그런데 불과 50년 전만 해도 외계의 신호를 발견하였다는 의회 발표에 전국이 패닉상태에 빠졌던것에 비하면 놀랍도록 변화했군요.

멀 더 : 아무래도 그동안 교육 수준도 엄청 높아진데다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의 통제같은것이 용이치 않고, 이미 밝혀진 우주의 신비만도 대단하다는것에 사람들이 공감하는때문이죠.

프랭크 드레이크 박사가 고안한 드레이크 방정식에 의하면, 항성계의 속도와 생존에 적합한 행성 그리고 행성이 생명체를 형성하는 비율 등을 계산해볼 때 우리 은하안에서만도 우리와 교신할 수 있는 외계생명체의 숫자는 1만에서 100만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잡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외계 지적생명체 탐색 연구소(SETI) 책임연구원인 세스 쇼스탁 박사는 25년 이내에 외계인과 맞닥뜨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주장하는중이구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말을 이해할 순 있어도 우리가 그들의 신호를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하네요..그들의 과학수준이 월등히 높기 때문예요.

스컬리: 흠..정말로 외계 존재와의 조우가 현실화될까요?

그러고보니 얼마전 러시아 프라우다誌의 기사가 떠오르네요.

지름이 무려 420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 우주선을 포함한 3대의 우주선이 지구로 향하는중이며 내년말쯤에 지구에 도착할거라는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린 태연하게 그들을 맞이할 수 있을지.

멀 더 : 요즘은 하도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오보로 내는 일이 많아서 알 수야 없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미리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저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주어진 삶을 살면 그뿐인거죠.

흠..어쩌면 그 우주선들은 권연아를 영접하러 오는 함대일지도 모르겠군요.

지구에서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자신의 행성으로 귀환하도록 맞이하러 오는지도..

스컬리: 에효, 멀더! 당신과 있다보면 내가 FBI 요원이 아니고 무슨 SF 영화의 대본 작가가 된 듯한 느낌이라구요.

그런데, 멀더! 지금 흘러 나오는 이 음악 무슨 노래인가요?

무척이나 아름다우면서도 처연한 느낌이군요..누가 부르는거죠?

멀 더 : 세계적인 소프라노인 조수미씨의 '나 가거든'이란 노래예요.

지금의 한국정부가 들어서기전의 왕조 말엽 jap 칼잡이들에게 그들의 왕비가 살해당했기에, 그 사건을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거기 들어간 OST 중 하나라고 하네요.

스컬리: 아! 조수미씨라면 저도 들어봤어요.

명 지휘자 카라얀으로부터 100 년에 한두명 나올까말까 한 목소리의 주인공이란 소릴 들은 한국 출신의 유명 소프라노지요?

멀 더 : 그래요, 스컬리!

요즘 권연아때문에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 음악이나 영화나 드라마등을 자주 접해보는데, 마침 한국 근대사의 비극을 다룬 드라마에 그녀의 노래까지 있어서 들어보고 있어요.

뮤직비디오로만 봤는데도 참 비극적이더군요.

한 나라의 왕비가 일단의 무뢰배들에게 살해당하여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하였다고 하니, 왜 한국이 유독 찻들에게 그리도 반감이 남아있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네요.

유비 말미에 명성황후로 분한 배우가 살해당하면서 외치는 '내가 조선의 국모다'하는 말이 참 아르게 들려오더군요.

만약에 그녀의 시신을 수습하고 묘비를 새겼다면 그 외침을 그대로 묘비명으로 써도 될 듯..

스컬리: 동양의 말중엔 뿌린대로 거두고 인과응보가 있다잖아요

그런 흉악한 짓을 저지른 인간들도 발 뻗고 자진 못했겠죠.

그런거보면 생사는 스스로 주관할 순 없을지라도 자신의 삶을 어찌 사느냐 정도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을거라 봐요

나중에 떠날때 후회는 남을지라도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아 부끄럽지않은 삶을 살 순 있겠죠.

멀 더 : 그리스 신화의 탄탈로스는 신들의 음식료인 넥타와 암브로시아를 훔쳐 먹었다 벌을 받았다죠.

동양의 진시황은 불로초를 그토록 열망하다가 죽기도 하고..

사람인 이상 유한한 존재라 그토록 영원하는지 모르지만, 구태여 불사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세상을 떠날 때 자신을 기억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것이 진정 자신의 존재가치에 회의를 느끼는거겠죠.

자신을 조금이라도 추억하고 회상하고 떠올려주는 사람이 있는 이상은 끝난게 아닐지도.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식을 남기고 유전자를 물려주고 또 사회생활을 하며 많은 인간관계를 맺는것이 아닐까요?

그러니, 스컬리! 우리 하루를 살아도 후회하지 않도록 알차게 살도록 합시다.

자신의 묘비명에 멋진 글귀 하나를 새길 수 있도록 말이에요.

스컬리를 닮은 갈색머리의 딸이 나중에 손녀를 데리고 당신 묘비를 쓰다듬으며 당신을 추억하는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스컬리: 하긴 당신 말도 일리가 있어요, 멀더!

그저 주어진 나날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살아야겠죠.

그리고 뭐 허락된다면 결혼도 해보고 아이를 낳아보는것도 좋을듯하네요.

근데요, 멀더! 만약에 당신 묘비명을 미리 새긴다면 뭐라고 하고싶어요?

멀 더 : 글쎄요..평생 미스터리만 찾아다녔으니 이런 말을 남길지도 모르죠.

'멀대같으니, 평생 미스터리만 쫓다 하나도 풀지못하고 눈뜨고 죽다' 이런 글귀일지도..

스컬리: 품! 어쩔 당신다운 묘비명일지도 모르겠어요, 멀더!

하긴 영국 작가 버나드 쇼는 자신의 묘비명을 '우물쭈물 살다 이럴줄 알았다'고 했다죠.

근데요, 멀더!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며 추적하는 쿼연아의 후일 묘비명은 어떻게 될까요?

'퀀! 여기에 잠들다!' 혹은 '피겨의 별! 여기에 지다' 이런걸까요?

아니면 모짜르트의 묘비명처럼 '우리는 묘비명이 아니라 피겨작품으로 쿼연아를 기억한다'이런 글귀가 적힐까요?

멀 더 : 저기, 스컬리! 그녀는 외계인이니 자신의 행성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러니 팬들은 그저 이런 글귀로 그녀를 기억하겠죠.

별에서 온 소녀, 여왕이 되어 그녀의 별로 돌아가다..이렇게 말이죠.

스컬리: 그럼 한때 쿼연아의 라이벌로 불리던 아사다 선수는 어떨까요?

멀 더 : 흠..아사다선수의 묘비명은 프랑스 작가 모파상의 묘비명이 참조가 되겠군요.

'나는 모든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스컬리: 우후후 웬지 의미심장하게 들리는군요, 멀더!

워..아무튼 미래는 미래로 접어두고 오늘을 열심히 살자구요.

현실이 아무리 팍팍하고 힘들어도 삶은 아름답다고 여기면서 말이죠.

X-파일 39화 (김연아편) [54]

실버티어즈 [작영글 전체보기](#)

추천 25 | 반대 2 | 조회수 427 | 2011.01.12

<<최근 영국의 대중지 '데일리 멜'은 현재 지구의 기후는 미니 빙하기에 들어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일부 국가 과학자들이 지구가 빙하기에 접어들었다는 주장을 해도 대세는 온난화의 결과이며 이를 대처하는것은 오직 CO2 라고 단정하기 때문에 지구의 자연재해가 코앞에 닥쳐도 속수무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 안목의 기상적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지사학적인 관점에서 지구 시스템에 관한것으로 바라봐야 하는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태양의 활동이 약해졌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우주광선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우주선이 증가한 것은 구름의 증가이며 이로 인해 구름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광선을 막는 일은 지구를 온난화 되지못하게 하기 때문에 확실히 지구는 한랭화가 진행되고 있는것이죠.

이런 현상이 현재 일어나고 있기에 미니 빙하기가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결과이며, 이는 지구시스템 엔지니어링 옵션으로써 기후재해를 해결해야 그 가능성이 있다고.....>>

- 三寒四溫이 사라져버린 한국의 겨울에 대한 어느 학자의 주장 -

스컬리: 어휴, 추워! 오늘도 계속된 한파로 시내 곳곳이 얼어붙었더군요, 멀더!

길 건너 BoA 워싱턴지점에 잠시 다녀오는데도 금새 몸이 차가워지네요.

정말 따사로운햇살이 그리워지는 날이더군요.

멀 더 : 그러게요, 스컬리!

올 겨울은 유독 눈도 많이 내리고 추위가 극성이군요.

한동안은 지구 온난화때문에 겨울에도 따뜻한 느낌이더니, 작년도 추웠는데 올 겨울 역시 연일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네요.

인도에선 늘 기후가 따뜻하고 겨울에도 햇살 **좋은날**이 대부분인데, 이번에 급작스럽게 온도가 낮아져서 수십명이 동사하기도 했다더군요.

물론 영상 3 도였지만 그 기온도 평소때에 비하면 무척 추운 날이어서 그랬던데..

스컬리: 지구가 몸살을 앓는건지..자연이 인간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건지..

아무튼 연일 추위가 계속 되니 따뜻한 곳으로 가고싶네요.

멀 더 : 유나킴의 고국인 한국도 예전엔 겨울철이면 삼한사온이라는 뚜렷한 계절적 특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모두 옛말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눈 폭탄과 한파가 연일 계속된다던데, 그들의 선조들이 이뤘던 고대국가중 한곳에서 유행했다던 **사절유탉**이 간절해지는 날씨인 것 같더라구요.

봄에는 동야택에서, 여름에는 곡량택에서, 가을에는 구지택에서, 겨울에는 가이택에서 머물렀다는데 우리도 겨울 휴가를 따뜻한 곳으로 가서 좀 놀다오는게 어때요, 스컬리?

스컬리: 흠..난 휴가를 맞아서 데이빗 카퍼필드의 **매직** 쇼를 구경하려고 했었는데,멀더의 이야기를 들으니 남쪽의 휴양지가 급땡기는군요.

아~~고민되네요, 멀더! 커다란 물체를 사라지게 만드는 텔레포트 매직이 보고싶었는데..

멀 더 : 응? 데이빗의 매직 쇼 스케줄이 나온게 있나요?

지난 주 한국 마술협회 부회장이란 자가 데이빗의 내한공연을 추진한다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상당액을 가로채 구속되었다는 기사도 있던데..

에이, 스컬리! 그건 나중에 보고 이번엔 내 말대로 따뜻한 마이애미나 가서 잠시 겨울을 잊어보는것도 좋은 선택이라구요.

스컬리: 흠..하긴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멀더!

따뜻한 곳에서 겨울휴가를 보내면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와야겠네요.

하지만 이왕이면 캐리비안 베이가 낫겠어요..푸에르토리코의 산 후안이 적당할 듯 한데.

멀 더 : 아싸! 좋았어요, 스컬리!

당장 여행사에 문의해볼께요..우후후

스컬리: 멀더! 웬지 그 웃음이 음흉하게 들리는걸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건데요?

멀 더 : 그야 당연히 스컬리의 수영복 자태..흠흠..요즘의 이 추위를 벗어나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즐거워하는거죠.

스컬리: 멀더! 근데 내가 그곳에 가서 휴가를 즐기는데 멀더가 왜 즐거워하는거예요?

난 혼자서 유유자적하다가 올건데요?

그리고 둘이서 같이 휴가계를 낸다고하면 당연히 국장님이 뭐라고 하실텐데요.

멀 더 : 아;; 나도 마이애미보단 그쪽이 더 나을듯해서 거기로 휴가를 가려구요.

이왕임 같이 가는게 요금도 절약되고 좋지 않겠어요?

객실은 물론 따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 우리 팀 좀 한가해졌잖아요..

아마 같이 휴가를 떠나도 우리가 없을거예요.

스컬리: 흠음..워, 그럼 그렇게 해요..멀더!

하긴 그동안 거의 쉬지도 못하고 사건 수사를 말느라 재충전이 필요하기도 했으니까요.

.
. .
. .
. .

멀 더 : 흑! 후우웁..흑! 후우웁...끄응..

스컬리: 멀더! 도대체 뭐하는거예요? 창피하게시리..

그리고 겨우 그걸 하고 지친거예요, 멀더?

에효..그러니 평소 체력단련 좀 하라구요.

매일 권연아 영상만 보거나 UFO 사진만 들여다 보지 말고..

멀 더 : 아, 스컬리! 미안해요..

아무래도 우리가 가는곳이 휴양지 해변이어서 몸매를 내보여야하다보니..

이렇게 팔굽혀펴기라도 좀 해놓으면 나아보일 것 같아서 말이죠.

스컬리: 멀더! 그래도 공항에서 이게 뭐하는거예요.

게다가 웬 짐이 이렇게 많은거죠?

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두꺼운 코믹스는 뭐예요?

멀 더 : 아하하하..그게 가서 매일 수영이나 하고 그날에만 있기도 뭐하잖아요.

그래서 시간 날때 보려고 가져가는 거죠.

권유나때문에 요즘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저 코믹스는 한국의 유명 만화가가 그린 야구만화라네요.

오혜성과 **마동탁**의 운명적인 대결을 그린 예전 만화인데 애장판으로 나왔다길래 구해서 한번 보려구요.

스컬리: 멀더! 아예 그리 좋아하는 피겨 관련 만화를 구해오지 그랬어요..쯧쯧!

멀 더 : 그렇지않아도 수소문해봤죠, 스컬리!

그런데 그런 분야의 코믹스는 없나보더군요.

나중에 유나킴이 은퇴하면 그런 만화나 영화도 나올지 모르지만요.

흠..내가 그림에 좀 재능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보겠는데 말이죠.

스컬리: 하여간 당신의 유나타령은 대단하군요, 멀더!

그만 일어나요..시간 다 되어가네요.

이만 게이트로 가죠.

To be continued..

오늘은 총 다섯분을 허락도 없이 글에 올렸습니다.

출연료는 못 드려도 양해해주시고, 강 뺄글로 즐겨주세요^^

금장디님! 편집장님의 요청대로 드디어 떠납니다..과연 어디로 떠나는걸까요?

X-파일 40화 (김연아편) [32]

실버티어즈 [작성을 전제보기](#)

추천 26 | 반대 3 | 조회수 468 | 2011.01.13

<<독일 U 보트의 무차별 어뢰 작전에 노출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레이더망을 벗어날 방법을 모색하던 미 해군은 아인슈타인의 통일장 이론에 근거하여 강력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물체 주변의 빛과 전파를 굴절시킴으로써 스텔스 효과를 내는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니콜라 테슬라 주도하에 진행된 일명 프로젝트 레인보우는 테슬라의 사후 폰 노이만에 이어져 진행되었는데, 1943 년 7 월 22 일 필라델피아 항구에서 실험을 강행하였다.

실험에 참가한 구축함 엘드리지(USS Eldridge, DE-173)은 승압발전기 두대와 변압장치인 테슬라 코일 4 대를 장착하여 강력한 자장을 발생시킴으로써, 함내에서 발생하는 자기를 소멸시켜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았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지만 실험 종료 후 모습을 드러낸 구축함의 선원들은 모두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심신이 이상증세를 보였다.

이후 선원을 모두 교체하고 3 개월 후인 10 월 28 일 실험을 재개했는데, 실험을 시작하자마자 녹색 안개와 함께 엘드리지호는 레이더에서 사라져 버렸다. 이것은 모두 예상한 결과였지만, 엘드리지호는 눈에도 보이지 않다 갑자기 소멸했다. 얼마 후 엘드리지호는 600km 이상 떨어진 버지니아주 노포크 항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몇분 후 다시 필라델피아 해상에 모습을 드러내었는데,엘드리지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

동승한 과학자를 포함한 181 명의 승선자 중 120 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생존자는 겨우 21 명이었으며 40 명은 방사능 노출이나 감전사로 사망하였다. 특이한것은 생존자들은 모두 미치거나 이상증세를 나타내었고 사망자중 일부는 선내 부속품과 몸이 일체화된 것처럼 철속에 박혀서 사망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밀 실험은 나중에야 실체가 밝혀지는데.....>>

- 세기의 미스터리 '필라델피아 엑스페리먼트'에서 -

스컬리: 멀더!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비행시간이 길어질테니 잠시 눈 좀 부치는게 좋을텐데 말이죠.

그런데 웬지 탑승한 후부터 기분이 가라앉는군요, 멀더!

휴가 떠나는 발걸음이 이렇게 무거워지긴 처음이에요.

멀 더 : 마음 편히 가져요, 스컬리!

혹시 고소공포증은 아니겠죠? 비행기는 탈것중 가장 안전한 수단으로 꼽히니까 염려말아요.

어젯밤 함께 휴가 떠나는게 흥분되어서 잠도 설쳤는데, 지금도 피곤한 줄을 모르겠네요.

그래서 심심타파용으로 아즈텍 문명사를 보고있어요.

올멕문명에 이어서 멕시코 시티를 중심으로 14 세기부터 16 세기까지 꽃피웠던 문명인데, 정확한
역년에 의거해 계산된 훌륭한 건축문화가 대단하죠.

흥미로운건 매년 엄청난 인신공양을 올렸다는건데, 이건 꽃과 곡식으로만 제사를 행하곤했던
평화의 신 케찰코아틀이 밤과 죽음과 전투의 신인 테즈카틀리포카에게 패하고 물러나면서
세계의 멸망을 미루기 위해 매해 많은 수의 인간을 제물로 바쳤다고들 하네요.

스컬리: 아~~들어본 적이 있어요, 멀더!

일명 아즈텍 캘린더라고 하는 태양력에 의거한 우주관과 철학, 농경과 절기를 표현한 그들만의
고유한 역년에 따라 이미 4 번의 우주가 생성하고 소멸하였고 지금의 세상을 다섯번째 태양의
시대라고 했다면서요.

그리고 발견된 태양력 원형 석판에 의하면 5 번째 태양의 시대가 2012 년 말일에 끝난다죠?

멀 더 : 그래요, 스컬리!

그래서 많은 종말론을 다룬 영화나 소설에서 차용되었죠.

그리고 그런 종말을 미루기 위하여 매해 엄청난 인신공양을 행했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언젠가는 쫓겨간 케찰코아틀이 돌아와 평화를 가져다주고 자신들을 구원해주길 기원했다는군요.

아이러니한건 나중에 그들을 침략한 스페인 무법자 페르난도 코르테스가 흰 얼굴에 턱수염을 가졌다하여, 귀환한 케찰코아틀로서 받아들였다가 무참히 멸망했다는거예요.

그들의 수도인 테노치티틀란에 성대한 환영으로 맞아들인것은 그저 황금에 눈이 먼 백인 침략자였으니..그들의 종말을 미루려 드린 인신공양은 오히려 그들의 문명에 종말을 고하는 제사의식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문헌에 의하면 케찰코아틀은 조수들을 거느리며 그들의 문명을 전수한 자나 집단으로 묘사되는데 이건 혹시 선행인류끼리의 전쟁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외계인간의 다툼을 암시하는지 모르겠군요.

스컬리: 아무튼 기내에서까지 그 미스터리 추적은 계속되는건가요, 멀더?

어쨌든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준비하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언제나 준비해야겠죠.

그저 무력하게 기원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 보다는 말이죠.

그나저나 요즘 참 그런 종말의 징조다 뭐다해서 갖은 뉴스거리가 양산되는군요.

얼마전 한 일간지가 화성 편도 우주여행자를 모집하는 광고엔 지구를 돌아올 수 없다는 조건임에도 많은 수가 자원했다던데..

마지막으로 우주를 여행하고픈 마음인지 삶을 누릴만큼 누렸다는건지 알 수 없네요.

멀 더 : 하긴 정말 엄청난 여행이라면 많은 것을 포기하며 실행하고픈 용의를 가진 사람도 적지 않을걸요, 스컬리!

나같은 경우엔 과거의 역사적 현장으로 떠나는 시간여행을 해보고싶어요.

역사를 비틀어 미래를 바꾸진 못해도 생생한 역사의 물줄기를 두 눈으로 목도하는 건 최고의 여행일 듯 싶어요.

스컬리: 또 모르죠, 멀더!

언젠가는 타임머신이 발명되어 그런 꿈같은 여행이 가능할지도..

그래도 우린 이미 연느 타임머신을 경험했잖아요.

퀸연아의 작품을 보다보면 어느덧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가버린걸 자주 경험했으면서.

멀 더 : 그렇긴하죠, 스컬리!

한국인들은 정말 외계의 존재가 자신들의 고국을 택한것에 감사해야 해요.

어느날 뚝 떨어져서 피겨변방에서 바로 중심부로 진입해버린 경이적인 역사를요.

하지만 어느 날 유나킴이 그녀의 고향별로 돌아가면 그들은 그저 과거의 영광에 자위하며 그녀가 남긴 자취와 추억만을 안고 살건지..

여태 피겨 전용 링크 하나 없이 연아키즈에 대한 기대만을 품고있는건 어쩐지 아즈텍 사람들의 헛된 기원을 보고 있는 것 같기도해요.

준비하고 대비해야만 위대한 퀸의 후계를 언젠가는 세울 날이 올텐데 말이죠.

스컬리: 당신은 정말 유나킴에게 너무 빠졌어요, 멀더!

이젠 그녀의 나라인 한국피겨에 대한 걱정까지 해주다니 말이에요.

그런데 비행기가 심하게 요동치는 느낌인걸요.

아까부터 하늘에 폭풍우가 심해지던데, 그래서일까요?

멀 더 : 흠, 절기상으로론 이쪽에 허리케인이 자주 발생할 계절은 아닌데..

혹시 모르니 안전벨트를 매도록 해요, 스컬리!

스컬리: 이상하게 탑승할때부터 느낌이 이상하더라구요, 멀더!

혹시 항로가 벗어나거나 폭풍우에 휘말리진 않겠죠?

지금 우린 수많은 항공기와 선박들의 무덤이라는 마의 트라이앵글지대를 지나고 있는중인데.

멀 더 : 안심해요, 스컬리!

그동안은 이곳 버뮤다 삼각지에서의 갖은 사건사고들은 시간의 차원설에 의한 실종이라거나, 지구의 자기장 변화설로 인한 기계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추락이었다거나 하는 다양한 설들이 난무했지만..

최근의 조사결과로는 해저에 대규모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있어 때때로 치솟는 메탄 가스에 의하여 바닷물의 밀도가 낮아져 부력을 약화시켜서 선박을 침몰시키고, 가스에 의한 대기성분의 변화로 엔진이상을 유발한것이 정설로 굳어지고 있으니깐요.

스컬리: 멀더! 그러니까 오늘 그 메탄가스로 인해 혹시 비행기에 이상이 생기면 어쩌냐구요.

아~~그냥 데이빗의 매직쇼나 보는거였는데..

조종사: 승객여러분! 지금 폭풍과 난기류에 의하여 비행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고,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멀 더 : 아하하;; 스컬리! 아무 일 없을거예요.

일단 구명조끼부터 착용하자구요.

아앗! 스컬리, 고개를 숙이고 의자 손잡이를 꼭 잡아요...

아..마스크..마스크요..빨리.....

To be continued..

X-파일 41화 (김연아편) [21]

실버티어즈 [작성을 전체보기](#)

추천 19 | 반대 3 | 조회수 279 | 2011.01.14

니콜라 테슬라(1856~1943) :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출신의 발명가, 물리학자, 기계공학자이자 전기공학자로서 19 세기말과 20 세기 초의 가장 뛰어난 과학자 중의 한명이다. 교류시스템과 다상 전기 분배 시스템, 그리고 교류 모터에 이르는 그의 다양한 이론과 발명품은 제 2 의 산업혁명을 불러오는 데 일조하였다.

지금의 크로아티아에 해당하는 리카 지방에서 태어났으며, 미국에서 연구를 계속하던 중 1891 년 귀화하여 미국 시민이 되었다.

1893 년 미국에서 무선통신 시험을 하였으며, ‘전류 전쟁’의 당사자가 된 이후로 미국에서 전기공학자로서 그의 명성은 다른 어떤 과학자나 발명가보다도 높아졌다. 그의 초기 연구는 현대 전기공학의 장을 열었고,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연구결과를 많이 발표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재정 상황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그는 가난과 무관심 속에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다가 86 세로 죽었다. 말년에 테슬라는 미래의 과학 발전에 대한 기이한 주장을 펼쳐 미친 과학자 취급을 받았다.

테슬라의 업적은 현 문명사회에서 전기가 사용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전자기학에 관한 테슬라의 업적은 차치하더라도, 그는 로봇공학, 탄도학, 컴퓨터공학, 핵물리학, 이론물리학등의 다양한 분야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테슬라는 그의 연구가 과학과 산업을 통해 인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업적은 많은 유사과학이나 UFO 이론, 뉴에이지 운동 등의 주장에도 이용되었다.

- 위키 백과 인물 정보 -

멀 더 : 읍프..후아..푸우..스컬리? 스컬리!

아무도 없어요? 스컬리 내 말 들려요?

여긴 어디지..구명조끼 덕분에 물에 빠지진 않은 듯 한데..

염도로 봐선 바닷물같진 않고..

원주민아내: 텍스코코 호수에서 사람이 나오다니..

여보, 이리와 봐요! 저기를 봐요..기이한 복장을 한 저 사람을.

원주민: 혹시 오래전 우리의 땅에서 떠났던 케찰코아틀이 아니실까?

그도 텍스코코 호수를 걸어서 동쪽으로 사라졌다 했는데 그곳을 통해서 나오다니.

구전에 내려오는 신화속의 모습과 닮은 흰 얼굴과 푸른 눈이 같아보이지 않아?

원주민아내: 오, 케찰코아틀이시여..드디어 돌아오셨나이까?

여보! 어서 왕성 수비대에 알리고 오세요.

떠나셨던 신께서 돌아오셨다고..

멀 더 : 저기요..이 곳은 어디인가요?

비행중에 불시착한 것 같은데..이상하게 다른 승객은 보이지 않네요.

혹시 갈색머리의 젊은 여성을 보지 못했나요?

다른 승객들은요? 비행기는 어디에 있나요?

원주민아내: 오, 신이시여! 왕림하셔서 감사하나이다.

남편이 알리러 갔으니 곧 왕성에서 영접하러 올것입니다.

멀 더 : 아..무슨 소리인지 당체 알아 들을 수 없으니..

게다가 복장이랑 건축물도 기이하고 낯설기만 하니..

내가 어디 영화 세트장에 떨어진건가?

원주민: 여기입니다, 병사님!

보세요..신화에서 전하는 모습과 닮으셨잖아요.

게다가 저 오렌지색 복장의 가슴에 그려진 상징을 보세요.

깃털 달린 뱀으로 묘사되는 케찰코아틀의 형상과 비슷하지 않나요?

바로 떠나간 신의 재림이시라니까요.

멀 더 : 응? 가슴에 새겨진 비행기 로고를 가리키는건가요?

아하..구멍조끼를 벗으라는건가요?

하긴 이미 물으로 올라왔으니 계속 입을 필요는 없죠.

이거 좀 받아 주세요..몸이 지친데다 젖어 있어서..

그런데 여긴 어딘가요? 흑요석으로 만든 돌창까지 들고..혹시 영화를 찍는건가요?

수비대장: 오오~신이시여!

이미 성 안에 며칠 전 입성한 신의 동행이 있나이다.

제가 황제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貴物까지 내려주시다니..이봐, 병사! 자넨 이 성물을 제사장께 가져다 드리게!

멀 더 : 그런데..셋트장치곤 정말 정밀하게 만들었군요.

게다가 복장과 도구까지도..영화 제목이 뭔가요?

하아..무슨 말이 통해야 좀 알아 들을텐데..따라오라는건가요?

근데 이 곳이 어딘가 낯이 익기도 하고.

전에 멕시코 시티에서 보았던 유적의 형상과 닮아있군요.

시 민 : 큰일이다..다들 도망쳐요, 어서!

신의 사자가 아니라 악마의 도래였어.

얼마전 성 안에 들인 흰 얼굴의 수영난 일행들이 불벼락을 쏘아대며 닥치는대로 학살하고 있어요..

멀 더 : 맙소사! 정말로 사람들이 죽어가는거라니..

이게 무슨 일이지..저건 중세 스페인의 복장인데?

설마 지금 내가 있는 곳이 1519년 11월 8일의 아즈텍 멸망의 날이란 말인가.

혹시 내가 타임터널을 통과한 것인지?

아앗..이봐요! 그런 돌맹이 던지는걸로는 당할 수 없어요.

저들은 총을 쏘고 말에 타서 긴 칼로 공격하는데..어서 도망쳐요!

코르데스: 모두 죽여라..저 많은 자들을 압도하려면 공포로 각인시켜야 한다.

우리가 소수라도 겁내지 마라..미개한 자들을 모두 제압하고 황금산을 탈취하도록 하자!

응? 저기 이상한 복장은 누구냐..저 놈을 잡아와라!

멀 더 : 탐욕에 물들어 이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무뢰배들 같으니.

이렇게 아름답고 뛰어난 문화가 저들 침략자 손에 사라졌단 말인가.

이런..다들 빨리 호수쪽으로 도망쳐요!

아놔~~근데 왜 날 잡으러 오는거냐구..에잇!

스페인병사: 코르데스님! 방금 그 남자를 잡기 위해 쫓아갔는데 호수 속에 뛰어들고는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다.

.

·
·

관 객 : 으음, 차가워.. 이봐요!

아니 옷을 입은채로 어디 풀장에라도 들어갔다 왔소?

민폐 끼치지 말고 어서 옷 좀 말리고 와요, 그리고 자리로 가서 앉아요.. 통로에 있지 말고.

멀 더 : 아우웁! 응? 영어를 하시는군요?

아..이 많은 사람들은? 이 곳은 어디인가요?

관 객 : 당신 피겨 구경하러 온 거 아니었어요?

어디긴 어딴니까..퍼시픽 콜리세움 경기장이지.

그나저나 그만 좀 가서 앉지 그래요.

당신도 옆에 있는 잼 관중처럼 아사다 선수 팬이요?

하긴 방금 엄청난 점수를 퍼받아서 저리들 일어나 열광중이지만 말ियो.

니뽕아줌마: 아? 마오짱 팬이시무니까?

방금 마오짱 연기 보셨스무니까?

쇼트 점수 73.78 점이나 기록했스무니다..간바레 마오짱!

멀 더 : (이번엔 밴쿠버 현장이란 말인가?)

미세스! 영어 발음이 상당히 독특하군요..

미안합니다, 전 유나킴 팬입니다.

니뽕아줌마: 흥! 이번 점수에 아마 요나선수는 오금이 저렸을것이무니다.

바로 뒤에서 하는 중압감에 무너질지도 모르무니다.

멀 더 : 후훗! 두고보시면 압니다.

아마 압도적인 연기로 아사다 선수의 3 분 천하를 끝내고 78.50 점이나 얻을거예요.

게다가 경기 후 프리 추첨에선 부메랑 제대로 맞을겁니다.

이번엔 순서가 역전되어 경기를 치를걸요^^

그리고 유나킴에 환호하는 관중들의 함성에 흔들려 후반엔 실수도 할겁니다.

아마 점수 차이를 23 점이나 벌리며 세계신기록 수립과 함께 포디움 꼭대기에 선 쿤을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고 돌아가서 눈물 펄펄 흘릴거라 장담하죠!

안전요원: 이봐요, 거기!

자리가 어딘가요? 곧 경기가 시작됩니다..자리로 돌아가세요.

통로에 서 있으면 안됩니다.

멀 더 : 이런..어서 빨리 스컬리를 찾아야하는데.

꿈꾸긴해도 진정으로 이런 여행을 바란 것이 아니었는데 지금 뭐하는건지!

니뽕아줌마: 안전요원님! 여기 이 남자 좀 이상하므니다.

자리도 없는 것 같스므니다.. 티켓 체크 좀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스므니다.

멀 더 : 아놔..두고 봐요! 좀 있다가 부메랑 쳐 맞는걸.

지금이야 내 말이 믿기지 않겠지만 곧 알게 될거요.

그나저나 난간에서 뛰어내려야 한다니..에잇!

안전요원: 이봐요..거기 잠깐 서봐요!

아니? 여긴 3 층이라구요...이봐요!

To be continued..

<<예전에 나는 나비가 된 꿈을 꾸 적어 있다. 그때 나는 기꺼이 날아 다니는 나비였다. 아주 즐거울 뿐이었다. 그리고 자기가 장주(莊周)임을 조금도 지각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갑자기 꿈에서 깬 순간 분명히 나는 장주가 되었다. 대체, 장주가 나비 된 꿈을 꾸었던 것일까. 아니면 나비가 장주가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장주와 나비는 별개의 것이건만 그 구별이 애매함은 무엇 때문일까. 이것은 사물이 변화하기 때문이다.”도(道)의 세계에서 보면 만물이 다 제일(第一)하다. 장주도 호접이고 호접도 장주라. 꿈도 현실이고 현실도 꿈이다.>>

- 莊子の 齊物論편 중에서 -

Mrs.스컬리: 이봐요, 괜찮아요? 정신이 좀 들어요?

멀 더 : 으으으..아? 스컬리?

정말 스컬리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거죠?

그동안 스컬리를 얼마나 찾아 다녔는지 몰라요.

아마 내가 꿈을 꾸었던 모양이죠?

Mrs.스컬리: 갑자기 뜰에서 쿵 소리가 나서 와보니 나무 아래에 맥이 쓰러져 있더군요.

그런데 절 아시나요? 누구신가요?

전 낯설기만 한 분인데요..그리고 이왕 부르실거면 스컬리 부인으로 불러주시겠어요?

멀 더 : 스컬리! 나라구요..그새 잊은거예요? 도대체 우리 어떻게 된거죠?

응? 그런데 스컬리 머리 색이랑 모양이 바뀌었군요.

열은 금발머리에 웬 사자머리를 하고 있는거죠?

그리고보니 복장도 그렇고..당신 어딘지 약간 달라 보이는군요.

Mrs.스컬리: 글썄요..죄송합니다만, 당신이 누군지 기억이 나질 않네요.

그리고 이건 지금 유행하는 최신 스타일인데..이상한가요?

멀 더 : 이런..실례했습니다..제가 아는 누군가와 무척 닮으셔서요.

그런데 혹시 데이나 스컬리양 아니신가요?

Mrs.스컬리: 어머! 제 딸을 알고 있나요?

혹시 유치원 선생님이신가요? 잠시만요..스컬리!! 이리 좀 나와보렴.

스컬리: 엄마! 한창 '툼과 제리' 재미있게 보던중이었는데..

멀 더: 스컬리? 이럴수가!

정말 스컬리 맞나요?이런 만남이라니..

스컬리: 누구세요, 아저씨? 절 아세요?

멀 더 : 아주 잘 안단다..스컬리!

난 멀더라고 한다..어릴때도 예뻐구나..

으으으..이런..몸이...우린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스컬리: 엄마!엄마! 봤어요? 방금 그 아저씨..몸이 저절로 사라지는걸?

Mrs.스컬리: 그래, 스컬리! 정말 놀랍고도 이상한 일로구나.

갑자기 몸이 사라지다니..우리가 꿈을 꾸 건 아니겠지?

.

.

스컬리: 멀더! 이제 좀 정신이 들어요?

멀 더 : 으음..스..스컬리? 정말 스컬리인가요?

우리 정말 다시 만난건가요?으흑흑..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스컬리!

스컬리: 그래요..나예요, 멀더! 이제 안심해요.

이 곳은 푸에르토리코의 세인트 마리아 병원이에요.

이제라도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격한 반응이라니..오히려 당신이 계속 정신을 잃고 있어서 내가 걱정했다구요.

멀 더 : 병원이라구요, 스컬리?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스컬리: 폭풍과 난기류에 휘말려 비행기가 요동칠 때 의자밑으로 머릴 숙이고 한참을 버티고 있다가, 다시 비행상태가 고르게 되어서 정신을 차려보니 당신이 정신을 잃고 있더라구요.

착륙한 후에도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는 당신이 걱정되어서 이 병원으로 옮겨온거예요.

이제 괜찮은건가요? 정말 다행이에요.

멀 더 : 그럼 난 계속 병원에 있었던 말인가요?

난 그저 꿈을 꾸고 있었던건가? 무척이나 생생했었는데..

스컬리: 그래요, 멀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아 얼마나 걱정했다구요.

아..이런! 이제 막 깨어난 환자에게..조금만 더 쉬도록 해요.

난 간호사에게 당신이 깨어났다고 알리고 올께요.

멀 더: 혹시 내가 엘드리지호의 선원처럼 텔레포트를 경험한 건 아니었을까?

꿈이라기엔 지나치게 생생했는데..하지만 그렇다면 왜 나만 경험한거지..

내가 앉은 좌석만 타임터널에 반응한건가? 아..모르겠다..

어쨌든 스컬리와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네.

최악의 겨울 휴가가 되고 말았지만..

.

.

.

<푸에르토리코, 세인트 마리아 병원 3층 간호사 데스크>

스컬리: 수고하십니다..지금 304호실의 멀더 환자가 깨어났거든요.

의사분께 알려주시고 나중에 컨디션 체크 좀 부탁 드릴게요.

근데 뭘 그렇게 시청하시는거예요? 재미난 뉴스라도 있나보죠?

간호사: 아, 알겠습니다..담당선생님께 말씀 드릴게요.

해외뉴스라는데..얼마 전 멕시코 시티에서 수도관 증설을 하기위해 터 파기 공사를 하다가 고대 아즈텍 유물을 발견했다나봐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케찰코아틀의 성물 보관함이란 문자가 적혀있었다는데, 희한하게도 그 속에 보관된것이 삭아가던 의류라는군요..남은 형태가 마치 조끼처럼 되어 있다던데.

그런데 의문인것은 그것이 당시 사람들의 직물이나 의류와는 전혀 일치되지 않는 형태래요.

게다가 당시 수준으로 만들지 못하는 석유 추출물에 의한 합성의류라는데, 그 근처엔 석유나 석탄같은 물질이 매장되어 있지도 않은데다 설령 있다해도 그걸 캐내어 추출하고 옷으로 만들어 낼 과학기술은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불가사의한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지금 한창 학계가 뒤집어졌대네요..

.
. .
.

<7년 전, FBI 본부>

스컬리: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요원 스컬리라고 합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이 곳에 가면 선배 한 분이 앞으로의 팀 활동에 대하여 설명해 줄거라고 해서 찾아 왔습니다.

멀 더 : 반가워요, 스컬리 요원!

난 멀더라고 합니다. 우리 팀은 다른 부서에서 쫓기 힘든 미스터리나 과학적으로 풀리지 않는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분석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스컬리 요원의 성적과 경력을 보니 굉장한 엘리트인데 이런 부서에 지원하다니 의외로군요.

스컬리: 네..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멀더요원! 음..그런데 웬지 들어본듯한 이름이네요.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이상한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런 미스터리한 현상을 파헤치기 위해 기반이 되는 공부도 좀 했어요.

마침 X-파일팀이 있다길래 이 곳에 지원했습니다.

.
. .
.

<밴쿠버 올림픽 직후, 니뽕국 투채널 어느 쓰레드>

名無しさん@恐縮です(ID:e5k**):** 이번 올림픽은 요나의 심판 매수가 틀림이 없어.

마오짱이 트악 3 번이나 성공시켰는데도 어째서 겨우 은메달에 머물러야하냐구.

名無しさん@恐縮です(ID:2L6g**):** 이런 불공평한 피겨 관행은 개선되어야만 해.

기술의 마오짱이 더 대우 받아야하는 룰로 바뀌어야 한다구.

요나는 그저 쉽고 단순한 점프만 해대는데도 그런 점수를 퍼받다니..말도 안돼.

名無しさん@恐縮です(ID:WgqQ*):**어쩌면 우리 니뽕국을 견제하기 위한 북미 피겨의 음모일 수 있어.

이미 미국에선 미셸 콰이후엔 제대로 후계자라 할만 한 선수도 없잖아.

게다가 캐나다의 로셰트가 동메달을 딴것만 봐도 북미피겨계의 검은 손이 끼어있는지도..

요나는 뭐니뭐니 해도 캐나다에서 훈련하는데다 공공연히 콰이 자기 우상이라 했으니까.

名無しさん@恐縮です(ID:D1Wvy):**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제가 경험한 걸 말씀 드릴게요.. 저는 얼마 전 밴쿠버 현장에서 마오짱의 감격적인 연기를 생생하게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오짱의 쇼트 연기가 끝이 난 후 이상한 남자를 만났어요.

옷이 젖은 백인 남자였는데, 놀랍게도 그는 요나킴의 쇼트가 시작되기도 전 이미 그 점수를 정확히 예측하더군요.

그리고 프리 순서와 그 결과까지 정확하게 말했어요.

전 다음 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모든게 그 남자의 말대로 되었으니까요.

이건 분명 사전에 모의된 무언가가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그러니 그렇게 점수와 순서까지 기막히게 맞추죠.

점쟁이도 아닐테고..무슨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닌 이상에야 말이죠.

名無しさん@恐縮です(ID:ulV12*):** 윗 분 그 말씀 정말인가요?

그렇다면 이건 정말 부정행위로 딴 금메달이 틀림없군요.

아..우리 마오짱 불쌍해..그런 요나킴의 점수만 아니었음 신기록도 마오짱걸텐데..

난 마오짱의 눈물을 잊을 수 없다구..역시 요나가 금메달이란건 말도 안되었다구.

여러분! 우리 마오짱의 잃어버린 신기록을 위해 기네스북에라도 등재 요청을 합시다.

아마 트악 3 방 성공이면 기네스에서도 받아줄걸요.

두 편으로 나눌까하다가 절단마공 때문에 주화입마에 빠지는 분이 계실까봐 그냥 한 편에 담았더니 스압이 상당하군요.

말도 안되는 내용이지만 그냥 빨글로써 웃으며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용이 제법 기니 내일 하루쯤은 연재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엄청나게 춥군요..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연아한 주말 보내세요!

X-파일 43화 (마오타편) [29]

실버티어즈 [작영글 전체보기](#)

추천 27 | 반대 6 | 조회수 543 | 2011.01.17

"NASA 가 우주선을 발사해 지진을 일으켜서 대통령을 터키서 암살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NASA 의 지원금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세상에 정상이란건 코카콜라에 켄터키 치킨이나 뜯으며 음모속에서 사는거예요."

- 영화 '컨스피러시' 중에서 -

스컬리: 편지왔송~♪ 편지왔송~♪

멀더! 우리팀 앞으로 달달한 표지의 편지가 하나 와있네요.

겉봉을 **Pink Ribbon** 으로 장식해서 보냈던데 이거 혹시 당신에게 온 연애편지는 아닌지 모르겠군요, 멀더!

멀 더 : 음! 스컬리, 그 손발이 오글거리는 대사는 뭐예요?

요즘같은 시대에 메일도 아니고 편지라니..

이상하지 않아요, 스컬리?

스컬리: 알쌍한 편지 포장에 걸맞게 달달한 우편배달 알리미 흥내내본거죠.

그렇지않아도 탐지기로 투시해봤는데 이상한 물질은 들어있지 않더군요.

안심하고 뜯어봐요, 멀더!

혹시 알아요? 겨울 휴가를 병원에서만 보내다 온 당신에게 본부 소속의 아름다운 아가씨가 보내온 위로편지일지 모르잖아요.

멀 더 : 예효, 스컬리! 미안해요..

추운 날씨를 피해 따뜻하고 편하게 즐기고 왔어야 할 휴가가 나때문에 망치고 말아서.

그나저나 이 요란한 편지는 무엇이람!

스컬리: 그닥 망친 휴가는 아니었어요, 멀더!

당신이 병실에 누워있는 사이 틈틈이 근처 해변에 가서 일광욕을 즐기고 왔으니까요.

근데 뭐라고 적혀있나요, 멀더?

멀 더 : 흠! 정말 아쉽군요..나도 같이 해변에서 보내고싶었는데.

워 꿈인지 생시인지 잊지못할 휴가를 보낸건 사실이지만요.

흠! 이거 참..스컬리도 한번 읽어봐요.

권유나에 대한 내용인데 이걸 기사화시키고 정부 주도로 보도하라고 요구하는군요.

스컬리: 멀더 당신에게 보낸 러브레터가 아니었던 말이에요? 근데 무슨 리본까지..

"FBI 소속 X-files 팀 친전,

나는 인류의 존속을 위하여, 외계에서 온 존재의 위험성을 밝히고 그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글을 보냅니다.

개인적으로 관찰을 해왔는데, 그녀는 분명 외계인이 틀림없으며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공포의 대왕으로 추측됩니다.

바로 코리아의 피겨선수인 유나킴을 말하는 겁니다.

그녀는 인류의 남성성을 제거하고 결국은 종족을 번식하지 못하게 하여 멸망케하려는 외계문명이 보낸 인류 최강의 적이자 최후병기입니다.

지난 밴쿠버 올림픽을 보셨겠지요?

그 압도적인 연기와 점수는 안드로메다 성계에까지 다다를 정도로 엄청난 것입니다.

마오짱이 **역전의女王**으로 등극하기 위해 준비한 필살기 트악 3 종류로도 넘지 못할만큼요.

이것이 바로 그녀가 외계인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나선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만큼 압도적인 연기를 펼친게 부담이 되니까, 바로 이어진 월드챔피언쉽에선 너무 티나게 흐트러진 모습을 연출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죠.

하지만 난 속지않고 그녀를 계속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주변을 살펴보니 그녀가 지구에 온 목적이 파악되더군요.

그것은 다름아니라...."

멀 더 : 흠..나말고도 유나킴의 정체를 의심하는 사람이 또 있을줄은 몰랐군요.

하지만 나랑은 견해가 확연히 갈리네요.

나는 오히려 인류에게 던지는 평화의 메신저 역할로 온 것이라 보는데..

이 사람은 인류의 멸망을 위하여 온 전략병기라고 보니..

스컬리: 멀더! 이 사람 뭐죠?

내가 더 소리내 읽지 않았지만 이 뒤에 적힌 내용은 대충 살펴봐도 그냥 기가 막힐 뿐이군요.

이건 그냥 어거지에 자기의 논리를 대입시켜논 거 아닌가요?

멀 더 : 위의 내용들이 일부 사실이긴 하죠..다만 좀 억지가 심하다는건데

흠..개인적 추리로 살펴보면 이 편지는 여성에 의해 쓰여진게 틀림없어요, 스컬리!

일단 남자들은 꺼리는 달달한 편지봉투와 핑크색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다는 점에서요.

게다가 편지지에서 나는 은은한 향수는 아마 샤넬 No.5 같군요..

관능미를 강조하는 여성임에 틀림없는 것 같아요.

다만 왜 유나킴을 디스하는 내용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편지 내용중에 마오짱이란 표현을 봐서는 아사다 선수 팬인 여성으로 추정되는군요.

스컬리: 멀더! 미안하지만 이 향은 겐조 플로랄이거든요.

뭐 여성스러우면서도 부드러운 향이니 대략 20 대 후반의 여성같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설록홈즈 빙의 놀이는 그만두고 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몰라요, 멀더!

이 편지 내용을 주요일간지에 보도하고 유나킴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으면 상상하기 힘든 큰 일이 벌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멀더! 혹시 테러라도 계획하는 건 아닐까요?

멀 더 : 그녀를 외계인으로 본 날카로운 직관은 대단하지만, 그저 음모론에 빠져있는 망상성 환자인지도 모르죠.

일단은 유나킴측에 이런 편지 내용을 알려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편지를 보내온 발신지가 어디인지 추적해보도록 하죠.

어쩌면 메일을 보내지 않고 편지를 보낸건 발신인이 정체를 감추기 위함인지도 모르니까요.

.
. .
. .
. .

스컬리: 멀더! 긴급상황이에요.

지금 할인마트 롯데니아에서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어요.

신제품 홍보중인 통큰버거 판촉행사장에서 몇명의 인질을 잡고 우리팀을 불러달라며 요구하고있어요, 멀더!

멀 더 : 인질극이라구요, 스컬리?

게다가 인질협상가도 있는데 왜 우릴 지목해서 불러내는거죠?

스컬리: 일단 가면서 설명할게요, 멀더!

지난번에 우리에게 편지를 보낸 당사자같아요.

어째서 아직도 일간지에 기사가 게재되지 않았냐면서 이제 자신이 직접 티비에 노출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중이라더군요.

멀 더 : 신상은 파악되었나요, 스컬리?

스컬리: 그래요, 멀더!

이름은 **Agnes.M.B.벤또** 라고 니뽕계 시민이에요.

원래는 반키샤 대학에서 사진학과를 전공하고 패션계에서 일자릴 얻었는데, 실력이 달려서인지 금방 실직하고는 주로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들을 쫓아다니며 그들의 사생활을 도촬하여 수입을 얻는 파파라치 생활을 했다는군요.

멀 더 : 일단 가서 원하는게 뭔지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이나 주변인물을 파악하여 설득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구요.

To be continued..

이번 이야기는 브윈힐트님이 특별히 요청하셔서 준비했습니다.

브윈힐트님이 보내신 스토리 열개를 토대로 나름 꾸렸는데 좀 민망하더라도 그냥 빨글로 웃으며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X-파일 44화 (마오타편) [11]

실버티어즈 [작영클 전제보기](#)

추천 18 | 반대 3 | 조회수 241 | 2011.01.18

"내가 진짜로 되고 싶은것은....호밀 밭의 파수꾼이야....넓은 호밀밭 같은데서....몇 천명의 아이들이 있을 뿐 주변엔 아무도 없어. 나 이외에는 어른이 아무도 없단 말이야. 나는 위험한 벼랑 끝에 서있는거지. 내가 하는 일이란 누가 잘못해서 벼랑으로 굴러 떨어지는 일이 생기면 그 애를 붙잡아주는거지. 말하자면 애들은 어디를 달리고 있는지 보지도 않고 뛰잖니? 그런 때에 나는 어디선가 재빨리 달려나와서 그 애를 잡아주는거야. 하루종일 그 일만 하는거라구. 즉, 호밀밭의 파수꾼이지....내가 정말 되고 싶은 건 그것밖에 없는걸...."

- 제롬 D. 셀린저의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 중에서 -

멀 더 : 스킨리! 현장 상황은 어떤가요?

주변에 대한 통제는 확실하고 언론은 차단했나요?

스컬리: 일단 건물 내의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대피시켰구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알리고 언론의 인터뷰는 나중으로 미루었어요.

멀 더 :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한 저격팀은 배치했나요?

스컬리: 그래요, 멀더! 저기 뒷쪽에 식료품 코너 보면 '아싸다 미역'이란 입간판이 보이죠?

그쪽에 저격수를 배치해서 유사시를 대비하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인질범이 자신의 몸 안쪽에 폭탄을 두르고 있다고 협박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배치는 했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많은 피해가 예상되요.

멀 더 : 일단 그녀에게 가봅시다.

우릴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니 원하는 바가 있을거예요.

그런데, 스컬리! 저 복장은 도대체 뭐죠?

벤또양의 의상 취향은 참 독특하군요..아무나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스컬리: 최근 슈퍼스타 스텔라를 파파라췌하는 와중에 제대로 된 도촬 사진을 찍지 못했나봐요.
그래서 근처 극장의 홍보 알바를 하는중이었다더군요.

나탈리 포트만 주연의 영화 '**Black Swan**' 홍보를 하다가 그 의상 그대로 왔나보더라고요.

멀 더 : 음, 저게 흑조 의상이라구요? 내 눈엔 검정오리로 보이는데 말이죠.

그나저나 갑자기 알바중에 이리 와서 이런 사건을 일으켰다면 이게 우발적인건지 계획적인건지 알 수가 없군요.

일단 그녀의 집으로 한 팀을 보내서 정말로 폭탄 제조에 들어간 물건이 있는지 수색시키죠.

.
. .
.

스컬리: 벤또양! 우릴 청하였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우린 FBI 소속 익스파일팀입니다..그래, 원하는게 뭔가요?

벤 또 : 얼마전 내가 보낸 편지를 봤죠?

거기에 다 쓰고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아직도 주요 일간지에 내 편지내용이 실리지 않는거죠?

지금 인류가 위험한 상태에 있다구요.

멜 더 : 벤또양! 정부기관은 그런 편지나 협박에 굴해 기사를 게재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유나킴이 인류 말살을 위해 외계에서 온 존재이며 인류의 남성성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고 왔다고 올리라니..

아마 그런 기사를 올린다면 전 세계가 우리 합중국을 비웃을겁니다.

정확한 사실을 근거하지 않고 그저 그런 음모론에 찬 글을 어찌 올리란 겁니까.

어서 인질들을 풀어주세요, 벤또양!

벤 또 : 당신들은 미스테리를 추적하는 전담팀으로 아는데, 어찌 그저 망상으로만 치부하는거죠?

유나킴의 주변 남자들을 보세요.

그녀의 전 코치와 지금의 안무코치는 모두 동성애자라고요.

그리고 유나킴과 함께 아이스쇼에서 페어로 호흡을 맞췄던 조니선수도 얼마전 커밍아웃을 했구요.

그걸 보고도 아직 짐작이 가질 않나요?

그녀는 주변 남자들의 성적 취향을 바꾸어 자연스런 인류 멸절을 꾀하는 외계인이라고요.

스컬리: 벤또양! 그건 억지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성향에 맞추어 여태 살아온거고, 또 용기있게 세상에 알렸을 뿐입니다.

유나킴과는 그저 피겨분야에서 교집합이 있던 것 뿐이라고요.

그런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지엽적인 몇가지 경우로 황당한 음모론에 빠지다니요.

어서 인질들을 풀어주세요, 벤또양!

벤 또 : 흥!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왜 제 주변의 남자들도 모두 유나킴때문에 자신들의 남성성을 포기했냐구요.

제가 대학때 짝사랑하던 교수님이 있었지만 그에게 부인이 있어서 포기하고 말았죠. 하지만 나중에 그 교수님이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패션잡지에서 일을 할때 우연히 서울 **역삼洞**에서 열린 세계 사진작가 교류전에서 그 분을 다시 만날 수 있었죠.

사람들 때문에 제 마음을 표할 수 없었고 다음날에야 헬스장에서 조용히 만나는 계기가 있어서 용기내어 고백했지만 내가 들은건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자신은 새로이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눈 뒹다며, 벽에 걸려있는 유나킴의 사진을 가리키며 자기도 저런 아름다운 여성으로 다시 태어나고싶다고 했어요.

봐봐요, 그녀는 모든 남성을 여성화시키는 마성을 가진 인류의 적이라구요.

멀 더 : 그건 그저 우연일 뿐이잖아요, 벤또양!

그 때 벽에 걸려있던게 유나킴의 사진이어서 그랬을 뿐이지 다른 여자의 사진이었어도 마찬가지였을거라구요.

벤 또 : 겨우 우연의 일치라구요?

계속 내 말을 들어봐요. 그 후 내 맘을 추스리고 난 남친을 사귄 수 있었어요.

그는 프랑스 태생의 감성적인 예술가였어요.

극단 **Dreamer** 소속의 마임 **아티스트**였는데 작년에 새 작품 '발레리 NO'에 출연하였죠.

그런데 관객들이 그의 연기보다는 타이트해서 푹 볼거진 그의 민망한 복장을 가리키며 박장대소했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집에서 두문불출하며 히키코모리가 되었죠.

그러더니 유튜브에서 유나킴의 영상을 접하곤 그녀의 광팬이 되어서 그녀를 닮고 싶다더군요.

자신의 남성만 아니었으면 그런 민망한 복장에 사람들이 웃지 않았을거라고 자학하더니 어느날 중요 부분을 스스로 자해하고는 날 떠나버렸어요.

이것도 유나킴 때문이라구요.

마지막으로 최근 사관 남친은 존슨이란 남자인데 빙상장에서 **Zamboni** 기사로 있어요.

그와는 서로 좋아하는 피겨선수의 차이로 약간의 다툼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내게 버럭 화를 내곤 결별을 선언하더군요.

나처럼 여자에게 시달리느니 평생 혼자 살겠다며 가버리더군요.

그는 바로 유나킴의 팬이었어요. 이래도 내 논리가 부족한가요?

그녀는 바로 외계의 존재이며 남성성을 없애 인류를 파멸할 무서운 존재라구요.

그러니 어서 내 주장을 언론에 알려줘요.

안그럼 여기 인질들에게 통큰버거 5 개씩 먹이는 만행을 저지르겠어요.

이 버거는 패티가 무려 3 개나 되는거 알죠?

그 높은 칼로리를 자꾸 우겨넣어서 똥보로 만들어버리겠어요.

스컬리: 일단 상부에 연락하고 허락을 말아야 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벤또양!

부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말구요..조금있다가 다시 올께요.

멀 더 : 스컬리! 일단 그녀가 말한 남자들 수배하고 정말인지 알아봐요.

그리고 연락이 되는 사람을 불러와서 설득하도록 하죠!

.

.

.

스컬리: 멀더! 다행히 그 남자들 모두에게 연락이 닿았어요.

그런데 그녀의 진술이랑 묘하게 같은 듯 하면서도 엇갈리는군요.

마침 존슨이란 남자가 이리로 온다니 그를 통해서 설득하게 하죠.

멀 더 : 그래요, 스컬리!

흐흠..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그녀는...

To be continued..

=====

이로써 벤또양이 내세운 음모론의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까요?

브윈힐트님! 사실 민망한 내용이라 부담되고 고민된 건 사실이지만 강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성적 소수자 분들을 비하하는 내용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누락(Omission)으로 야기되는 오류

1. 소멸성 (transience):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약해지거나 소멸함
2. 정신없음 (Absent-mindedness): 주의와 기억간의 접촉에 이상이 생길때 일어남
3. 차폐 (Blocking):어떤 정보를 필사적으로 인출하려해도 불가능하게 막혀있는것을 말함

수행(Comission)으로 야기되는 오류

4. 誤歸因 (Misattribution):기억을 잘못된 출처에 돌리는것을 말함
5. 피암시성 (Suggestibility):추가설명이나 유도질문 등에 의해 새로 생겨나는 기억을 말함
6. 편향 (Bias):현재의 지식과 믿음이 과거의 기억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것을 말함
7. 지속성 (Persistence):기억에서 잊길 원하는 정보,사건들이 반복해서 떠오르는것을 말함

- 하버드대 교수 대니얼 L. 삭터의 저서 '기억의 일곱가지 죄악' 중에서 -

멀 더 : 스킨리!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기억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군요.

존슨씨가 오는대로 같이 가서 설득해봐야겠어요.

스컬리: 그러게요, 멀더!

아마도 계속된 일련의 상처가 그렇게 만든 것 같군요.

아..존슨씨가 도착했다네요...같이 가도록하죠, 멀더!

벤 또 : 이제서야 다시 왔군요.

위에선 뭐라고 하나요? 나의 주장을 기사화시키고 언론에 알려주겠다던가요?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으니 거부하거나 설득할 생각은 마세요.

멀 더 : 벤또양! 차분하게 내 말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당신이 말한 대학때의 담당교수님과 연락이 닿았어요.

그의 말은 당신의 진술과는 좀 다르더군요.

그때 서울에서 당신과 다시 만났을 때 무척 기뻐지만 뜻밖의 고백에 좀 당황스러웠다는군요.

마침 전처와 화해하고 새롭게 출발하던 때라 당신의 마음을 받아줄 수 없다고 했다는데요.

제자와의 반가운 해후의 장소를 나중에 떠올리면서 不倫의헬스장이란 얼룩진 추억으로 남겨둘
순 없었다고..

벤또양 당신은 그 때 벽에 걸린 유나킴선수처럼 젊고 멋진 여성이니 좋은 남자를 만날거라고
위로하고 떠났다더군요.

벤 또 : 거짓말! 지금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려는건가요? 에잇!!

스컬리: 잠시 진정하고 계속해서 들어봐요, 벤또양!

당신의 전 남친과도 연락이 되어서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가 극단을 그만둔 건 정체된 자신의 연기를 새롭게 정립하고 재충전하려 했기 때문이래요.

그러는 나날중에 유튜브에서 발견한 유나킴의 작품영상은 자신에게 예술적 감흥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배우가 더 좋은 극단으로 오디션을 받으러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죠.

목숨을 구했지만 소중한 부위에 극심한 상처를 입고 더이상 정상적인 성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당신에게 늘 미안해했고 이해해달라며 떠난거라더군요.

벤 또 : 그럴수가..그렇다면 도대체 내 기억속의 그들은 왜 그런식으로 남아있는거죠?

멀 더 : 벤또양! 사람들은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나 경험을 하게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리적 방어기제가 작용합니다.

안좋은 기억은 심층 깊은곳에 봉인되거나 잘못된 기억으로 왜곡되어 나타나죠.

그리고 자신의 현실에서 도피하게끔 하기도 합니다.

그때 자주 나타나는 현상중의 하나가 외부의 한 요인을 자기에게 피해를 준 인자로 인지하고 적대시하거나 원망하게 하는거죠.

당신의 기억 또한 그렇게 형성 되어진 것일거예요.

벤 또 : 난...난 믿을 수 없어요..절대 믿을 수 없어요.

이 모든건 다 유나킴 때문이라구요..그렇다면 존슨..존슨은 어떻게 된거죠?

스컬리: 존슨씨? 존슨씨! 잠시 이리로 와주시겠어요?

존 슌 : 벤또! 아직도 그대로군..조금은 변할 줄 알았건만.

벤 또 : 존슨! 정말 당신인가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흐흑!! 당신이 떠난 이후에 내가 얼마나 상심했는 줄 알아요?

내 인생을 원망하고 날 이렇게 만든 유나킴이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존 슌 : 그래, 오랜만이야! 지금은 병상장에서 나와서 과일상을 하고 있지.

수박이나 메롱 등을 팔고 있는데 요즘 고객이 많이 늘어났어.

벤또! 내가 당신을 잠시 떠난 건 당신이 좀 변화하길 원해서야.

당신과 내가 약간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건 서로 이해하면서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거였지.

심지어 당신이 마오타이고 내가 유나팬이었던 점도 그저 각자의 선수를 응원하고 서로 격려하였으면 그만인 것을 당신은 늘 내가 유나킴의 팬인 것을 못마땅해 하며 유나가 그리 좋으면 그녀에게나 가버리라며 막말을 하곤했지.

그럼에도 난 꼭 참고 당신 곁에 있었어.

하지만 당신은 어땠는지 알아?

자칭 眞性 마오타라면서도 아사다 선수의 경기를 보기라도 했나?아니면 그녀와 관계된 출하 상품을 하나라도 사보길 했어?

그저 말로만 마오타입네 하면서 입으로만 떠들뿐 실질적으로 팬질을 한 건 한번도 없었지.

그러면서는 오히려 유나킴의 왜곡영상을 보면서 그녀를 헐담하고 그녀가 행한 기부나 선행을 씹으면서 의도가 불순하다는 등 폄하하기만 하였어.

그건 모두 내가 그녀의 팬이었던것이 못마땅해서 사사건건 물고 늘어진건지 마음은 유나킴으로 향해있는데 상황이 아사다선수를 응원케하는 반발 심리에서 나온건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당신은 아사다 선수보다도 유나킴에게 관심 많은 극렬팬으로 보였어.

마치 어린 시절 맘에 드는 여자애에게 못되게 굴던 사내애의 굴절된 심리처럼 말이야.

벤 또 : 그건..그건 모두 이전의 날 상처준 남자들이 전부 유나킴때문에 변했기 때문이었어.

그리고 당신도 내게서 떠날까 봐 무서웠다고..그래서 당신이 그녀의 팬이었던것도 싫었고.

존 손 : 그건 모두 당신의 왜곡된 기억이 부른 변명에 지나지않음이 지금 밝혀졌잖아.

그리고 내가 유나킴을 좋아하고 사랑하는건 그저 위대한 피겨선수에 대한 팬심의 발로에 지나지않아.

내 곁에 머물게 하고 싶은건 당신이라고.

영화 컨스피러시에서 멜 김슨의 대사에 이렇게 있지.

사랑은 상대방에게 날개를 달아주는거라고..상대를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것이 당신에겐 부족했다고..

그래서 제발 그런것을 고치고 조금은 변화된 다음 다시 만나기로 하고 잠시 떨어져있자고 제안했잖아.

유나킴이 모든것을 감내하며 당당히 헤쳐간 것처럼 당신도 그저 남탓만을 하지말고 좀 더 자신에게 당당하고 자신감에 찬 모습으로 변화하길 희망한다면서..이제 기억나?

벤 또 : 아~아~~그래요, 이제 모두 기억나요, 존슨!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걸까요?

존슨! 변함없이 날 사랑하나요?

내가 짓값을 치르고 돌아올때까지 기다려줄건가요?

존 손 : 벤또! 그래..언제까지나 당신을 기다릴께.

언제까지 그럴거야..절대 **기다림에** 지쳐하지 않고 당신을 기다리겠어.

벤 또 : 고마워요, 존슨! 정말 고맙고 사랑해요.

자! 여러분..이제 다 끝났어요..사실은 제 몸에 두른건 폭탄이 아니라 그저 가죽띠로 흉내만 낸거였어요.

그래도 정말 너무도 큰 소동을 부른 것 같군요.

이제 절 연행하셔도 되요..그리고 나중에 당당히 그에게 돌아가겠어요.

멀 더 : 다행입니다, 벤또양!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꿈에서 깨어나 소중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에게만 말하는건데, 사실 유나킴은 외계인이 맞습니다!

벤 또: 그렇죠? 그것만은 제가 본것이 틀림없겠죠?

하긴 그렇게나 대단한 기량과 연기를 보여주는것은 외계인이 아니곤 힘들겠죠.

그나마 그거라도 제가 정확히 봤다니 다행이군요.

나때문에 하루종일 이곳에서 억류되었던 분들에게겐 대신해서 미안하다고 말해주세요.

그럼 이만 가도록 하죠!!

=====

이번 챕터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전 해피엔딩이 좋아서 말이죠..

브원힐트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익스파일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73]

실버티어즈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56 | 반대 3 | 조회수 2081 | 2011.01.20

올 겨울 연일 맹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도 한파가 몰아친 듯, 하루 뒤에 들어와도 페이지가 몇개 늘어나지 않은데다 도배글을 제외하고 나면 제 기호에 맞는 글이 얼마 보이지 않는군요.

예전에 눈팅만으로도 한참이 걸리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흑독한 보릿고개 시즌이 맞는가 봅니다.

제 글 이야기를 하자면, 그저 낚시글로 시작하여 잠시의 웃음을 드리려고 하던게 어찌하다보니 그래도 꽤 오랫동안 연재를 해온 것 같네요.

부족한 글임에도 그동안 계속하여 보아주신 분들께 그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야기를 꾸며 올리는 재미에 빠져 즐겁게 써왔습니다.

애초 생각으로 3월 월드까지 끌고 가고 싶었는데, 웬지 요즘은 흥미가 떨어진달까 의욕이 좀 저하되어 연재를 그만할까 합니다.

무리해서 쓸수도 있지만 그저 맘에서 우러나지 않는 글로 게시판에 잡글만 더하게 될 것 같아 이제 그만하려 합니다.

애초 게시판을 알고는 이곳에서 올라오는 연아한 글들에 감동하고 저도 함께 호응하며 더 즐기고 싶어 글쓰기에도 동참했습니다.

시기가 보릿고개다 보니 요즘은 그런 게시글 찾기가 참 어려운 지경이네요.

연아선수나 피겨에 관한 이야기보다도 오히려 요즘은 비방글과 도배글과 유저들에 대한 이야기로 더 많은 게시물을 차지하는 것 같구요.

저도 이제는 조용히 눈팅하면서 댓글족으로 돌아가 3월의 그 날이 오길 기다려야겠습니다.

간간이 들어와서 멋진 글들에 댓글이나 달면서 기다리다 보면 연아양의 풍성한 떡밥으로 활기찬 봄날이 오겠죠.

그동안 제 졸저인 익스파일을 읽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로그인인 수고를 마다 않고 늘 귀한 댓글까지 주신 분들께 더한 감사를 남깁니다.

별글이나마 함께 웃고 즐겨준 분들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To be continued...

